

일본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kotra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 국가개요 / 1
- 국가조직 및 정치제도 / 3
- 주요인사 / 7
- 외교관계 / 7
- 주한주재 국기관 / 10
- 한국과의 주요이슈 / 10

II. 경제

- 경제정책 / 14
- 최신 경제 동향 및 전망 / 18
- 주요 산업 동향 / 22
- 정보조사 자료원 / 35

III. 경제무역통계

- 거시경제 통계 / 36
- 무역통계 / 36
- 투자통계 / 40

IV. 출장가이드

기후 / 42
시차.근무시간 / 42
도량형 / 44
출입국.비자 / 46
환율.환전 / 50
물가정보 / 52
교통.통신 / 56
호텔.식당 / 62
관공서 관행 / 65
공휴일 / 65
여행시 유의사항 / 66
유용한 연락처 / 72
관광명소 / 76

V. 무역

1. 무역시스템의 이해
교역관련 주요법규 / 81
수입규제제도 / 81
관세제도 / 87
주요인증제도 / 92
지적재산권 / 94
소비자보호제도 / 98
교역관련 국가기관 / 104
2. 바이어 발굴
시장 특성 / 104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106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107
3. 협상과 계약
상담 요령 및 비즈니스 에티켓 / 107
계약 체결시 유의할 점 / 109
4. 통관 및 운송
통관절차 / 110
운송 / 112
5. 무역분쟁
분쟁해결 절차 / 113
유형별 분쟁사례 / 114

VI. 투자

1. 투자 동향

외국기업 투자동향 / 115

우리기업 투자동향 / 118

2. 법인설립

투자환경 / 120

투자인센티브 / 124

타당성조사 / 127

투자 진출형태 및 설립절차 / 128

입지선정 / 139

공장 설립 / 146

투자관련 정부기관 / 148

투자관련 서비스기관 / 149

3. 사업관리

노무관리 / 150

조세제도 / 160

외환관리 / 164

4. 현지정착

이주정착 가이드 / 167

1.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명	일본(JAPAN)
위치	북위 45도 33분에서 20도25분 사이에 위치, 4개의 주요 섬으로 구성
면적	377,829S/M (한반도 면적의 1.7배)
기후	4계절이 분명하며, 대체로 해양성 온대기후. 남-북 길이가 3,300km로 지역별 기후 차이가 심함
수도	도쿄(東京)/TOKYO
인구	1억2,776만 명, (후생노동성 2005년 조사)
주요도시	동경(8,483천명), 요코하마(3,579천명), 오사카(2,628천명), 나고야(2,215천명), 삿포로(1,880천명), 교토(1,474천명), 후쿠오카(1,400천명), 히로시마(1,154천명)
인종	몽고족(大和族:야마토족) 99%이상, 기타 재일교포, 아이누족 등 1% 미만
언어	일본어
종교	신도 49.4%, 불교 44.7%, 기독교 0.8%
건국기념일	2월 11일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국가원수	천황(明人:아키히토)
수상	安部晋三(아베신조) - 취임일 : 2006. 9 취임

나. 경제지표

명목 GDP	505.3조엔(2005년도)
실질경제성장률	3.2%(2005년도 기준, GDP성장률)
1인당GDP	35,751 달러(2005년 명목GDP기준)
실업률	4.2%(2006년 6월)
물가지수	소비자물가: 0.6%(2006년6월, 전년비) 국내기업물가: 3.4%(2006년7월, 전년비)
화폐단위	Japan Yen (¥)
환율	US\$ 1= 116엔(2006.8.17일 기준),
외환보유고	8,719억 달러(2006년7월 기준)
산업구조	1차 산업 4.4%, 2차 산업 27.0%, 3차 산업 67.4%
교역규모	11,114억 달러(2005년)

년도는 회계연도(일본은 4.1-3.31) 기준을 의미

자료원 : 일본 내각부 및 정부 발표자료, 일본은행, WTA, 일본국세도회, 일본경제신문사 발표자료

다. 2005년 일본 교역실적(전세계)

- 수출: 595,269 백만 달러(5.3 %)
- 수입: 516,201 백만 달러(13.2 %)
- 수지: 79,068 백만 달러(-39.0 %)

라. 2006년 일본 1-6월 교역실적(전세계)

- 수출: 309,221 백만 달러(6.46%)
- 수입: 279,994 백만 달러(12.74%)
- 수지: 29,227 백만 달러(-44.07%)

(자료원: WTA 통계)

마. 우리나라와의 주요 교역물품

- 대일수출: 석유제품, 반도체, 철강판, 컴퓨터 등 상위 10대 품목이 전체 50% 이상 차지
- 대일수입: 반도체, 반도체제조기계, 철강판, 플라스틱제품 등 생산설비 및 부품소재가 중심
- 체결협정: 기본관계조약(1965.12 월), 어업협정, 재일교포 법적지위협정, 문화재 및 문화협력협정, 항공협정, 대륙붕공동개발협정, 과학기술협정, 투자협정

* FTA(자유무역협정)는 2006년3월 기준6차 협상까지 진행, 한일 FTA는 포괄경제협정(EPA) 형태로 추진, 그러나 역사문제 등으로 2004년 11월 이후 교섭 중단

한일 교역규모

(단위 : 백만 불)

연도	수 출	수 입	수 지
2000	20,466	31,828	-11,362
2001	16,506	26,633	-10,128
2002	15,143	29,856	-14,713
2003	17,276	36,313	-19,037
2004	21,701	46,144	-24,443
2005	24,027	48,403	-24,376
2006. 1-7	15,173	20,770	-14,597

자료원 : KOTIS

일본의 대 한 투자 동향

(단위 : 건, 백만 불)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962년-2005년
건 수	592	474	495	552	612	8,886
금 액	776	1,404	541	2,258	1,879	17,397

자료원 : 산업자원부

* 교민현황: 607,419명(법무성 입국관리국 2004년 발표, 2006년7월 기준 최신수치)

- 일본 내 전체 외국인 거주자 인구의 30.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2 위는 중국, 3 위는 브라질 순)
- 한국, 북한 국적 교포는 특별영주자수의 감소로 1991 년을 피크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음. 504,420 명(유학생, 상사주재원 등 제외)

2. 국가조직 및 정치제도

가. 일본의 국가 원수

일본은 형식적으로는 일 왕을 정점으로 하는 입헌군주국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권재민을 원칙으로 하여 입법, 행정, 사법 3권이 분리된 의회제민주정치의 국가이다. 일본의 국가원수에 대해서는 일 왕 혹은 총리를 놓고 이론의 여지가 있으나 외교상이나 의전상으로는 일 왕이 국가 원수로 보아 무방하다. 그러나 일 왕은 일본국 헌법 제1조에 일본국 및 일본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규정되어 있고 실질적인 권력은 총리가 갖고 있다

- 일왕 (상징적 국가 원수)
 - 성명 : 아끼히토 (昭仁)
 - 즉위일 : 89.1.7
 - 생년월일 : 33.12.23일
 - 학력 : 學習院大學教育수로
 - 자녀 : 2남 1녀
- 수상 (실질적 국가 원수)
 - 성명 : 아베 신조(安倍 晋三)
 - 취임일 : 2006.9.26
 - 생년월일 : 1954.9.21
 - 학력 : 세이케이 대학 법학부 정치학과 졸업
 - 경력 :
 - 중의원 첫 당선 (1993년)
 - 내각관방부장관 (2000년)
 - 자유민주당 간사장 (2003년)
 - 내각관방장관 (2005년)

나. 국회

1) 권능

국회는 헌법에서 ‘국권의 최고기관으로서, 국가의 유일의 입법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는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 등 국가 재정에 관해 의결을 시행하고, 조약의 체결을 승인하며, 내각총리대신을 지명하고 헌법의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국회의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 등에 있어 심의나 의사결정에 참가하고, 법률안이나 의결안 등의 의안을 발의하며, 내각에 대해 질문주의서를 제출하거나 국민으로부터의 청원의 소개 등을 행한다. 의원은 이러한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국고로부터 상당액의 세비를 받고 국회 임기 중 불체포특권, 의원에서 행한 연설, 토론 또는 의결에 대해 원외에서의 면책특권을 누릴 수 있다.

2) 2원제

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의원은 각각 독립하여 의사결정을 하여 양의원의 의사가 일치함으로써 국회의 의사가 성립된다. 다만 예산, 조약, 내각총리대신의 지명, 법률안의 의결에 대해서는 헌법에 의해 중의원의 우월이 인정되고 있다.

양원 비교

비교 항목	중의원	참의원
정원	480명	242명
임기	4년	6년
피선거권	만25세 이상	만 30세 이상
선거구	소선거구(300구) 300명 비례대표선출(블록 별 11구) 180명	선거구(도도부 현 단위47구) 146명 비례대표선출(전국단위)96명
해산	있음	없음

3) 소집과 회기

국회의 소집은 내각이 결정하여 소집초서의 공포에 의해 시행된다. 국회에는 상회, 임시회, 특별회의의 구별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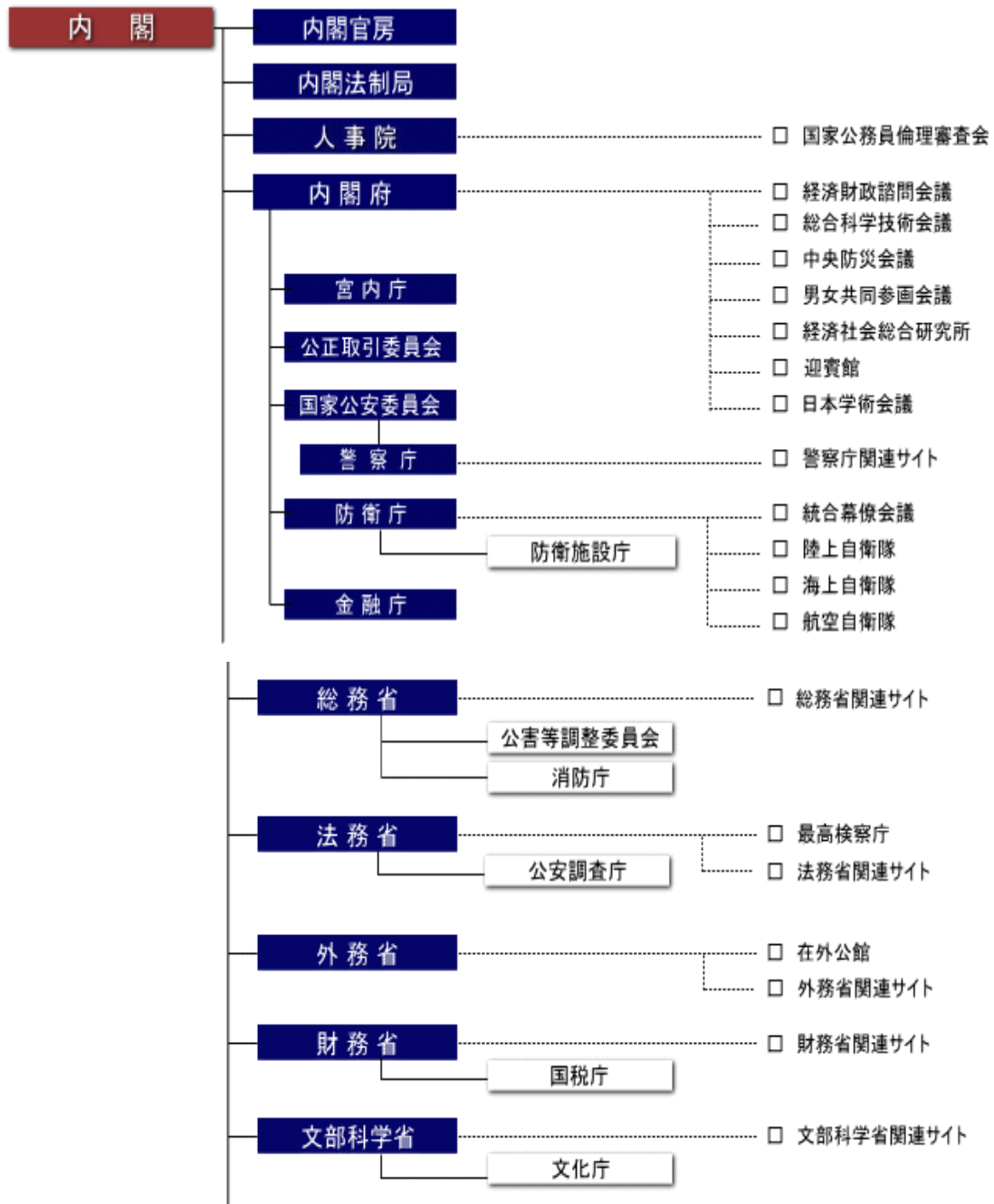
- 상회: 1년에 1회, 1월 중에 소집되어 다음 회기 년도의 국가의 총 예산이나 이를 시행 하는데 필요한 법률안 등을 심의한다. 상회의 기간은 150일이다.
- 임시회: 재해대책을 위한 보정예산이나 법률안 심의 등을 요구하는 경우 소집되나, 양원 중 한 의원의 총 의원의 1/4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중의원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나 참의원의원의 통상선거 후에는 내각은 임시회를 반드시 소집해야만 한다.
- 특별회: 중의원 해산에 의한 중의원의원 총 선거 후에 소집되는 국회로 특별회 소집과 동시에 내각이 총사퇴 하게 되므로 양원은 내각총리대신을 지명하게 된다. 임시회와 특별회의의 회기는 그 때마다 국회가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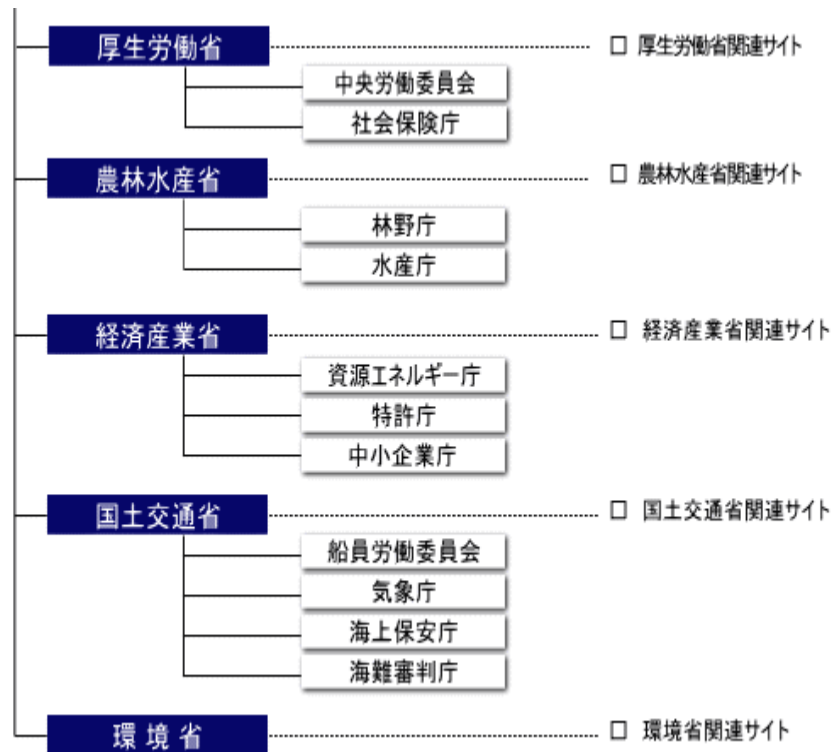
다. 내각

헌법 65조는 행정권은 내각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각은 그 수장인 내각총리대신 및 그 외의 국무대신으로 조직되며 행정권의 행사에 대하여 국회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내각총리 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에 의해 지명되며 국무대신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 다만 국무대신의 과반수는 국회의원 중에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각의 직무권한은 다음과 같다. 법률을 성실히 집행하고 국무를 總理함, 외교관계의 처리, 조약의 체결(다만 사전 또는 사후에 국회의 승인 필요),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官吏에 관한 사무의 관장, 예산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함, 정령의 제정, 형의 집행 감면 혹은 복권 등이다.

국가행정조직은 내각의 통괄 하에 내각부의 조직과 함께 성, 위원회 및 청으로 구성된다. 각성의 장은 대신이고, 위원회의 장은 위원장, 청의 장은 장관이 된다.

* 내각부 조직도





출처 : <http://www.kantei.go.jp>

라. 사법

헌법 76조에 따라 모든 사법권은 최고 재판소 및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는 하급 재판소에 귀속되며 특별 재판소는 설치가 금지되어 있다. 최고 재판소 판사는 수상의 지명으로 일 왕이 임명하며 탄핵 소추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면직되지 않는다.

일본의 재판소는 정치적 문제의 판단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나 개인의 기본권 보호에는 반대로 대단히 적극적인 편이다

1) 심급제도

일본은 3심 제도를 채택하여 1심 판결에 불복하는 자는 2심 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고 2심 재판소의 판결에도 불복하는 자는 3심 재판소에 상고할 수 있다.

2) 재판소의 배치

헌법은 최고재판소의 설치를 규정하되 하급재판소의 설치에 대해서는 법률에 맡기고 있다. 재판소 법은 이에 따라 하급 재판소로서 고등 재판소, 지방 재판소, 가정 재판소 및 간이 재판소의 4종류의 재판소를 설치하고 있다.

3. 주요 인사

- 아베 신조: 현 총리대신
-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대신, 전 자민당 총재
-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대신, 친한 인사
- 미야자와 기이치: 전 총리대신, 전 대장상

- 이시하라 신타로:
 - 도쿄도 지사로 임기 4년의 지사에 99년 당선되었으며 2003년 재 선출되어 현재 2기째 재임 중임. 전 환경청장관, 운수대신 등을 역임함

- 미타라이 후지오
 -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한국의 전경련에 해당)회장 겸 캐논 회장

- 도요타 소이치로: 토요타 자동차 회장, 일본 최대 제조업체 오너
- 와타나베 오사무: 일본무역진흥회(JETRO) 이사장
- 세토 유우조: 일한경제협회 회장, 아사히 맥주 회장
- 손 마사요시(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 스즈키 이치로
 - 미 프로야구팀 마리너스 타자 (미 프로야구 역대 시즌 최다 안타 기록, 2004 시즌, 262 안타 기록)

- 노모 히데오미: 일본인 야구 선수로서 메이저리그에 진출하여 활약한 투수
- 이자와 히데오: 프로 골퍼

- 나카타 히데토시
 -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 MF로 영국 프리미어 리그 볼튼 وان더러스 소속이었으나 2006년 독일 월드컵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선언함

- 마쓰이 히데키: 미 프로야구 양키스팀 타자, 2003년 2월 입단
- 도이 다카오: 우주비행사

4. 외교관계

가. 2006년 중점외교정책

일본 정부가 발표한 2006년의 중점 외교 정책은 아래와 같다.

1) 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

- 평화와 안전의 확보
 - 흔들림 없는 일미동맹의 유지.강화 및 국제협조추진
 - 영토문제 해결, 해양 권익의 확보
 - 핵, 납치문제를 포함한 대북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향한 노력

- 국민의 안전 확보
 - 쓰나미, 지진, 테러 등 대규모 긴급사태나 해적 등에 대한 대책 강화
 - 영사 서비스의 충실화
 - IC 여권의 도입
 - 외국인수용체제 정비
 - 외국인범죄억지를 위한 형사사법협력촉진
- 국가, 국민의 번영 증진
 - 경제안정보장 확보 (에너지 등)
 - 일본기업에 의한 해외전개의 적극적 지원
 - 일본의 경제발전에 유리한 환경 정비 (EPA/FTA 추진 등)

2) 자유롭고 풍부한 세계를 지향하는 외교

- 아시아에 있어 안정적 협력관계강화
 - 중국, 한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강화
 - 장래의 동아시아 공동체, 아시아에 있어 지역제휴 주도
 - 지역 안전보장 협력의 추진
- 세계의 빈곤 삭감과 성장 등에 대한 공헌
 - ODA의 전략적 확충
 - '인간의 안전보장' 추진
 - 경제성장을 통한 빈곤삭감 추진
- UN 기능강화를 위한 개혁추진
 - 안보리개혁 실현
 - 행정, 재정 개혁 추진
 - 국제기구 내 일본인 직원 수 증강
-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향한 조치
 - 안보리비상임이사국으로서 적극적 공헌
 - 국제평화협력에 대한 적극적 조치 (PKO, 선거감시 등)
 - 테러와의 전쟁, 군축, 불 확산 분야 주도
 - 중동, 아프리카 등에 있어 평화 정착 추진
- 글로벌 과제에 대한 대응
 - 지구규모 문제(환경, 노예 매매 등의 국제조직범죄, 질병, 자연재해 등)의 해결을 향한 폭넓은 외교노력
 - 국제적 룰 제작에 있어 주도적 공헌과 '법 지배' 강화
 - 다국간 스킴에 있어 적극적 공헌 (G8, WTO, OECD 등)

3) 세계에 발신하는 기동적 외교

- 전략적 정보발신과 대 시민 외교 강화
 - 정보발신능력의 근원적 강화에 의한 공격적 홍보 (인터넷 전략 등)

- 정책홍보의 적극적 전개
 - 사람이나 문화의 교류, 문화협력 추진 등
 - 정보수집. 분석 기능의 근원적 강화
 - 정보수집. 분석체제 강화 5 개년 계획 개시 (정보요원 강화, 정보활동 환경정비 등)
- 실시체제강화
 - 세계 주요국으로서 걸맞은 정원체제달성을 향한 노력(정보, 영사, ODA 등)
 - 외국에 있어 일본의 얼굴인 재외공관의 체제. 경비 강화, 근무환경 개선
 - IT에 의한 업무 효율화
 - ODA의 효율화와 적정한 실시 확보

나. 2007년 중점외교정책

일본 정부가 발표한 2007년의 중점 외교정책은 2006년의 중점 외교정책을 기본으로 이어가면서 발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 외교 기초 체력 강화

- 외교 실시 체제의 강화
- 일본의 국제 공헌 등을 담당하는 층의 확충(외부인재 육성 및 활용 포함)
- 정보수집, 분석기능의 근원적 강화

2) 국민의 안전 확보와 번영 촉진

- 일본의 평화와 안전의 확보
- 국민의 안전, 안심의 확보
- 일본 및 국민의 번영의 촉진
- 에너지의 안정공급확보

3) 아시아 외교의 강화와 바람직한 국제환경의 확보

- 아시아 외교의 적극적 추진
- 지역 외교 폭의 확대
- 일본 외교 심화에 의한 글로벌한 과제에 대응

4) 일본의 매력과 메시지의 적극 발신

- 전략적 정보 발신
- 문화외교의 적극 전개

다. 최근 한일관계

2002년 월드컵공동개최, 한일국민교류의 해, 한일공동미래프로젝트 실시, 최근의 일본내 한국 대중문화 붐(한류)도 있어 한일국민간 상호관심과 교류는 2004년 이후 대폭 증가 하였다. 나아가 2005년은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하여 한일우정의 해로 선포되어 여러 가지 기념교류행사가 개최되었다. 한국 정부도 일본문화 개방정책의 일환으로 제4차 대중문화 개방 시책을 발표하고 2004년 1월부터 영화, 레코드 및 게임소프트 판매를 전면 개방한 바 있다.

양국 수뇌간에도 2004년 7월 에는 고이즈미 총리가 제주도를 방문하여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12월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가고시마현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가고시마 정상 회담에서는 한일형사공조조약체결교섭의 조기 타결이나 철새보호 조약 체결교섭개시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일본 정부는 아이치 엑스포 기간에 맞추어 한국인에 대해 2005년 3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 기간한정으로 실시하고 있던 비자면제조치를 2006년 2월 28일 까지 잠정적으로 연장하기로 하였다. 그 후 이러한 조치 결과를 토대로 이번에는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사증면제 조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동 조치에 따라 2006년 3월 1일 이후 90일 이내의 단기체재를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기를 희망하는 한국인 (취직 또는 취업할 의도를 갖고 입국하는 자는 제외)에 대해서는 사증을 취득하지 않고 입국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호 무드의 이면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 동해의 호칭문제, 정부 인사에 의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종군위안부 보상 문제, 역사 인식의 문제 등 아직 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5. 주한주재국기관

- 주 대한민국 일본국 대사관: <http://www.kr.emb-japan.go.jp/>
- 주 부산 일본국 총 영사관: <http://www.busan.kr.emb-japan.go.jp/>
- 주 제주 일본국 총 영사관: <http://www.jeju.kr.emb-japan.go.jp/>
- 일본 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http://www.jpfr.or.kr/>
- 일본 국제관광진흥기구 서울사무소: <http://www.welcometojapan.or.kr/index.asp>
- 일본 무역진흥기구 서울센터: <http://www.jetro.go.jp/korea/>
- 서울 재팬 클럽 (주한 일본인 상공회의소): <http://www.sjchp.co.kr/>
- 서울 일본인 학교: <http://www.sjshp.or.kr/>
- 부산 일본인 학교: <http://www.pusanjc.com/school/>
- 부산 일본인회: <http://www.pusanjc.com/>
- 일본 지자체 국제화 협회 서울사무소: <http://www.clair.or.kr/>

6. 한국과의 주요이슈

일본은 우리나라와 독도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등 과거사 문제를 놓고 종종 미묘한 대립 관계를 보여오면서도 한편으로는 민간레벨의 협력은 긴밀하게 이루어져오는 등 양면성을 내포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교역측면에서는 대일무역역조문제가 적지 않은 걸림돌로 작용을 해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와의 교역규모 자체가 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부품, 소재 등의 대일 의존도도 덩달아 높아지는 현상에 기인하는 측면이 강하다.

최근의 한일관계를 요약하면 '99.7월부터 기존의 수입선다변화 제도 전면철폐와 더불어 1998년 김대중 대통령 방일을 계기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간다는데 기본적으로 합의한 이래 2004년을 전후로 하여 일본 대중문화 개방 확대 조치로 구체화 되어 오고 있다.

일본도 오부치 총리의 방한('99.3.20)시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 방지협정, 규격의 상호 인정 등 한/일 교류 확대를 적극 표명하고 있고, 나아가 양국간 교역을 자유화하기 위한 '한. 일 FTA(자유무역협정) 교섭이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2002년에는 세계인의 축구제전인 FIFA2002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양국간 우호협력 분위기를 한 차원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한편 2003년부터 NHK 위성방송으로 방영된 겨울연가가 붐을 일으키면서 2004년 이후는 한류가 일본 내에서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힘입어 한국 드라마가 일본 지상파 방송에서 방영되고 출연배우들도 일본을 속속 방문하면서 한류 붐에 불을 지핀 바 있다.

한일양국은 양국 국교정상화 이래 40년이 되는 2005년을 한일우정의 해로 정하고 관광, 문화, 이벤트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 프로젝트를 실시해 한일관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또한 일본정부는 이 같은 교류 분위기 확산을 위해 아이치 만박이 개최되는 기간 중에 비자를 일시 면제하고 2006년 3월 1일 기준, 한국인 관광객의 단기체제비자 면제 실시를 발표하였다.

한편, 2005년 들어 교과서문제, 독도문제 등 역사문제가 돌출하고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이어지는 등 우호협력 분위기가 상당부분 악화되어오고 있어 양국 정부 등 관계당국에서는 이 같은 국면의 타개를 위해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 FTA 교섭에 앞서 양국은 2000년 5월, 9월에 21세기 한일 경제관계 긴밀화를 위한 심포지움을 서울과 동경에서 교대로 개최하여 양국의 FTA(Free Trade Agreement) 추진에 관한 기본 입장을 JETRO 아시아 경제연구소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것이 한일양국 FTA의 출발이 되었다.
- 한일 FTA는 포괄경제협정(EPA)형태로 추진키로 양국이 합의
- 이에 앞서 한일간 FTA 준비회의 성격의 산학관 공동연구회의를 개최
 - 제 1차 회의를 2002.7. 9-10일 서울에서 개최 이후 03년 12월까지 7차에 걸쳐 한일 공동, 산학관 FTA 공동연구회 개최.
- 한일간 FTA 교섭 일지
 - 2003.10 양국 정상회담 시 한일 FTA 교섭 연내 개시기로 합의(2005년 중에 실질적으로 교섭을 종결하는 방향에서 합의)
 - 한일 FTA 제 1차 정부간 교섭 회의 개최
 - 2004. 2 한일 FTA 제 2차 정부간 교섭 회의 개최
 - 2004.11 한일 FTA 제 6차 정부간 교섭 회의 개최 (이후 중단상태)

나. 한류와 대일 마케팅

- 일본에서는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를 계기로 위성 TV(닛테레), 독립 케이블방송국,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한국의 드라마가 상영되면서 한류가 기반을 넓혀온 바 있고 이 같은 한류가 일본에서 붐을 이루고 사회현상으로까지 발전한 직접적인 계기는 NHK 에 의한 '겨울연가' 방송으로 이 시기를 전후로 하여 '韓流'가 일본어의 어휘로 등장 하게 됨

- 겨울연가는 NHK 가 2003 년 4 월 위성방송채널을 통해 처음 방영된 데 이어 2004 년 4 월부터는 지상파로 옮겨 방송을 하면서 사회적인 붐을 일으킴.
- 그 이전에도 가수 '보아'가 일찍부터 일본에 진출, 일반 대중 층에 한국문화의 전도사적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한류 붐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조용필, 김연자 등 가수, 스포츠 선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선구자들이 한국문화 전파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해왔음을 알 수 있음
- 이로 인해 일본 내에서는 한일 양국이 오랜 기간에 걸쳐 감정적 대립, 편견을 제거 하고 우호 친선에 기여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고 또한 한류는 민간 조사기관이 발표하는 각종 히트상품 랭킹, 앙케이트에서 상위 랭크되기에 이르렀음.
- 이 같은 일본 내 한류 붐으로 드라마, 영화, 음반의 대일 수출이 적지 않게 증가 해오 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임
- 문화상품 분야는 현재의 한류를 견인하는 분야로서 영화, TV 드라마, 음악 콘텐츠, 나아가서는 애니메이션, 만화 등의 분야로 확산되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이들 분야에 앞서 온라인 게임 분야에서 한국 소프트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한게임, 그라비티 등의 사례에서 충분히 입증되고 있음.
- 분야별로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영화와 관련하여 "한류 시네마 컬렉션"이 이케부쿠로 신문예좌에서 개최됨. 2006 년 1 월 14 일~27 일까지 총 28 편의 영화가 상영되어 많은 관심을 모음. 또한 "한류 시네마 페스티벌 2006"이 시네마트 롯벙기 극장에서 개최 되는 등 전국 29 개 극장에서 한국 영화가 상영 중(2006 년 5 월 기준)에 있으며 "한류 시네마 페스티벌 2005"에 이어서 한류의 인기를 유지해 가고 있음.
- CS 방송국(스카이 퍼펙트)과 지역 독립방송국의 한국드라마, 영화 및 연예관련 정보의 지속적인 발신으로 인해서 한류는 하나의 흐름이 아닌 문화로 정착되어 가고 있음. 물론, 디지털 방송, 방송통신융합에 의한 콘텐츠 수요의 증가가 한국 콘텐츠의 소비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고도 볼 수 있으나, 인기의 비결의 핵심은 우수한 콘텐츠 있다는 견해가 우세함.

8월 기준 CS 방송(스카이 퍼펙트) 한국 드라마 편성표

채널 명	드라마 명				
위성극장	우리들의 천국	사랑의 군상	내 이름은 김삼순	꼭지	남자 셋 여자 셋
	Loving You	그대 그리고 나	위기의 남자	천년의 사랑	허준
KN TV	보디가드	눈꽃	그 여자의 집	왕의 여자	파란만장 미스 김
	5분 드라마	서동요	하늘이시여	종이학	패션 70's
	사랑은 누구도 멈출 수 없어	다이아몬드 같은 눈물	결혼합시다	돌아온 싱글	베스트 극장

	안녕!프란체스카	뉴 논스톱	사랑하고 싶다	여왕의 조건	진실을 위해
	소문난 그녀	여인천하	순풍 산부인과	신데렐라	보고 또 보고
흥 드라마 채널	너무 사랑해	맛있는 프로포즈	순수	눈사람	팝콘
	사랑한다고 말해줘	동기간	태양 속으로	로즈마리	아스팔트의 사나이
LaLa TV	위풍당당한 그녀	나에게게의 초대장	승부사	슬픈 연가	겨울연가
So-net 채널 749	진실	불새	부활	호텔리어	괘걸 춘향
KBS WORLD	애정의 조건	황금사과	굿 바이 슬로	꽃보다 아름다워	해신
	내일의 사랑	슬픔이여 안녕	고향역	바보 같은 사랑	야망의 전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녀는 짱	서울 1945	장미빛 인생	
	소문난 칠 공주	광기	드라마 시티	부부 클리닉	
Ch. 792 Mnet	Break	신입사원	궁 Love in Palace	레인보우 로망스	
	non stop	신돈	세입 클로버	귀여운 여자	
V☆파라	낭랑18세	영웅신화			
후지TV721	천국의 나무				
미스터리 채널	백야				

자료원 : 한국&아시아 TV 가이드, CS 방송 가이드 북 등 참조, KOTRA 도쿄 작성

- 드라마와 영화의 방영에 의해 알려진 한국연예인의 팬 미팅과 공연이 잇따르고 있으며, 여름 휴가철을 겨냥한 한국영화의 개봉도 잇따르고 있음. 특히, 영화는 한류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 콘텐츠로 과거의 러브스토리 일변도에서 다양한 장르의 영화와 다양한 계층을 영화가 개봉되고 있음

8월 기준 일본 내 한국영화 개봉 현황

영화 제목	감독	주연배우	개봉일자
슈퍼스타 감사용	김종현	이범수, 윤진서	9/9~
괴물	봉준호	송강호, 박해일	9/2~
활	김기덕	한여름, 전성환	늦여름
청춘만화	이한	권상우, 김하늘	8/19~
안녕, 형아	임태형	박지빈, 배종옥	7/15~
파랑주의보	전윤수	차태현, 송혜교	8/26~
가발	원신연	채민서, 유선	8/5~
키다리 아저씨	공정식	하지원, 연정훈	공개 중
첫 사랑 사수 퀘기 대회	오종록	차태현, 손예진	~7/7
봄날의 꿈을 좋아하세요?	용이	배두나, 김남진	개봉 중
데이지	앤드류 라우	전지현, 정우성	~8/11
빈집	김기덕	이승연, 재희	~8/4
한류시네마 페스티벌 2006 프리미어			개봉 중
댄서의 순정	박영훈	박건형, 문근형	~8/11
주먹이 운다	류승완	최민수, 류승범	공개 중

자료원 : 한류 피아 여름호, 각 영화사 홈페이지 참조 KOTRA도쿄 작성

II . 경제

7. 경제정책

가. 기본 방향

- 일본 정부는 2001 년 이후 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개혁 없이 성장 없다(2001 년 4 월 26 일 고이즈미 수상 취임 발언)’,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에’, ‘지방이 할 수 있는 일은 지방에’ 라는 기본방침 아래 우체국 민영화의 실시함. 주요 정책으로 정책금융개혁, 총 인건비 개혁, 자산·채무 개혁, 시장화 테스트에 의한 민간 부문으로의 업무 개방·규제개혁 등이 있음. 이들 개혁을 통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실현함과 동시에 규제·금융·세제·세출 등의 효율화를 추진하는 등 각 분야에 걸쳐 구조개혁을 최우선시하면서 경기회복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구조개혁 추진에 중점을 둠.
- 2001 년 고이즈미 수상 이후 일본의 경제정책은 전 모리(森)정권이 작성한 「긴급 경제 대책」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부실채권정리, 증권세제개정, 은행보유주식제한, 시장경제활성화, 도시재생, 재정재건에 집중해 옴. 이중 핵심사항은 부실채권처리 및 주식시장매입기구 설치, 세출억제 등을 통한 재정균형 달성이었음.
- 2006 년도에 들어 주요은행의 부실채권이 거의 정리되면서 기업부문의 3 개의 과잉문제(고용, 설비, 채무)가 해소, 경기가 회복국면에 들어섰다는 인식과 함께 2006.6 월에 발표된 “경제 성장 대전략(경제 산업성)”에서는 구조 개혁형의 경기회복이 실현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새로운 “일본형 경제성장모델”의 필요함을 강조함.
 - 일본형 경제성장 모델에서는 “생산성 향상”, “기술혁신”, “아시아 등 해외에서의ダイナ미즘”의 3 가지를 축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경제성장을 위한 국제 경쟁력 강화, 생산성 향상, 지역, 중소기업의 활성화, 개혁의 단행에 의한 신수요의 창출, 생산성 향상 형의 제도 인프라 구축을 강조하고 있음.

나. 경제정책의 주요내용

- 2001 년 이후 일본 정권의 주요 경제정책의 핵심 사항은 부실채권 처리 및 주식 매입 기구 설치, 그리고 세출 억제 등을 통한 균형 재정 달성이었음.
- 부실채권처리
 - 목적: 금융기관의 부실채권과 기업의 과잉채무를 동시에 해소
 - 내용: 도산 우려처 이하 채권을 기존 부실채권(금융청 조사, 12 조 7 천억엔)은 2 년 이내에 처리하고, 신규 발생 채권은 3 년 이내에 처리, 실적을 매기 공표하고 금융청이 진척 상황을 점검.
 - 倒産憂慮處以下: 도산 우려처와 실질 도산처, 도산처를 포함하는 용어로 은행은 채무자를 도산처, 실질 도산처, 도산 우려처, 요 주의처, 정상처로 구분
 - 수단: 정리회수 기구·민간 투자가 등에 매각, 법적 정리(회사 갱생법, 민사 재생법) 채권 포기를 대상으로 하되 매각을 최우선시
 - 기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기업재건 동시 추진

- 주식매입기구 설치
 - 목적: 금융기관의 기능 회복 및 주식시장 활성화
 - 대상: 처분대상 주식액은 자기자본기준(미 확정)시 11 조엔 (은행자본 총액 32 조엔, 은행 주식 보유 총액 43 조엔)
 - 내용: 거품경제 해소책의 일환으로 허용한 상호교차주식보유에 의해 발생한 11 조 엔에 달하는 은행의 과잉보유주식을 주식매입기구를 설치하여 시장 밖에서 처리
 - 방법: 동 기구가 시가로 매입하여 상장 투신과 투자 신탁, 確定據出型 연금 등을 활용하여 처분하며, 매입자금은 예금보험기구 및 정부보증을 통한 공적 지원에 의해 조성 추진

- 재정적자 축소
 - 목적: 국채발행 억제 등으로 5 년 이내 Primary Balance (국채비제외세출-국채발행 제외 세수·세외수입)의 균형 달성 등을 통한 재정개선
 - 내용: 2002 년도부터 세입부문의 국채발행을 연간 30 조엔 이하 등으로 억제하고 공공사업비 및 지방교부세·교부금 등의 세출 삭감을 통해 5 년 이내 Primary Balance 의 균형을 달성하고, 이후 재정흑자를 통한 재정적자 축소
 - 정부/지자체의 부채 잔액 : 666 조엔(2001 년도 기준)[명목 GDP(500 조엔)의 133%]
 - 방법: 건설국채의 발행 억제 등을 통해 국채발행액을 30 조엔 이하로 억제 지방교부금 배분기준 개선과 교부세의 지방채 변제 금지조치 등을 통한 세출 삭감

다. 경제정책 평가

- 부실채권처리구상
 - 긍정적 평가: 현재 경제상황을 밸런스시트(balance sheet) 불황으로 규정하고 이의 타개를 위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처리함으로써 산업계의 과잉채무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인식에 긍정적 평가.
 - 부정적 평가: 주된 대상이 대형 제너콘(general constructor, 종합건설회사)이 제외된 중소기업인 점으로 인해 개혁자연에 대한 의문과 자구노력 회피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초래해 개혁을 후퇴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부정적 평가
 - 상위 대형은행 관련 도산 우려처 수는 3천개 사 전후로 이중 절반이 중소기업임
 - 미포함 된 요주의 채권은 70 조 엔에 달하며 이들 채권의 부실화에 대한 대책 미비
 - 실업자 급증에 대한 고용 대책 시행으로 대규모 재정지출 발생

- 주식매입기구 설치 구상
 - 긍정적 평가: 안정된 예금을 취급하는 은행이 리스크 자산인 주식의 과잉보유를 시장 밖에서 매각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재무구조를 건전화하고 주식시장에의 영향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
 - 부정적 평가: 개혁의 초점을 주식시장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산업구조 전환에 의한 기업체질강화와 개인투자자의 참여 촉진을 위한 세제개선에 두지 않고 시장원리에 반하는 기구를 설립하여 수급조정으로 문제해결에 치중
 - 기구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미수립: 방안수립일정 연말로 연기(총리 등 발언)
 - 60년대 유사기구 설립해 성공하지 못함: 日本共同證券(64년), 會社組合(65년)

○ 재정재건구상

- 긍정적 평가: 세입과 세출부문의 균형을 통해 균형예산을 달성하고, 이후 재정흑자 체제 확립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누적된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재정의 건전한 운영 기틀 마련
- 부정적 평가: 국채발행과 공공사업비 축소 등으로 인해 침체상태에 있는 경기 회복을 지연시켜 세수감소를 유발하고 디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는 마이너스 효과 발생 가능 관련 경제주체의 강력한 반발 예상
 - 추진기간에 대한 신중한 접근필요: 현재 명목 GDP 대비 재정 적자율 133%의 증가세를 감소세로 전환하는 데 약 7년 소요
 - 소비세 인상: 장기적으로는 인상 불가피(인상 검토시기는 대략 2007년 전후)

라. 고이즈미 정권의 2006년도 경제운영 기본 방침

-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실현하고 민간 수요 주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며 디플레이션에서 탈피하기 위해 정부와 일본은행은 상호 협력해 정책 노력을 강화할 예정.
- 경제전망 달성을 위한 선결과제
 - 규제분야: 2006년도부터 본격적인 ‘시장화 테스트’가 도입되어, ‘공공서비스 효율화(시장화 테스트) 법안’ (가칭)을 차기 통상국회에 제출하는 등 규제개혁과 민간 개방화를 추진중임.
 - 금융분야: 금융·투자 서비스에 관한 규제로서 ‘투자 서비스법’ (가칭)에 대한 조기 법제화에 착수하는 등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고,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얻고, 지역 경제에도 공헌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입국’을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착실하게 실시. 소규모 금융거래 투자자의 권리를 강화한 금융거래법이 2006년 5월 통과됨.
 - 세제분야: 정률감세, 정책감세 등에 대한 소요 조치 마련
 - 세출분야: 세출개혁 노선 유지, 강화
 - 삼위일체개혁: 4조 엔을 웃도는 국고보조부담금 개혁, 3조 엔 규모의 세원이양, 지방교부세 개혁을 착실하게 실현
 - 삼위일체 개혁: 재정재건을 위한 세출삭감의 일환.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분배하는 지방특별교부금 및 지방교부세를 삭감함과 동시에 일부 세원을 지방세로 이전해 지방정부의 세입을 보전하는 방식
 - 사회보장제도 개혁: 미래에 지속 가능한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보장의 일체적 재검토를 목표로 2006년도에는 의료제도개혁 대강 등에 기초해 의료, 간호 기타분야의 제도개혁 등에 착수

마. 경제정책 시행성과(중간점검)

- 부실채권처리 등의 구조개혁 추진을 통해 부실채권비율은 2006년 5월말 기준 2.0%대로(주요 시중은행 기준)로 2002년에 비해 반으로 줄었고 은행의 수익률도 호전 단계

- 경제성장률 (GDP 성장률, 실질기준)은 2003, 2004 년도까지 2%내외의 성장률을 달성. 2005년(2006년 5월 내각부 발표)에는 3.0% 수준의 플러스 성장률 달성함.
- 실업률은 2006년 4월 기준 4.1%로 2001년도(5.2%)와 비교해 낮아졌음

바. 일본은행 양적 완화 정책의 종료

- 일본은행은 2006년 3월 9일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에서 2001년도에 도입된 양적 완화정책의 해지를 발표함.
 - 2001년 3월 기준으로 일본은행은 제로 금리 하에서 민간에 대한 유동성 공급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양적 완화 정책을 도입함.
 - 이와 같은 금융완화정책은 금융시장의 안정에는 기여하여 왔으나 금융기관 간 콜 거래 규모가 크게 위축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였으며, 시중 자금공급을 통한 실물 경제에의 파급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 이에 따라 양적 완화 정책을 종료하고 금리조절을 통한 통화정책으로 전환함. 32 조엔 수준의 당좌예금 목표잔고, 장기국채의 구입액을 점진적으로 감액해 나가기로 결정함.
- 일본은행은 2006년 7월 14일 경제정책결정회의 후 단기금리를 거의 0%로 억제하고 있던 제로금리정책을 해제할 것을 결정함. 정책위원의 다수결로 결정(찬성 6, 반대 3) 하였으며 이로서 단기금리 유도목표가 0.25%까지 인상, 공정보합도 현행의 0.1%에서 0.4%로 상승함. 이에 따라 시중은행이 각각 0.1-0.25% 수준(2006년 7월 말 시점)으로 소폭의 예금금리를 상승시킴.
- 향후 일본은행은 낮은 금리수준을 유지하면서 금리상승의 페이스를 결정해나갈 전망이다. 특히, 일본은행은 2000년 8월에도 제로금리 정책을 해지하였으나 일, 미의 주가가 하락하고 디플레이가 진행되어 단 7개월 만에 제로금리로 돌아간 경위가 있어 향후 금리 인상은 신중하게 소폭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

사. 일본 경제의 향후 과제

- 일본내각부는 2006.7월 향후 일본이 지향할 경제방향으로 “새로운 도전의 10년으로”란 주제로 일본 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함.
 - 일본 경제가 대처해야 할 3가지 우선과제로 1. 성장력, 경쟁력의 강화, 2. 재정부분의 건전화, 3. 안전, 안심으로 유연, 다양한 사회의 실현, 을 설정함.
 - 경제성장전략을 통한 일본 경쟁력에 대한 강화 방안으로 1. 국제경쟁력의 강화, 2. 생산성의 향상(IT와 서비스 산업의 혁신), 3. 지역, 중소기업의 활성화(지역 활성화 전략), 4. 개혁의 단행에 의한 새로운 수요의 창출, 5. 생산성 향상의 제도와 인프라 구축이 있음.
 - 민간의 힘을 이끌어 제도와 룰의 개혁을 중시하여, 1. 규제개혁, 2. 시장활성화 신뢰의 유지와 향상, 3. 공공기관을 지탱하는 시스템의 개혁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참고자료 :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 및 발간자료, 일본경제신문, 일본은행” 금융경제월보”, 경제 재정백서, 기타 무역관 자료 종합.

8.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가.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1) 최근 동향

- 일본경제는 '02년 1월부터 상승국면 진입 이래 오랜 불황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회복 단계에 접어들었음.
- 대규모 재정투자 없이 민간수요 주도로 견실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이전의 경기 회복국면과 궤를 달리하고 있음
- 기업들의 꾸준한 구조조정 효과로 수익구조 개선, 기술개발 기반을 강화함. 디지털 경기로 대변되는 최근의 경기회복세는 일본 기업의 첨단기술 개발력에 크게 의존
- 2003년 중반 이후 수출, 설비투자, 제조업,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 지속
2004년 2/4분기 이후 수출과 생산이 부진(IT 재고누적 등에 기인)하여 GDP 성장률이 2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경기가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조정국면을 맴돌았으나 세계적인 재고조정이 고비를 넘기고 내수가 호조를 보이면서 2005년 8월을 기점으로 조정국면에서 탈피, 완만한 회복세로 전환
- 일본 내각부가 2006년 8월 11일 발표한 국내 총 생산(GDP) 속보에 의하면 개인소비와 민간설비투자의 내수를 두 축으로 일본경제는 점진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엔고(달러 대비)와 고유가의 외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내수의 착실한 성장이 경기회복을 주도하고 있음.
- 민간설비투자는 2006년 4-6월 전년 동기비 9.8% 증가하는 등 반도체 제조장치, 컴퓨터, 전력용 설비를 중심으로 투자의 저변이 넓어지고 있음. 기업부문의 실적 호조가 가계 부문으로 파급되어 개인의 소비지출도 점차 증가, GDP의 6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가 2006년도 1-3월간 전년 동기비 2.2%, 4-6월 1.9%의 성장을 보임. 2006년도 4-6월간 GDP 실질 성장률이 전년 동기비 2.0%를 기록하여 2002년도 이후 4년 연속 플러스 성장세 유지.
- 이러한 일본기업의 실적 호조에 따라 일본 제조업계의 2006년도 여름 보너스 지급액이 4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6업종 중에 3/4인 12업종이 작년 지급액 보다 증액 지급. 특히, 소재 가격의 상승으로 업적이 상승한 비철/금속 업종의 지급액이 작년 대비 8.2% 증가의 최고치를 보였음
- 수출은 세계경제의 수요확대 기조를 배경으로 철강, 전자, 일반산업기계,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2006년 상반기 소폭 증가하였으나, 고유가로 인한 수입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무역 서비스수지 흑자폭은 감소 추세
- 일본은행은 2006년도부터 2007년도에 걸쳐 내수와 외수, 기업과 가계가 균형적으로 점진적인 확대성장을 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4년 이상 계속된 꾸준한 경제성장의 영향으로 올해부터 성숙 단계에 접어들어 2006년도는 2%이상, 2007년도는 2%정도 잠재 성장을 수준으로 점점 감속할 것이라 전망함.

- 일본은행이 발표한 8월 금융경제월보에서도 “일본의 경기가 완만하게 확대하고 있다”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경기가 완만한 확대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함.

실질 GDP 등 주요 경제지표 추이

(단위: 전년 동기비, %)

구분	2003	2004	2005	2006.1-3	2006.4-6
실질GDP성장률	2.3	1.7	3.2	3.1	2.0
개인소비	0.8	1.6	2.3	2.2	1.9
민간설비투자	7.0	5.6	7.5	4.6	9.8
주택건설투자	-0.0	1.7	-0.2	3.1	1.6
공공 투자	-9.5	-12.4	-1.4	-5.5	-7.5
수출증가율	9.7	11.4	9.1	13.7	10.2
수입증가율	3.2	8.7	6.5	8.0	7.2

자료원 : 일본 내각부 2006년 4-6월 1차 속보치(실수치, 전년동기비) 반영(2006.8.11일 발표)
주: 회계연도(일본은 4.1-3.31) 기준

- 한편 실업률은 2004년 3월에 4%대로 하락한 후 2006년 2월 기준으로 최저치인 4.1%로 하락. 물가는 기업물가가 고유가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 소비자 물가는 기초 상으로 내림세가 이어져 왔으나 2005년 11월 이후 소비자 물가가 플러스로 전환하여 2006년도 이후 -0.1%와 0.2% 사이에서 변동하고 있음.

최근의 실업률, 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물가 전년비 대비,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6.1	2006.4	2006.7
실업률	5.1	4.6	4.4	4.5	4.1	4.1
기업물가	△0.5	1.5	2.1	2.7	2.5	3.4
소비자물가	△0.2	△0.2	0.1	△0.1	△0.1	0.2

자료원 : 총무성, 일본은행(2006.8월 기준)

주: 회계연도(일본은 4.1-3.31) 기준

2) 향후 전망

- 2006년 일본 경제는 기업실적 호조를 배경으로 한 설비투자 증가, 소비회복을 중심으로 경기의 회복기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전망
- 경기의 자율회복을 방해해왔던 금융 불안과 수요가 잠재적인 공급여력을 밀도는 수급 갭(GAP)이 축소되면서 경기의 자율적인 회복이 가능해졌음
- 기업의 재무상황이 개선되고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서 기업들이 잇따라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는 가운데 설비투자가 경기 전반을 끌어올릴 전망

- 개인소비는 고용과 임금환경의 개선, 주가상승 등 자산가격 회복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소비계층이 지출을 확대하면서 플러스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소비자 물가가 상승세로 전환함에 따라 2006년 내에 디플레이션 탈피 전망 우세
- 고용, 임금환경의 개선이 주가상승으로 인한 자산효과와 더불어 소비확대에 본격적으로 기여할 경우 7년 넘게 이어져온 일본경제의 디플레이션 탈출이 앞당겨질 전망.
- 엔화는 하반기 이후 금리인상에 발맞춰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음. 위엔화의 추가 절상 가능성도 엔화 강세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
- 일본 총합 연구소가 발표한 2006년 5월 일본 경제전망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수출 증가 / 설비투자증가 → 수익증가 → 고용/임금 증가 → 소비증가 → 수익증가 → 경기 회복의 호 순환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

3) 소비 회복, 외부요인이 성장 좌우

- 경기 확대 요인에도 불구하고 일본경제 성장률은 2005년도에 비해 다소 둔화될 전망
- 2006년부터 적용되는 정률감세(定率減稅)의 점진적 폐지와 인구감소,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 부담 증대가 소비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 순조로운 소비 확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임금 상승이 전제조건이 될 전망.
- 기업 실적 호조가 유지될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등 고정비의 삭감에 따른 수익 상승 효과가 점차 체감되기 시작하면서 고유가를 동반한 수익 압박이 해외기업과의 경쟁격화 영향으로 표면화될 우려가 있음.
- 수출은 확대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미국 경기의 실속이 예상되면서 하반기부터 둔화가 예상. 원유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한편, 세계적인 경상수지 불균형이 개선될 여지가 적어 통화의 강약을 동반한 세계 경제의 불투명감 확산
-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할 때 2006년 일본경제는 디플레이션 기조에서 벗어나 꾸준한 경기확대가 이어질 전망이지만 세계경제의 감속 우려와 본격적인 경기 회복에 따른 금리 인상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성장 속도는 다소 완화될 전망

주요 민간연구기관의 GDP성장률 전망

(단위: %)

구 분	2006		2007	
	실질	명목	실질	명목
후지생명보험	3.1	3.0	2.7	3.1
노무라증권금융경제연구소	3.1	2.6	2.6	2.8
골드만삭스 증권	3.0	2.7	2.6	3.3
메이지야스다생명	2.8	2.2	2.6	3.0
농림중금총합연구소	2.8	2.2	1.9	2.2

BNP파리바증권	2.7	2.3	1.8	2.2
다이이찌생명경제연구소	2.5	2.5	2.0	2.6
미쯔비시총합연구소	2.5	2.3	2.1	2.5
닛코시티그룹증권	2.5	1.9	2.6	3.0
미즈호총합연구소	2.3	2.4	1.5	2.0
다이와총연	2.3	1.5	2.4	2.5
일본총합연구소	2.3	1.8	2.5	2.7
일본경제연구센터	2.3	1.1	1.4	1.1
미츠비시UFJ증권	2.1	1.4	1.0	1.1
닛세이기초연구소	2.0	1.8	2.4	2.8
일본정부	2.0	1.9	-	-
15개사 평균(정부치제외)	2.6	2.1	2.1	2.5

자료원: 일본경제신문(2006.5.25), 일본 정부 2006년도 경제전망 발표자료(2006년8월 기준, 최신치)

나. 일본경제 주요 현안 및 이슈점검

1) 양적 완화 정책의 종료 및 금리 인상

- 일본은행은 2006년 3월 9일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에서 2001년도에 도입된 양적 완화정책의 해지를 발표함.
 - 2001년 3월에 일본은행은 제로금리 하에서 민간에 대한 유동성 공급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양적 완화 정책을 도입함.
 - 이와 같은 금융완화정책은 금융시장의 안정에는 기여하여 왔으나 금융기관간 콜 거래 규모가 크게 위축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였으며, 시중 자금공급을 통한 실물 경제에의 파급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 이에 따라 양적 완화 정책을 종료하여 32조엔 수준의 당좌예금 목표잔고를 점진적으로 2001년 이전의 6조엔 수준으로 낮추고 장기국채 월 1조 2000억 엔을 당분간 유치, 점진적으로 감액해 나가기로 결정함.
- 양적 완화 정책의 종료와 더불어 일본은행은 7월 14일 경제정책결정회의 후 단기 금기를 거의 0%로 억제하고 있던 제로금리 정책을 해제할 것을 결정함. 정책위원의 다수결로 결정(찬성 6, 반대 3)하였으며 이로서 단기금리 유도목표가 0.25%까지 인상, 공정보합도 현행의 0.1%에서 0.4%로 상승함. 이에 따라 시중은행이 각각 0.1-0.25% 수준(2006년 7월 말 시점)으로 소폭의 예금금리를 상승시킴.
- 일본은행은 금리를 목표로 하는 통화정책으로 회기하게 되며 양적 금융완화정책의 조기해제는 일본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대한 자신감의 반영이기도 함.
 - 최근 일본 경제의 변화
 - 민간설비투자: 전년도비 6.6% 증가(2005년도)
 - 주식시가총액: 2003년 평균 주가총액(366.47조 엔의)의 1.4배로 증가한 504.59조 엔(2006.7월 기준)
 - GDP 디플레이터: 정부의 06년도 예상치는 0.1%로 9년만에 플러스 수치

- 향후 일본은행은 낮은 금리수준을 유지하면서 금리상승의 페이스를 결정해나갈 전망이다. 특히, 일본은행은 2000년 8월에도 제로금리 정책을 해지하였으나 일, 미의 주가가 하락하고 디플레가 진행되어 단 7개월만에 제로금리로 돌아간 경위가 있어 향후 금리 인상은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

2) 일본 회사법 개정

- 일본은 향후 국내외 기업의 인수합병(M&A) 원활화, 세제 우대 촉진, 외국인 생활환경 정비 등을 목표로 2006년 5월부터 일본의 '新회사법'을 실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전기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새로운 회사법은 최저자본금 제도 철폐, 기업의 정관자치 범위 확대, 기업재편 촉진 등을 주 내용으로 채택. 규제를 완화를 통한 기업 자치를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주요 변화 내용으로는
 - 회사설립의 용이성
 - 주식회사 1,000만엔, 유한회사 300만엔의 최저자본금 제도가 철폐되고 유사상호 규제 및 발기설립의 경우 관련 금융기관에 의한 보관증명제도가 폐지되어 회사설립 등기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됨
 - 일본에 지점을 개설할 때 과거에는 대표자 전원이 일본 거주 요건을 충족시켜야 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최소 1명이 해당요건을 충족시키면 지점 개설이 가능
 - 주식회사 기관설계의 유연화
 - 유한회사, 주식회사 제도가 유한회사가 갖는 유연성을 겸비한 주식회사 제도로 통합
 - 기관 설계 시 주식 양도 제한 회사일 경우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도 이사 1명으로 요건을 충족
 - 새로운 형태의 회사유형 창설
 - 미국의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영국의 LLP(Limited Liability Partnership)를 모델로 하는 합동회사(일본판 LLC)가 신설됨에 따라 유한책임의 출자자가 임원의 권한 및 이익배분을 협의를 통해 결정 가능 → 인재집약형 공동 사업 및 산업협력에 의한 기업활동 촉진 기대
 - 합병의 유연화
 - 존속회사의 주식으로만 교부가 가능한 현행 합병 대가에 대해 현금 또는 존속회사 모기업의 주식을 대용할 수 있는 '현금합병'과 '삼각합병'을 인정 → 무리한 자금 조달 없이도 외국기업에 의한 일본기업의 합병이 가능(적대적 M&A의 급증을 고려해 1년간 유예방침. 2007년부터 시행 예정)

9. 주요 산업 동향

가. 정보서비스

일본의 정보서비스 산업은 기업을 중심으로 한 꾸준한 정보화 투자 수요로 시장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기업간 전자 상거래(EC)시스템을 구축해 조달 및 판매비용을 절감하거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내 정보시스템의 재 구축을 통해 업무효율을 개선 하는 등의 IT 관련 수요가 견실하다. 2006년3월 기준 과거 1년간 인터넷을 이용한 인구는 총8,529만 명에 달하여 전년비7.3% 증가하였으며 인터넷 인구 보급률도 전년대비4.5% 포인트 증가한 66.8%에 이르렀다.

정보서비스 업계의 연간 매출총액은 14조 엔을 초과하면서 95년 이후 최고치를 매년 경신하고 있으며 시장구조의 변화도 현저해지고 있다. 본래 정보서비스회사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이나 프로그램의 작성, 네트워크의 구축, 수탁정보, 계산처리 서비스, IT컨설팅에 주력해 왔다. 시장이 성숙과 더불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신규 안건보다는 아웃 소싱 등 고객기업의 시스템 개발 및 운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성장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시스템이 비대해지면서 기업이 시스템 운용, 유지 경비를 억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200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견실한 정보시스템 투자가 예상되고 있어 회사의 수익구조는 지속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2006년 상반기 시점에서 수주잔액이 전년동기비 플러스가 되어 있는 사업자가 많아, 2005년도에 이어 개발안건 수주의 증가가 예상된다.

이처럼 수요회복의 움직임이 현저한 정보서비스사업이지만 한편으로 산업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여러 요인들이 출현하고 있다. 1. 업무기능모듈(서비스)를 조합 함으로써 시스템 전체를 유연하게 구축하는 SOA(Service Oriented Architecture)에 기반한 시스템 구축 방법의 변화, 2. 소프트웨어기능을 인터넷 경유로 제공하는 SaaS(Software as a service)등 기술의 변화, 3. 위탁개발 소프트웨어의 자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기술자확보의 면에 있어서도 중국, 인도의 IT벤더에 시스템 개발을 위탁하는 오프쇼어 개발 또한 급속도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시스템 개발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높은 기술수준을 이용해 새로운 시스템을 위탁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NEC, 후지쯔, 히타치 제작소 등 대형 벤더 3사의 발주 총액은 2005년 회계연도 기준(2005.4.1-2006.3.31) 30% 이상 신장, 500억 엔을 돌파하였다.

경제 산업성이 발표한 IT관련 전자부품, 디바이스의 생산지수는 2006년에 들어와 소폭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이는 지난 2월 휴대음악 플레이어 등에 사용하는 플래쉬 메모리 가격의 하락을 반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분야의 수요자체의 수요는 여전히 견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유저로부터의 가격인하 압력이 거세 단가하락 기조가 지속되면서 기업별로 매출 증가에 의한 이익확보 보다는 생산, 시스템 구축의 효율화에 주력하고 있다.

나. 철강

일본의 2006년도의 보통철강재수요는 대체적으로 2005년도와 큰 변화가 없으며 계속해서 꾸준한 수요를 보이고 있다. 건설용 공공투자의 삭감으로 토목용은 감소를 보이고 있지만 비 주택 수요를 중심으로 건축용은 증가추세이며 전체적으로는 전년도비 약간 감소한(-0.9%)에 그칠 전망이다. 제조업용으로는 건설기계와 공작기계가 순조로운 산업기계용, 풀가동하는 조선용에 견인되어 확대기조가 계속될 전망이다. 자동차용에 관해서는 세계적인 일본차 확대 수요는 지속되고 있지만 현지생산화, 원유가 상승을 배경으로 판매차종의 소형화가 진전되고 있으므로 강재수요로는 전년도 수요와 비슷할 전망이다. 또한 특수철강재수요에 대해서는 대부분을 제조용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철강재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외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메이커에 있어서도 특수철강의 현지조달은 어려워 당분간 순조로운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철강수요개요

	단위(백만 톤)	2004년도(실적)	2005년도(실적)	2006년도(예상)
일본 국내 내수	조강	80.5	83.6	83.8
	보통철강재	62.5	64.0	64.5
수출(전세계)	조강	37.6	34.6	36.2
수입(전세계)	조강	5.2	5.5	5.2
생산	조강	112.9	112.7	114.7
국내용 재고	보통재 철강	5.2	5.3	5.1

자료원 : 2006년 미즈호 코퍼레이트 은행 예측

한편, 2004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중국제 강판류 수입은 중국제품에 대한 품질문제가 제기되면서 과열양상이 완화되고 있지만 한편에서 아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조강의 경우 2006년 들어서도 중국의 생산확대가 지속될 전망이지만 일본의 주요 고로 회사들은 범용 품 감산에 따른 잉여 능력을 견실한 수요를 보이는 고급품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강 생산량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범용 품 분야에서도 중국제와 일본제는 품질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 감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일본과 한국의 주요 철강 회사들의 감산추세와 대조적으로 중국의 생산확대로 인해 범용품을 중심으로 수출가격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일본 국내에서 제조업의 고급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해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지는 않고 있다.

신일본제철 등 철강대기업의 2006년 3월의 경상이익은 주요 4개사 모두 두 자리 수 증가로 과거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범용철강의 가격하락에 따른 세계주요기업이 고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고급철재에 강한 일본기업의 강점이 드러난 결과이다. 신일본제철의 경상이익은 5,474억 엔으로 전년도대비 47%증가하였다. 원재료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급품 수요가 견실하게 지속되면서 코스트 증가분만큼을 판매가격에 전가할 수 있었던 것이 원인으로 당분간 고급품 증산이 범용품 감산에 따른 영향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철강 주요사의 매출실적

(단위: 억엔(괄호 안은 전년동기비 상승률%))

회사명		2006년3월 결산	2007년3월 예상
신일본제철	매상액	39,063(15)	40,000(2)
	경상이익	5,474(47)	4,600(-16)
	순이익	3,439(56)	2,800(-19)
JFE	매상액	30,983(11)	31,200(1)
	경상이익	5,173(12)	4,600(-11)
	순이익	3,259(100)	2,700(-17)
코베제철	매상액	16,673(15)	17,500(5)
	경상이익	1,769(52)	1,450(-18)
	순이익	845(65)	850(1)
스미도모금속	매상액	15,527(26)	15,500(-0.2)
	경상이익	2,807(62)	2,600(-7)
	순이익	2,212(100)	1,550(-30)

자료원 : 일본경제신문사(2006년6월 기준 최근 발표자료)

다. 자동차

전세계 자동차생산이 6000만대(05년6484만대)를 넘어서고 있지만 그 중 1/3은 일본의 자동차메이커가 생산하고 있다.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GDP의 약 10%, 연간 총수출총액인 50조 엔의 약 15%를 차지하는 최대규모의 기간산업으로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도 취업 인구 전체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국내 경기의 회복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05 회계연도 기준 일본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5,861천대로 소폭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은 도쿄 모터쇼 개최로 인한 신형모델 투입효과 등으로 신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3.5% 증가했으며 차종 별로는 유가 급등의 여파로 일반 승용차의 판매 부진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소형·경승용차가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경승용차는 높은 연비와 상품성과 더불어 기업별로 판매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호조세가 두드러졌다.

일반 승용차 시장은 미니밴, 컴팩트카에 이어 신형 히트 차종이 출현하지 않는 가운데 차량 보유기간의 장기화가 진행되면서 신차 효과에 의한 교체수요 보다는 시장성숙화를 중심으로 한 구조적인 요인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향후 인구감소가 본격화되고 정률감세 폐지 등에 따른 소득의 실질적인 감소와 시장성숙화로 인한 구조적 요인으로 국내 시장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수출의 경우 유럽, 북미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4년 연속으로 증가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고 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연비성능에서 앞서는 일본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 유럽·아시아 시장으로의 수출은 현지생산 체제가 증가하면서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소형차를 중심으로 북미시장으로의 수출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

2005년 일본 국내 완성차 생산은 국내수요에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해외 시장에서의 일본 차 판매의 호조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하였다 승용차 메이커 8개사는 2005년도의 생산, 수출 실적을 발표, 토요타 자동차(매출액20조엔 돌파), 닛산 자동차, 혼다, 스즈키의 4사가 국내, 해외를 합친 세계생산으로 과거최고를 기록하였다. 이들 회사는 해외생산이 전년도비 2자리 수 이상 증가하여 자동차 생산의 해외 이전이 선명해졌다.

일본 자동차 공업회는 일본 자동차메이커에 의한 해외생산대수가 전년비8.2% 증가한 1060만 5587만대로 1천만대를 처음으로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완성차 메이커 19개사의 2005년도 연결 매출액 합계는 국내판매가 보합상태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에서의 판매호조로 4조9,980억 엔을 기록, 전년 도 대비 19.7%의 경상수익이 증가하였다.

승용차 생산, 수출대수실적 (2005년도)

(단위: 대수 (괄호 안 전년도비 증가율 %))

	국내생산	수출	해외생산
토요타	3,863,086(3.0)	2,125,881(7.3)	3,731,253(19.3)
닛산	1,364,868(-7.9)	673,680(-6.7)	2,073,472(12.1)
혼다	1,243,368(-2.1)	538,844(1.5)	2,199,501(10.7)
스즈끼	1,133,004(7.1)	304,630(13.8)	1,067,236(12.1)
마츠다	904,220(11.3)	650,625(16.0)	306,831(-0.4)
다이하츠	722,142(4.3)	107,317(5.5)	42,431(-25.7)
미츠비시자동차	706,048(17.8)	379,812(8.2)	675,380(-12.0)
후지중공업	466,729(-3.0)	224,723(5.8)	121,505(6.1)

주: 년도는 회계연도로 2005.4.1-2006.3.31.

자료원: 아사히 신문, 일본 자동차공업 협회(2006년6월 기준)

지난 7월24일 일본 국내 자동차8사는 2006년도 상반기 실적을 발표하였다. 토요타 자동차와 스즈키가 전 항목에서 전년동기비 플러스를 기록한 반면, 닛산 자동차는 1999년 이후 7년 만에 전 항목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닛산은 국내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 해외 생산도 소폭 감소하였다. 토요타는 국내생산이 3.0% 증가하는 등 거의 전년 수준이었지만, 해외 시장에서의 판매호조를 배경으로 해외생산과 수출 중,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해외 생산이 국내 생산량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승용차 생산, 수출대수실적 (2006년1월-6월)

(단위: 대수, 괄호 안은 전년도비 증가율 %)

	국내생산	수출	해외생산
토요타	2,109,730(8.1)	1,207,020(18.6)	1,964,374(12.9)
닛산	631,714(-20.9)	315,486(-7.5)	1,016,263(-2.6)
혼다	647,576(-0.8)	312,251(11.3)	1,170,601(8.5)
마츠다	470,773(14.7)	340,189(23.2)	165,687(25.7)
미츠비시자동차	373,385(22.2)	193,771(22.7)	295,089(-16.7)
스즈키	610,195(12.4)	179,241(55.1)	556,738(7.5)
다이하츠	384,814(4.6)	56,746(8.1)	12,448(-56.5)
후지중공업	233,657(2.4)	168,757(7.7)	57,251(1.2)

자료원: 일본자동차공업회(사), 일본경제신문사(2006.7.25)

2006년에는 환율변동이 자동차 업계 수익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강재를 중심으로 한 원재료의 수급완화로 인해 부품비의 상승압력이 악화되어 플러스 요인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에서 신차개발, 차세대 기술을 위한 연구개발비, 해외에서의 적극적인 설비투자로 인한 고정비의 증가, 고유가의 고착화에 따른 소형차로의 수요 전환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라. 전기전자

AV 기기와 반도체의 재고조정이 2005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면서 내수 확대가 주춤했던 일본의 일렉트로닉스 산업은 2005년 하반기부터 박형TV가 시장 수요를 견인하면서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견실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6년에 들어서도 세계적인 규모의 박형TV, 휴대전화, PC 등의 시장확대 지속을 배경으로 생산, 내수, 수출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본격적인 보급에 돌입한 박형TV 시장의 확대에 기대가 모아지는 한편, 기업의 수익성 측면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점유율, 가격경쟁이 전개됨에 따라 한계가 노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박형TV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리스크도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우수 기업들이 공통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반도체 및 휴대전화 사업은 글로벌 규모에서의 업계 재편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2005 회계연도(2005.4.1-2006.3.31) 기준 일본의 종합 가전기기 메이커 5개사의 합계 매출 총액은 34조5100억 엔으로 전년비3.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업별로 AV 기기 부문에서 기업수익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박형TV 시장은 세계적으로 가격하락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시장에 진입해 있는 모든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마쯔시다 전기 및 샤프의 AV 기기 부문의 호조는 핵심 디바이스(주로 패널)의 내제화와 강력한 부품 조달력에 기초한 코스트 퍼포먼스의 우위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2006년에는 소니와 산요전기의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수익성 향상이 기대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수익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도시바의 NAND형 플래시메모리와 미쯔비시 전기의 FA 기기와 같은 일부 기업의 특정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못해 기업별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AV 기기 및 휴대전화의 본격적인 시장확대에 기초한 로직 반도체 사업도 세트 제품의 가격하락과 범용화의 진행으로 기업별 성장엔진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정 고객을 겨냥하거나 특정 어플리케이션용 판매전략, 나아가 사업전략의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주요 종합전자기기 메이커 매출액(2005년도)

(단위 : 백만엔)

회사명	매출액	경상이익
마쯔시다전기산업	8,840,000	400,000
소니	7,400,000	100,000
히타치	9,220,000	260,000
샤프	2,750,000	160,000
도시바	6,300,000	220,000

자료원 : 동양경제신문사 집계(2006년6월 기준)

2006년에는 반도체 및 휴대전화 등 일본의 주요 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진사업의 채산성 향상이 기대되고 사회 인프라 및 IT 시스템의 해외 진출이 본격화 되면서 종합 전기 메이커 5개사의 총 매출액 합계는 29조엔(전년비 1.8%), 영업이익 9,500억엔(동 9.2%)로 개선될 전망이다.

일본기업은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범용제품을 생산하고 국내생산은 부가가치가 높은 하이엔드 위주로 생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 기기의 경우, 시장가격의 하락 속도가 빨라 국내 메이커에서 타이완 메이커로의 양적 생산이 진행 중이다.

일본 메이커의 주요기기의 해외생산 비율

	2003년도	2004년도
카내비게이션 시스템	0.0 →	0.4%
DVD레코더	38.0% →	66.6%
디지털 비디오카메라	10.4% →	21.9%
광학식프린터	82.1% →	93.9%
잉크젯 프린터	99.9% →	99.6%
노트북 컴퓨터	35.1% →	37.3%
가정용 게임기(포터블 제외)	88.7% →	98.9%
액정 TV	3.8% →	24.3%
기록형 DVD드라이브	79.8% →	86.6%
휴대전화단말기	36.2% →	42.5%
디지털 스틸 카메라	38.5% →	45.3%

자료원: 중일사 전자기기연감 2006년(2006년6월 기준)

일본 국내 전자기기의 세대보급률은 컴퓨터가 68.3%로 전년도비 소폭 증가한데 비하여 액정 플라즈마 박형 TV의 경우, 전년비58% 증가하였다.

전자기기의 세대별 보급률(2006.3)

(단위: %)

품목	보급률 (%)
컬러 TV	99.4
브라운관 컬러 TV	96.2
PC	68.3
FAX	56.7
디지털 카메라	53.7
비디오 카메라	40.2
DVD재생전용기/DVD재생 녹화 겸용기	32.5/40.0
액정 플라즈마, 박형 컬러TV	19.8
휴대전화	85.3

주: 디지털 카메라에 휴대전화는 포함 안됨.

자료원: 내각부 (2006년 6월 기준)

1) AV기기

2005년은 세계적으로 박형TV가 시장을 견인하는 형태가 더욱더 선명해졌다. 국내시장에 있어서도 2005년도 상반기는 2004년도 하반기부터의 국내 AV기기의 재고조정이 계속되었지만, 하반기에 들어 박형TV판넬 가격하락과 같이 내수는 급격히 회복하여 전체적으로 생산, 수입이 전년도 대비 확대기조에 있다. 내수는 보다 확대될 전망이지만 2005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본 국내에서의 생산은 AV 기기 단가의 하락폭 가속과 이에 따른 수입 증가의 여파로 3년 만에 감소하였다. VTR(Video Tape Recorder)에서 DVD(Digital Versatile Disc), HDD(Hard Disc Drive)레코더, 플레이어로 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며 비디오카메라로는 디지털 비디오카메라로의 이행, DVD, HDD, 메모리카드 등으로의 전환이 진전되고 있다. 디지털화의 메리트로서 소형, 경량화, 네트워크의 이용 등을 살린 전체시장의 규모가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시장에서 DVD 레코더와 디지털 카메라가 서서히 성장에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으며 2005년 하반기 이후 히트상품은 iPod 등 일부 디지털 오디오 기기에 불과한 상황이다.

2006년은 독일 월드컵 개최 전까지 미국시장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박형TV출하는 호조였지만 대회 개최 후부터 일부 지역에서 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또한 액정TV용 판넬의 본격적인 양산화에 따라 박형TV메인 시장인 40인치 대에 액정TV의 시장 가격이 플라즈마 TV에 가까워져 있으며 사이즈로의 액정, PDP구분이 무너지고 있다. 2006년도 하반기 이후, 액정, PDP의 급격한 가격하락이 예상되면서 급속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유럽시장에서의 시장경쟁이 향후 박형TV메이커 전체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2) 백색가전

주목할 만한 히트상품은 2005년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평년보다 사계절이 확실했던 계절 특성상 에어컨 출하대수가 견조했고 겨울철 난방기구 출하도 호조를 보였다. 2006년 국내는 예년과 같이 여름의 에어컨 출하가 가전의 전반적인 경기를 좌우할 전망이지만 국내는 장기장마의 영향에서 출하는 작년에 비해 저조한 상태이다. 세계적으로는 유럽과 중국에서 빌딩, 공공시설에서의 에어컨 수요 확대가 예상되어 일본 관련업계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원유가와 소재의 가격상승 등 기업 수익의 압박 요소는 존재하지만 마츠시다 전기가 2005년 12월에 신제품 도입을 계기로 각 회사가 신제품을 발표하고 있으며 2006년도 에어컨시장은 확대 될 전망이다. 관련 제조업계에서는 난방능력을 갖춘 에어컨을 시장에 도입하고 있으며 고단열 주택의 보급, 메이커와 전력회사의 시너지전력화(모든 전원을 전기로 공급받는 시스템)의 강화, 석유난방기기 메이커가 가전메이커에서 탈퇴하는 등 에어컨이 겨울에도 강세를 보일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고 있다.

이러한 예측을 뒷받침하는 일례로 최근 일본 국내의 주택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있다.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 에어컨, 냉장고등 백색가전 전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데, 최근의 주택의 경우 거실의 면적이 넓어 에어컨도 이에 맞는 용량이 요구되고 있다.

3) PC

2005년 PC 출하대수는 전세계적으로 212백만 대(전년비 15% 증가)로 크게 증가했으며 일본 국내시장에서도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시장확대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중견중소기업의

법인교체 수요의 호조와 개인용 PC가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내수의 경우 저가격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로 생산거점을 이관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델, HP 등 외국 기업의 점유율이 일본 국내에서 점차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국내생산은 감소 추세에 있다. 2005년도 일본 국내 컴퓨터의 출하금액은 2조8천억 엔으로 전년비 0.6% 감소하였다.

2006년은 Window의 새로운 신OS “Vista”의 판매가 2007년1월에 연기되었지만 PC 메이커 각 사에 의한 신OS버전업특전대응 등에 따라 걱정되었던 구매침체는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순조로운 출하를 보이고 있다. 중남미 등 신흥시장에서의 수요 확대, 북미, 유럽에서의 법인 교체 수요의 진행으로 세계적으로 PC 출하대수는 늘어날 전망이며 일본 국내시장에서도 눈 여겨 볼만한 불안재료가 없어 당분간 시장확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4) 휴대전화

2005년도 세계휴대시장의 출하대수는 812만대(전년도대비 20.5% 증가)하는 등 시장확대가 계속되고 있다. 신흥시장에서의 수요확대로 세계시장전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중저가 가격의 단말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일본 국내시장의 휴대전화 보급률은 85.3% (2006. 3월 기준), 휴대전화 누계 계약건수는 92,555,700 건(전월 대비0.3% 증가, 2006년 5월 기준)으로 휴대전화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상황이다.

일본 MM종합연구소가 2006년 4월에 발표한 2005년도 휴대전화의 국내 출하대수로는 샤프가 최초로 1위를 차지했다. 출하대수는 20% 증가한 755만대로 작년까지 점유율 1위였던 NEC 출하대수는 11% 감소한 730만대로 3위로 하락하였다. 마츠시다 전기산업의 패날소닉 모발 커뮤니케이션은 2% 감소한 746만대를 생산, 점유율 2위를 차지하였다.

일본국내 휴대전화 출하대수 점유율(2005년도)

사명	점유율(%)
샤프	16.3
패널소닉모바일	16.1
NEC	15.8
도시바	13.4
후지츠	7.9
삼양전기	7.1
미츠비시전기	6.9
소니 에릭슨	6.3
기타	10.2
합계	100

자료원: MM종합연구소 조사 발표자료

2006년 일본 국내시장은 본격적인 외국 기업들의 시장진입과 저가 단말기의 등장, 번호 이동제도의 도입 등으로 2005년을 다소 웃도는 출하가 예상되고 있다. 해외에서의 3세대 휴대전화의 보급 지연과 2세대, 2.5세대 단말기의 급격한 가격하락으로 인해 일본 휴대전화 기업들의 대부분은 해외시장으로부터의 철수 또는 사업 재검토를 압박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일본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역으로 내수에 대한 의존도는 상승하고 있다.

5) 반도체

2005년도 세계반도체 출하금액은 2,275억 달러(전년비 +6.8%성장)를 기록하는 등 2005년 세계 반도체 시장은 4년 연속 플러스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메모리, DSP(Digital Signal Processor) 등의 출하가 감소하면서 2.8%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2006년에는 세계적으로 PC, 휴대전화, 박형TV 등의 디지털 가전과 관련한 반도체 어플리케이션 시장의 확대로 반도체 시장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단가 하락폭이 거세져 그 신장률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도체 사업에 대한 설비투자과 R&D 투자 규모 및 사업전반에 대한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선택과 집중 및 첨단 프로세스 분야에서의 재휴가 모색되고 있다.

WSTS에 의하면 2005년의 IC(집적회로) 세계시장규모는 1,923억 달러(전년비 7.6%증가)로 2004년도에 비하여 성장세가 둔화하는 한편, 개도국시장의 휴대폰 시장의 확대, 휴대 음악 플레이어의 수요증가로 2007년도에도 10.6%의 증가를 예측하였다.

세계의 IC시장 예측

(단위: 백만 달러)

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IC합계	130,218	176,945	118,491	120,523	139,965	178,772	192,336	207,509	229,514

주: 2005년 이후는 예측치 임.

자료원: WSTS 2005년 예측, 전자부품연감(2006)

메이커 각 사의 2006년 여름 가동상황

제품명	회사명	상황
반도체	도시바	휴대음악플레이어 용 등 NAND Full 가동
	엘피다 메모리	휴대전화용 DRAM의 출하가 증가, FULL가동

자료 : 일본경제신문사 2006.8.9

6) 디스플레이

전세계적으로 대형TV 패널의 대량양산에 따른 패널 가격의 하락이 지속되면서, 대형 액정TV 및 PDP TV의 보급을 확대, 모니터 수요의 부진, 노트북 PC의 호조로 디스플레이 시장의 규모는 일본 국내에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메이커 각 사의 2006년 여름 가동상황

제품명	회사명	상황
박형판넬	샤프	가메야마 공장에서는 판넬. 텔레비전 조립 모두 Full 가동
	마츠시다플라스마디스플레이	유럽 등 해외 중심의 출하가 호조이며 Full 가동
	후지츠히타치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해외 크리스마스 시즌을 위해서 휴일 없이 가동

자료원 : 일본경제신문사 2006.8.9

2006년에는 세계 주요 FPD(Flat Panel Display)에 의한 TV교체가 지속되면서 휴대 전화 등 중소형 패널의 수요도 호조를 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단, 2006년도 중에 세계주요 FPD 기업들의 차세대 공장가동이 잇따르면서 패널 공급 과잉에 의한 재고누적과 단가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마. 정보통신산업

일본의 정보통신산업은 기술혁신 및 규제완화가 탄력을 받으면서 IP(인터넷프로토콜)를 활용한 네트워크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개인용 브로드밴드(고속대용량) 통신, 기업용 데이터 통신, 제 3세대 휴대전화 분야에서 사업자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ADSL 및 광케이블 등을 이용한 가정에서의 브로드밴드 통신 이용자가 이미 8,529만 명을 돌파하면서 인구 보급률도 66.8% 전후에 달하고 있다(2005년도 12월 기준, 일본 총무성 조사). 기업용 데이터통신 분야도 기존의 전용선을 통한 거점간 접속에서 신형WAN서비스가 주력이 되어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구축수요에 대한 대응이 활성화되고 있다.

브로드밴드의 지속적인 보급과 가입자수의 증가가 고정통신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반면, IP 전화의 보급 확대로 고정전화의 시장축소가 이어지고 있다. 이동통신 분야는 가입자수 증가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006년 11월로 예정된 번호이동 제도의 개시로 기업간 가입자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과 관련하여서는 2005년 들어 이동통신분야에서 3세대용 투자, 고정통신분야에서는 직수전화(기존의 NTT교환기를 통한 접속이 아닌 일본텔레콤, KDDI 등 새로운 교환기를 통한 접속, 신규 접속이 가능한 전화) 서비스 개시로 높은 수준의 설비투자가 이루어졌다. 2006년도에는 3세대 투자 영역 확대 및 통신품질 향상을 위한 설비투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소프트뱅크 등 신규 통신사업자의 진입으로 설비투자가 본격화되면서 2005년도 수준을 상회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1) 고정통신시장

브로드밴드 가입자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2006년도 3월 말 기준 2,329만 건으로 전년 대비 19.25% 증가하였다. 저렴한 요금, 적극적인 프로모션, 유료방송 실시 등의 영향으로 2005년 1~3월에 처음으로 가입자 순 증가 수 기준으로 FTTH(Fiber To The Home, 가정 내 광케이블)가 ADSL을 웃돌았다. 향후에도 ADSL과 FTTH의 격차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브로드밴드 시장의 순조로운 확대와는 대조적으로 고정통신료의 수입 감소 여파로 고정통신 사업자들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브로드밴드 보급에 따른 IP 전화 보급 확대와 고정전화 요금의 인하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향후 기본료 수입 통화료 수입 감소가 지속될 전망이다.

브로드밴드 계약 건수의 변화 추이

(단위 : 만 계약건수)

	2003년3월	2004년3월	2005년3월	2006년3월
CATV 접속서비스	31	114	290	546
ADSL접속서비스	702	1,120	1,368	1,452
FTTH계약서비스	207	258	269	331
브로드밴드 합계	940	1,492	1,953	2,329

자료원 : 일본 총무성 (2006년 6월 기준)

2) 이동통신시장

이동통신시장은 누적가입자수의 증가 페이스 둔화와 각 기업별 가격인하 양상이 치열해지면서 음성부문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데이터 수입 증가가 음성 수입의 부진을 커버하는 상황이다. 제 3세대로의 시프트가 가속되고 있고 2006년 번호이동제도 도입을 앞두고 기업들이 고객 붙잡기를 강화하고 있어 2004년에 비해 해약률이 낮은 수준에서 추이하고 있다.

NTT도코모는 금융, 음악분야에서 다른 업종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모바일 결제 보급 확대를 모색하고 있으며 기존 고객 붙잡기와 추가 수입확보를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NTT도코모는 미츠이스미도모카드로 980억 원 등 금융기관으로의 출자를 실시한바 있다. KDDI는 음악다운로드 서비스를 키우고 휴대전화용 영상 콘텐츠 다운로드 서비스를 위한 기획회사를 설립하는 등 콘텐츠 부문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동사는 도쿄전력의 통신회사인 파워드콤과 합병, 광통신사업도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보다폰은 휴대전화 음성정액 서비스를 개시하고 고객 확보 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소프트뱅크 등 비통신사업자와의 협력을 모색하는 등 시장탈환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의 제 3세대 휴대전화용 신규 전파 개방으로 2006년에는 소프트뱅크, 이엑스세스, 아이피모바일 3사가 휴대전화 사업에 신규 진입함으로써 경쟁이 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여름으로 예정되어 있는 HSDPA(3.5세대, 3세대 전화를 고속화한 데이터 통신규격) 서비스의 개시에 따라 데이터 통신의 속도 경쟁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신규 사업자로 선두에 선 소프트뱅크는 미국 보다폰의 일본법인을 총액1조 7500억 엔으로 매수하는 절차를 2006.4월에 완료, 10월에는 소프트뱅크 모바일로 사명을 변경할 예정이다.

바. 산업전반의 동향 및 향후 전망

제조업 부문이 자동차, 일반기계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2005년 초 부진했던 전자전기 산업은 PC, 반도체 등의 세계적인 시장확대 및 박형TV의 본격적 보급을 배경으로 2006년도에 들어와 생산활동이 회복단계에 있다.

비제조업 부문은 광고시장, 오피스빌딩 가동률, 호텔객실 가동률과 같은 경기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지표가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해운과, 전력, 브로드밴드 보급이 확대되는 통신산업도 계속해서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재해수요의 감소와 공공투자 삭감의 영향이 큰 건설, 유통업은 상대적으로 회복세가 부진하며 향후에도 호경기의 수혜를 입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05년 회계연도(2005.4.1-2006.3.31)기준 기업의 수익동향을 보면 대표적인 제조업 196개, 비제조업 104개사의 경상이익이 전년비12.7%, 영업이익이 전년비11% 증가해 2004년도에 이어 증익을 기록하였다.

분야별로는 철강, 자동차, 조선의 수익이 증가하였고 석유관련 대기기업의 경상이익도 과거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원재료 가격의 상승분 만큼 전가에 성공한 철강은 계속해서 높은 이익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요확대에 비해 제품가격의 하락폭이 큰 전기전자 산업, 원료비 상승분만큼의 가격전가가 어려운 화학 등의 이익은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합성섬유 메이커의 실적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2006년 들어서도 기업실적은 제조업 부문 수익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전은 AV기기의 판매량 확대 및 사업구조 개편의 가속화로 플러스 이익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며 화학도 아시아 시장에서의 꾸준한 수요로 플러스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밖에 철강, 의약, 비철금속, 자동차 분야의 호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강재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는 조선과 석유정제 부문은 감익이 예상된다.

비제조업 부문은 건설, 해운을 제외하고 모든 대상업종에서 수익 증가가 예상된다.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 확보에 그치지 않고 매상이 증가세로 돌아선 백화점, 임대료 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과 주택 등 경기회복의 영향이 본격적인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경제신문이 발표한 설비투자동향조사(2006년5월)에 따르면 2006년도에도 민간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전산업으로 살펴보면 2006년도에는 2005년도 투자 금액(연결베이스, 국내외 합계)대비 14.5% 이상의 설비투자 증가가 계획되어 있다. 분야별로 전기와 소재 분야에서 국제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두드러진다. 전기는 디지털 가전, 반도체에서 투자를 증가시킬 전망, 소재 중에서는 연료재료를 사용하는 화학, 제지 펄프는 석유고가가 계속될 경우 투자계획의 수정도 예측된다.

일본 전 산업의 설비투자 계획

(단위: 개사, 백만엔, 괄호 안 전년비 증가율 %)

	회사 수(개사)	2006년도 계획	2005년도 투자 실적
전산업	1498	25,994,680(14.5)	22,708,505(12.9)
제조업	783	16,536,709(17.0)	14,134,067(17.1)
비제조업	715	9,457,971(10.3)	8,574,438(6.6)

자료원: 일본경제신문사

주: 년도는 일본 회계연도(2005.4.1-2006.3.31), 일본경제신문의 설비투자 동향조사는 매년 2회에 걸쳐 상장기업과 자본금 1억엔 이상의 유력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2006년 6월 기준

업종별 설비투자 계획(2006년도)

(단위: 백만엔, 괄호 안은 전년도비 증가율)

	회사 수(개사)	투자 계획
화학	96	1,410,524(19.2)
철강	27	1,005,302(45.4)
비철, 금속	62	568,077(11.8)
섬유	38	361,379(23.4)
제지펄프	19	323,680(29.2)
전기기기	131	4,986,053(18.0)

자동차, 부품	35	3,738,618(9.8)
기계	112	1,056,742(20.5)
식품	83	729,670(10.3)
석유	8	443,452(42.9)
고무	12	381,751(27.9)
정밀기기	28	340,402(4.6)
의약품	26	164,015(16.6)
조선	3	56,700(-11.5)
통신	20	2,677,317(0.0)
전력	11	1,812,868(9.9)
철도	18	1,207,079(28.8)
서비스	198	448,677(20.1)
해운	8	411,901(13.6)
건설	81	121,518(-7.5)

정보원: 일본경제신문사

참고자료 : 일본국세도회, 일본업체지도2007, 미즈호코퍼레이트 은행, 일본경제신문, 기타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10. 정보조사 자료원

- 니혼게이자이 신문 www.nikkei.co.jp
- 재무성 www.mof.go.jp
- 경제산업성 www.meti.go.jp
- 내각부 www.cao.go.jp
- 일본은행 www.boj.or.jp
- 총무성 www.soumu.go.jp
- 통계국 www.stat.go.jp
- 동양 경제 신보사 www.toyokeizi.co.jp/db/index.html
- KOTIS(무역협회) www.kita.net
- 관세청 www.customs.go.kr
- 산업자원부 www.mocie.go.kr
- 데이코쿠 데이터 뱅크 www.tdb.co.jp
- 일본 무역진흥기구(제트로) www.jetro.go.jp
- World Trade Atlas www.gtis.com
- 야노 경제 연구소 <http://www.yano.co.jp/>
- 미즈호 종합 연구소 <http://www.mizuho-ri.co.jp/>
- 노무라 종합 연구소 <http://www.nri.co.jp/>
- 업종별 심사사전
- 연감(공업, 전자기기 등)
- 잡지(닛케이 비즈니스, 이코노미스트 등)
- 기타 단행본

III. 경제무역통계

11. 거시경제통계

주요경제지표

구분	2004년	2005년(추정치)	2006년(전망치)
명목 GDP	496.2 (조엔)	503.9 (조엔)	513.9 (조엔)
국민 소득(NI)	361.0 (조엔)	367.7 (조엔)	375.6 (조엔)
노동력 인구	6,639 (만 명)	6,660 (만 명)	6,660 (만 명)
취업자총수	6,332 (만 명)	6,370 (만 명)	6,385 (만 명)
완전 실업률	4.6 (%)	4.3 (%)	4.1 (%)
광공업 생산지수(증감률)	4.1 (%)	1.8 (%)	2.9 (%)
국내 기업 물가지수(변화율)	1.5 (%)	1.7 (%)	0.9 (%)
소비자 물가지수(변화율)	-0.1 (%)	-0.1 (%)	0.5 (%)
수출액	58.8 (조엔)	64.3 (조엔)	71.2 (조엔)
수입액	45.7 (조엔)	54.5 (조엔)	59.8 (조엔)
무역수지	13.2 (조엔)	9.8 (조엔)	11.5 (조엔)
경상수지	18.2 (조엔)	18.4 (조엔)	20.7 (조엔)
환율(1달러당 엔)	103.78	117.48	-

자료원: '금융경제통계월보' (2006.8.29일), 일본은행

12. 무역통계

일본의 주요 국가 별 수출현황

순위	국가	금액(십억엔)				증감률(%)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6월)	05년/04년
	총계	54,548	61,170	65,662	35,776	7.34
1	미국	13,412	13,731	14,807	8,089	7.84
2	중국	6,635	7,994	8,839	4,955	10.57
3	한국	4,022	4,785	5,143	2,840	7.49
4	타이완	3,610	4,542	4,810	2,524	5.89
5	홍콩	3,455	3,831	3,969	1,984	3.59
6	태국	1,854	2,192	2,478	1,259	13.03
7	독일	1,898	2,050	2,058	1,121	0.36
8	싱가포르	1,716	1,945	2,035	1,079	4.61
9	영국	1,529	1,619	1,663	915	2.73
10	네덜란드	1,361	1,447	1,448	798	0.05
11	말레이시아	1,302	1,359	1,383	738	1.74
12	호주	1,147	1,277	1,371	703	7.32
13	인도네시아	830	982	1,018	401	3.71

14	필리핀	1,042	1,038	1,000	493	-3.7
15	캐나다	855	826	972	589	17.64
16	프랑스	818	903	856	428	-5.21
17	파나마	632	656	813	428	23.9
18	벨기에	668	780	786	407	0.77
19	멕시코	421	561	765	471	36.23
20	이탈리아	636	698	632	368	-9.4

자료원 : 일본세관, World Trade Atlas

일본의 주요국가별 수입현황

순위	국가	금액(십억엔)				증감률(%) 05년/04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6월)	
	총계	44,362	49,217	56,881	32,377	15.57
1	중국	8,731	10,199	11,967	6,521	17.34
2	미국	6,825	6,763	7,071	3,863	4.55
3	사우디	1,689	1,996	3,170	2,153	58.86
4	아랍에미리트	1,663	1,982	2,794	1,751	40.95
5	호주	1,744	2,103	2,698	1,532	28.28
6	한국	2,071	2,383	2,696	1,553	13.12
7	인도네시아	1,905	2,022	2,292	1,347	13.34
8	타이완	1,656	1,805	1,991	1,143	10.35
9	독일	1,644	1,846	1,967	1,042	6.57
10	태국	1,376	1,525	1,717	941	12.59
11	말레이시아	1,458	1,526	1,618	851	6.04
12	카타르	755	852	1,178	784	38.21
13	이란	862	893	1,139	659	27.51
14	캐나다	871	910	982	530	8
15	프랑스	837	902	939	507	4.06
16	필리핀	815	892	849	437	-4.8
17	쿠웨이트	529	621	843	528	35.71
18	이탈리아	707	746	758	394	1.58
19	영국	676	720	740	402	2.69
20	싱가포르	629	680	738	432	8.53

자료원 : 일본세관, World Trade Atlas

일본의 수출 상위 10개 품목

HS Code	품목	금액(십억엔)				증감률(%)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6월)	05년/04년
	총계	54,548	61,169	65,656	35,776	7.33
87	일반차량	12,046	12,753	13,808	7,808	8.27
85	전기기기	12,046	13,305	13,493	6,924	1.41
84	보일러, 기계류	10,940	12,488	13,186	7,127	5.59
90	광학, 의료, 정밀기기	3,186	3,936	3,963	2,044	0.70
00	기타	2,226	2,557	2,887	1,591	12.88
72	철강	1,821	2,292	2,689	1,388	17.30
29	유기화합물	1,559	1,782	1,970	1,054	10.52
39	플라스틱	1,408	1,662	1,924	1,091	15.76
89	선박	1,133	1,323	1,302	827	-1.62
73	철강제품	721	830	1,038	622	25.03

자료원 : 일본세관, World Trade Atlas

일본의 수입 상위 10개 품목

HS Code	품목	금액(십억엔)				증감률(%)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6월)	05년/04년
	총계	44,362	49,216	56,949	32,377	15.71
27	광물성연료, 에너지	9,394	10,757	14,696	9,256	36.62
85	전기기기	5,557	6,248	6,782	3,777	8.56
84	보일러, 기계류	4,776	5,259	5,764	3,191	9.61
90	광학, 의료, 정밀기기	1,729	1,927	2,182	1,316	13.25
26	광, 슬랙, 회	867	1,105	1,589	1,042	43.73
87	일반차량	1,357	1,466	1,530	796	4.36
03	어패류	1,224	1,245	1,273	593	2.23
29	유기화합물	1,079	1,157	1,262	701	9.08
62	의류(편물제)	1,200	1,217	1,256	636	3.16
44	목재, 목탄	1,147	1,251	1,201	653	-4.06

자료원 : 일본세관, World Trade Atlas

우리나라의 대일수출 주요품목

HS Code	품목	금액(십억엔)				증감률 05년/04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6월)	
	총계	2,071	2,383	2,696	1,553	13.12
85	전기기기	643	689	698	386	1.4
84	기계	301	367	369	181	0.73
27	광물성연료,기름 등	290	315	348	207	10.27
72	철강	109	176	239	100	35.5
90	광학,의료,정밀기기	30	35	139	207	297.01
39	플라스틱	76	83	101	53	20.94
00	기타	43	65	90	38	38.87
29	유기화합물	51	81	89	49	9.9
73	철강제품	46	54	66	41	22.55
03	수산물	62	65	63	25	-3.12

자료원 : 일본세관, World Trade Atlas

우리나라의 대일수입 주요품목

HS Code	품목	금액(십억엔)				증감률(%) 05년/04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6월)	
	총계	4,022	4,785	5,143	2,840	7.49
85	전기기기	1,060	1,149	1,088	529	-5.32
84	기계류	738	907	928	558	2.31
72	철강	441	595	659	362	10.76
90	광학,의료,정밀기기	400	491	497	253	1.2
29	유기화합물	187	242	314	171	29.81
39	플라스틱	161	211	270	159	27.76
38	각종 화학공업생산물	112	135	186	112	37.56
00	기타	144	172	176	96	2.49
87	일반차량	107	110	128	79	16.47
70	유리	61	81	106	59	31.17

자료원 : 일본세관, World Trade Atlas

13. 투자통계

가. 일본의 지역별 외국인 투자유치실적

(단위: 건, 억엔, %)

구분	2002 년도		2003 년도		2004 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구성비
합계	1,465	21,863	1,431	21,161	1,591	40,265	100.0
미국	440	5,944	372	3,492	522	26,198	65.1
캐나다	6	614	12	908	2	0	0.0
케이만 군도	324	2,037	322	2,923	198	1,254	3.1
싱가폴	34	228	44	1,486	82	567	1.4
홍콩	22	174	30	65	41	32	0.1
한국	40	31	41	38	41	247	0.6
대만	15	18	22	21	20	7	0.0
중국	29	3	20	3	24	9	0.0
말레이시아	1	0	3	0	1	1	0.0
네덜란드	60	3,926	61	3,164	52	5,128	12.7
독일	47	1,195	46	1,326	37	114	0.3
아일랜드	3	0	10	1,018	1	0	0.0
룩셈부르크	9	667	19	469	46	235	0.6
영국	45	314	28	260	22	757	1.9
벨기에	7	101	15	252	19	145	0.4
프랑스	39	110	35	218	45	454	1.1
스위스	19	644	17	103	19	102	0.3
스페인	5	3	3	82	7	111	0.3
이탈리아	14	56	10	8	14	21	0.1

자료원 : 일본 재무성 (2006년 4월 발표, 반기마다 갱신)

나. 일본의 대외직접투자실적

(단위: 건, 억엔)

연 도	주식, 지분취득		대부		지점설치, 확장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96년	1,228	40,517	1,254	12,430	19	1,149	2,501	54,095
1997년	1,032	50,348	1,452	15,183	11	705	2,495	66,236
1998년	523	33,004	1,108	19,319	6	457	1,637	52,780
1999년	617	63,600	1,121	11,463	6	229	1,744	75,292
2000년	646	46,347	1,068	7,569	3	277	1,717	54,193
2001년	633	30,712	1,147	9,346	6	355	1,786	40,413
2002년	710	35,919	1,447	8,634	7	377	2,164	44,930
2003년	705	31,189	1,700	9,326	6	280	2,411	40,795
2004년	780	26,797	1,952	10,566	1	847	2,733	38,210

자료원 : 일본 재무성 (2006년 4월 발표, 반기마다 갱신)

다. 일본의 대한투자실적 (신고기준)

(단위: US\$백만,%)

연도별	투자유치	일본투자	
	총액	금액	비율(%)
1991	1,396	226	16.2
1992	894	155	17.3
1993	1,044	286	27.4
1994	1,317	428	32.5
1995	1,947	424	21.8
1996	3,203	255	8.0
1997	6,971	265	3.8
1998	8,852	504	5.7
1999	15,542	1,750	11.3
2000	15,697	2,448	15.6
2001	11,870	772	6.5
2002	9,101	1,404	15.4
2003	6,468	541	8.4
2004	12,785	2,258	17.7
2005	11,562	1,879	16.2
2006. 상반기	4,917	591	15.2

자료원 : 산업자원부(2006년 7월 발표)

라. 일본기업의 대 한국 투자현황

- 2004년 : 총 552건, 2,258백만 불
- 2005년 : 총 661건, 1,878백만 불
- 2006년 상반기 : 총 304건, 591백만 불

- 1962년-2006년 6월까지의 총 누계 실적(일본의 대 한국 투자)
 - 건수 : 총 9,196건
 - 금액 : 총 17,992백만 불

(자료원 : 2006년 7월 기준, 산업자원부 발표)

IV. 출장가이드

14. 출장가이드

1. 기후

가. 일본의 기후

4계절의 구분이 분명하며, 전 국토가 북에서 남으로 약 3,300km에 걸쳐 뻗어있고, 동쪽으로는 태평양, 서쪽으로는 아시아대륙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척양산맥이 가로지르고 있는 복잡한 지형과 해류에 의한 영향이 커 지역에 따라 적지 않은 기후 차이를 보임. 대부분의 지역이 ‘해양성 온대기후’에 속하나 북쪽 지역의 경우 아한대 기후를 나타내며 큐슈 이남 지역은 아열대 기후의 특징을 보임.

6월 초순부터 7월 중순에 걸쳐 약 1개월 이상 장마가 지속되며 8월 중순부터 10월에 걸쳐 남태평양에서 생성되는 태풍의 영향을 자주 받음. 여름에는 고온 다습한 동남 계절풍 이 태평양에서 불어오고 겨울에는 차가운 북서풍이 아시아 대륙에서 불어옴.

태평양 인근 지역은 대체로 여름에 비가 많고 겨울에는 건조한 바람이 부는 날이 계속됨. 반대로 동해 인근 지역에는 여름에 비가 적은 대신에 겨울에 눈이 많고 지역에 따라 적설량이 2-3미터에 달함. 도쿄의 겨울은 비교적 온화하며 눈이 많이 내리지 않는 것이 특징임.

2. 시차/근무시간

가. 시차

우리나라와의 시차는 없으나, 동쪽에 위치함에 따라 도쿄의 경우 서울에 비해 일출 및 일몰 시간이 1시간가량 빠름.

하계 썬머타임제는 운영되고 있지 않음.

나. 근무시간

- 관공서: 9:30 - 12:00, 13:00 - 17:30 (월-금) / 주말 및 국경일 휴무
- 회사: 9:00 (9:30) - 12:00, 13:00 - 17:30(18:00) (월-금) / 주말 및 국경일 휴무
- 은행: 09:00 - 15:00 (월-금) 점심시간 근무 / 주말 및 국경일 휴무
- 우체국: 09:00 - 16:00 (월-금) 점심시간 근무 / 주말 및 국경일 휴무
- 편의점: 24 시간 영업 / 연중무휴
- 백화점: 10:00 - 20:00 영업 / 연중무휴
- 슈퍼마켓: 10:00 - 21:00 영업 / 연중무휴

다. 도쿄지역 기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거의 같은 기간으로 구성됨. 봄에는 각지에서 벚꽃이 피기 시작하고 동해에서 발달하는 저기압으로 인해 강풍이 발생하며, 초여름에는 ‘쯔유’라 불리는 우기를 거친 후 한여름에는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높은 습도로 인해 불쾌지수도 높음. 가을에는 각지에서 단풍을 볼 수 있고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며, 겨울철에는 최고기온이 10도를 밑도는 날이 많지만 도심부에서는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드물. 눈이 전혀 내리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연 1회 정도 10cm가량 눈이 쌓이는 경우도 있음.

라. 오사카 지역 기후

오사카는 위도상으로 한국의 부산, 제주와 비슷한 위치이나, 기온상으로는 연평균 섭씨 2-3도 정도 높은 편임. 겨울에도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거의 없어 눈이 내리는 경우도 매우 드뭄. 5월 중순부터 30도를 오르내리는 여름날씨가 시작되고, 9월말까지는 낮기온이 30도 이상인 경우가 많음.

한국보다 평균기온이 높은 편이며 겨울철 난방은 온돌이 아닌 에어컨이나 히터를 주로 사용함. 일반 가정은 오히려 한국보다 매우 춥다고 느낄 정도이고, 호텔 등 숙박시설도 에어컨만을 사용하므로 다소 한기를 느낄 수 있음.

마. 나고야 지역 기후

남쪽으로 태평양을 접하고 서쪽에서 북쪽을 거쳐 동쪽에 이르기까지 산지로 둘러 쌓여 있는 분지 지형임. 하절기에는 남동계절풍이 불어와 매우 고온 다습하고 동절기에도 습도가 높은 날이 많지만 영하기온으로 떨어지는 날이 드물고 적설량도 매우 적은 편임.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어서는 나고야의 하절기는 통상 5월말부터 시작하여 9월말까지 계속 됨. 분지 지형의 특성상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짐. 봄, 가을은 짧은 편이며 대부분의 현지 주택에 온돌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동절기에는 한국보다 춥게 느껴짐.

바. 후쿠오카 지역 기후

큐슈는 위도가 대부분 제주도보다 낮은 지역에 위치하여 아열대성 기후를 보임. 특히 한 때 일본 국내 신혼여행지의 메카였던 미야자키를 가보면 길가에 죽 늘어서 있는 야자수 나무가 남국의 정취를 물씬 풍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4계절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좀 더 온화한 편임. 겨울에도 눈이 내리는 경우는 드물어 큐슈 지역 사람들은 스키를 타기 위해서 혼슈로 가야만 함. 대신 화산이 많아 온천이 풍부한 탓에 추운 겨울에는 곳곳에서 따뜻한 온천을 즐길 수 있음. 바다로 둘러 쌓인 성답게 무더운 여름에는 바닷가에서 해상 스포츠를 마음껏 즐기고, 가을에는 단풍을 즐김. 온갖 꽃이 만발하는 봄에는 특히 벚꽃이 많은 이로부터 사랑 받음.

주요도시 월 평균기온

(단위: °C)

도시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간
삿포로	-4.9	-4.2	-0.4	6.2	12.0	15.9	20.2	21.3	16.9	10.6	4.0	-1.6	8.0
센다이	0.9	1.3	4.2	10.0	14.9	18.4	22.2	23.9	20.0	14.3	8.7	3.7	11.9
도쿄	4.7	5.4	8.4	13.9	18.4	21.5	25.2	26.7	22.9	17.3	12.3	7.4	15.3
나고야	3.6	4.3	7.5	13.5	18.0	21.7	25.6	26.8	22.8	16.9	11.4	6.2	14.9
오사카	5.6	5.8	8.3	14.5	19.2	22.8	27.0	28.0	24.1	18.3	12.7	7.8	16.2
히로시마	4.3	4.9	7.8	13.3	17.6	21.2	25.6	26.8	22.8	17.0	11.5	6.6	15.0
후쿠오카	5.7	6.4	9.3	14.2	18.4	22.0	26.7	27.3	23.4	17.8	12.7	8.1	16.0
나하	16.0	16.4	18.0	21.0	23.7	26.1	28.1	27.8	27.1	24.3	21.3	18.1	22.4

주요도시 월강수량

(단위: mm)

도시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간
삿포로	114	92	78	65	59	76	80	131	142	115	104	101	1,158
센다이	46	48	72	82	109	141	160	153	175	116	69	49	1,219
도쿄	54	63	102	128	148	181	125	137	193	181	93	56	1,460
나고야	50	61	98	153	162	210	218	170	209	121	74	48	1,575
오사카	51	60	100	145	141	213	192	103	165	114	73	42	1,400
히로시마	53	63	101	174	161	254	269	124	188	104	72	40	1,603
후쿠오카	80	74	94	145	144	273	273	177	186	100	79	65	1,690
나하	120	118	144	168	249	293	193	260	166	186	142	117	2,128

3. 도량형

일본의 도량형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터, 그램, 톤, 리터 등을 기본으로 사용함.

도량형 환산표는 다음과 같음.

길이

센티미터	미터	촌(寸)	척(尺)	간(間)	인치	피트	야드
1	0.01	0.33	0.033	0.0055	0.3937	0.0328	0.0109
100	1	33	3.3	0.55	39.37	3.2808	1.0936
3.0303	0.0303	1	0.1111	0.0167	1.193	0.0994	0.0331
30.303	0.303	10	1	0.1667	11.93	0.9942	0.3314
181.82	1.8182	60	6	1	71.583	5.9652	1.9884
2.54	0.0254	0.8382	0.0838	0.014	1	0.0833	0.0277
30.48	0.3048	10.058	1.0058	0.1676	12	1	0.3333
91.44	0.9144	30.175	3.0175	0.5029	36	3	1

미터	킬로미터	정(町)	리(里)	첸	마일	해리(海里)	英尺
1	0.001	0.0092	0.0003	0.0497	0.0006	0.0005	0.0005
1000	1	9.1667	0.2546	49.71	0.6214	0.54	0.5396
109.1	0.1091	1	0.0277	5.4229	0.0678	0.0589	0.0588
3297.3	3.2973	36	1	194.22	2.4403	2.1206	2.1192
20.1	0.0201	0.1844	0.0051	1	0.0125	0.0108	0.0108
1609.3	1.6093	14.752	0.4098	80	1	0.8689	0.8684
1852	1.852	16.977	0.4716	92.063	1.1508	1	0.9994
1853.2	1.8532	16.986	0.4719	92.122	1.1515	1.006	1

면적

평방센티미터	평방미터	평방촌(寸)	평방척(尺)	평(坪)	평방인치	평방피트	평방야드
1	0.0001	0.1089	0.0011	0.0001	0.155	0.0011	0.0003
10000	1	1089	10.89	0.3025	1550	10.764	1.196
9.1827	0.0009	1	0.01	0.0002	1.4233	0.0098	0.0001
918.27	0.0918	100	1	0.0277	142.33	0.9884	0.1098
33058	3.3058	3600	36	1	5124.1	35.584	3.9538
6.4516	0.0006	0.7026	0.007	0.0002	1	0.0069	0.0007
929.03	0.0929	101.17	1.0116	0.0281	144	1	0.1111
8360.9	0.836	910.51	9.1051	0.2529	1296	9	1

평방킬로미터	아르	헥타	묘(畝)	정(町)	평방리	에이커	평방마일
1	10000	100	10083	100.83	0.0648	247.11	0.3861
0.0001	1	0.01	1.0083	0.01	-	0.0427	-
0.01	100	1	100.83	1.0083	0.0006	2.4711	0.0038
-	0.9917	0.0099	1	0.01	1542.4	0.0245	-
0.0099	99.173	0.9917	100	1	0.0006	2.4507	0.0038
15.424	154234	1542.4	-	1555.2	1	3811.3	5.9552
0.004	40.467	0.4047	40.804	0.4080	0.0002	1	0.0015
2.59	25900	259	2611.5	261.15	0.1679	640	1

체적

입방센티미터	입방미터	입방촌	입방척	입평	입방인치	입방피트	입방야드
1	-	0.3593	-	-	0.061	-	-
-	1	35937	35.937	0.1664	61027	35.316	1.308
27.826	-	1	0.001	-	1.6981	0.0009	-
27826	0.0278	1000	1	0.0046	1698.1	0.9827	0.0364
-	6.0105	-	216	1	-	212.26	7.8611
16.387	-	-	0.0006	-	1	0.0005	-
-	0.0283	1017.5	1.0175	0.0047	1728	1	0.3703
-	0.7645	27474	27.474	0.1272	46656	27	1

리터	평방척	합(合)	승(升)	두(斗)	英갤론	美갤론	美부셀
1	0.0359	5.5435	0.5543	0.0554	0.2202	0.2642	-
27.826	1	154.25	15.425	1.5424	6.1278	7.3513	-
0.1803	0.0065	1	0.1	0.01	0.0397	0.0476	-
1.8039	0.0648	10	1	0.1	0.3972	0.4765	-
18.039	0.6482	100	10	1	3.9725	4.7656	-
4.5459	0.1631	25.173	2.5173	0.2517	1	1.201	-
3.7854	0.1359	20.983	2.0983	0.2098	0.8327	1	-
35.239	1.2662	195.35	19.535	1.9535	7.7602	9.2995	1

중량

킬로그램	톤	문(匁)	관(貫)	근(斤)	푼드	英톤	美톤
1	0.001	226.67	0.2666	1.6666	2.2046	0.0009	0.0011
1000	1	-	266.69	1666.6	2204.6	0.9842	1.1023
0.0037	-	1	0.001	0.0062	0.0082	-	-
3.75	0.0038	1000	1	6.25	8.2673	0.0036	0.0041
0.6	0.0006	160	0.16	1	1.3227	0.0006	0.0007
0.4536	0.0004	120.95	0.1209	0.7559	1	0.0004	0.0005
1016	1.016	-	270.94	1693.4	2240	1	1.12
907.17	0.9071	-	241.91	1511.9	2000	0.8928	1

그램	문(匁)	캐럿	그레인	온스
1	0.2667	5	15.432	0.0352
3.75	1	18.75	57.871	0.1322
0.2	0.0533	1	3.0864	0.007
0.0674	0.0173	0.337	1	0.0023
28.349	7.5598	141.74	437.5	1

4. 출입국/비자

가. 여권 발급기관

- 서울: 노원구청, 서초구청, 종로구청, 영등포구청, 동대문구청, 강남구청, 구로구청, 송파구청, 마포구청, 성동구청
- 지방: 각 광역시청 및 도청 여권계

나. 여권 신청서류

- 여권 발급신청서 (각 지역 여권발급창구)
- 여권용 칼라사진 2 매 (여권용 35mm X 45mm / 6 개월 이내 촬영, 뒷 배경 흰색, 얼굴 양쪽 끝부분 윤곽 및 귀 부분 보이게 촬영, 어깨까지만 촬영 / 얼굴길이 25mm ~ 35mm)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군인신분증)
- 수수료
 - 복수여권 : 유효기간 10년 - 55,000 원 / 유효기간 5년 - 47,000 원 / 유효기간 5년 미만 - 15,000 원
 - 단수여권 : 20,000 원
- 구 여권
- 도장 (본인 직접 신청 시 사인도 가능)
- 1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여권발급동의서(부 또는 모의 인감날인)와 부 또는 모의 인감 증명서 필요
- 병역의무자의 경우 병역관계서류

다. 비자 발급기관

-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에 따라 다음의 대사관 또는 총 영사관에서 신청가능
- 재 대한민국 일본국 대사관 (서울소재): 서울, 인천, 대전, 광주, 경기도 강원도, 충청 남북도, 전라남북도
- 재 부산 일본국 총 영사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 재 제주 일본국 총 영사관: 제주도
-

라. 일본비자 신청서류

- 여권 (유효기간이 최소한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발급 신청서 (일본대사관 영사부에 비치되어 있음) 1통
- 사진 (칼라, 상반신, 4.5×4.5, 반드시 최근 3개월 이내 촬영된 것) 1매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1통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매
- 신원보증서 (신청인의 신원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서류)
 - 직장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 증명원
 - 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
 - 무직자의 경우 보증인 서류 및 관계증명용 서류
- 위 서류 중 만 18세 미만인 경우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은 필요하지 않으며 학생인 경우 여권, 사진, 신청서, 재학증명서만 있으면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한 일본대사관(www.japanem.or.kr) 홈페이지의 비자 발급 안내 참조 요망

마. 비자 필요여부 및 특이사항

- 기본적으로 하기와 같은 비자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며, 90일 이내 단기체재를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기를 희망 하는 경우 비자를 취득하지 않아도 되며, 본 조치는 취업 의도를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음. 구체적으로는 아래 1~12 에 해당하는 자가 사증면제 대상임.

* 사증면제 조치 대상자

- ① 통과, 관광, 오락, 보양을 목적으로 하는 자
- ② 협의회, 콘테스트 등에 아마추어로서 참가하려는 자 (‘아마추어로서의 참가’의 의미는 참가자가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를 가리키며, 주최자가 부담하는 도항비, 체재비 및 입상자에 대한 상품 등은 보수로 간주 하지 않음)
- ③ 지인, 친구, 친족 등을 방문하려는 자 (병문안, 관혼상제 등의 출석을 포함)

- ④ 견학, 시찰 등의 목적을 가진 자 (예를 들어, 공장 등의 견학, 모범 시 등의 시찰을 행하는 자)
 - ⑤ 민간단체 주최의 강습, 회의 등에 민간인으로서 참가하는 자
 - ⑥ 일본에 기반을 갖지 않은 상태로 상담, 계약조인, 업무연락, 애프터서비스, 선전, 시장조사, 기타 모든 단기상용의 목적을 가진 자
 - ⑦ 단기 사내 강습을 받으려는 자
 - ⑧ 참배, 종교회의참가, 교회설립에 관한 업무연락 등을 행하려는 목적으로서 단기간 체재하려는 자
 - ⑨ 보도, 취재 등의 일시적 용무 (일본에 방문하는 국, 공빈 또는 스포츠 선수 등과 동행해서 행하는 취재활동 등)를 목적으로 하는 자
 - ⑩ 자매도시 또는 학교의 친선방문자 (친선사절이 행하는 홍보, 선전을 포함)
 - ⑪ 단기간의 어학연수 (어학연수를 90 일 이내에 수료하고, 또한 해당연수 수료 후 계속 해서 상급코스 등을 수강할 예정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 (이러한 예정이 있는 경우 에는 '취학'의 재류자격 취득 필요)
 - ⑫ 기타 단기체재를 하려는 자. 예를 들어, 회사의 설립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자, 단기 간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자, 대학 수험자, 외국법 사무 변호사가 되기 위한 승인을 받는 등의 수속을 위해 체재하는 자 등
- 취업, 유학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분은 비자가 필요. 단, 외교 혹은 관용(공용)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이, 외교 혹은 공무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는 종래부터 비자가 면제
 - 위의 기간 중이라도 한국인이 단기체재 비자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기존과 동일한 절차로 신청, 심사 후 기존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함
 - 관광 목적의 관광비자신청 (15 일/ 90 일)은 15 일 관광 멀티플 (제한 1 년 내 15 일씩 출. 입국을 몇 번이고 할 수 있음. 단, 관광에 한해서만)과 3 개월 단기체류비자 (1 년 에 1 번, 3 개월 동안 일본에 머물 수 있음)
 - 출장이나 사업으로 15 일 초과 체재할 경우 상용비자
 - 상사주재원의 재류기간은 3 년, 1 년, 6 개월 또는 3 개월이며 주재원 가족의 재류 기간은 주재원 본인과 동일함
 - 6 개월 이상 일본에 체재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을 필하여야 함
 - 외국인 등록절차 및 수속
 - 시기 : 일본 입국 일부터 90 일 이내
 - 담당기관 : 거주지의 市區町村 사무소
 - 제출서류 : 여권, 외국인 등록신청서 1 부, 사진 2 매

- 재류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비자연장 필요
 - 관할지방 입국관리국에서 만료일 1개월 전부터 가능
 - 필요서류: 여권,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서 2부, 신청이유서 1부
 - 신원보증서 1부, 재류기간 갱신 필요증명서류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신원 보증인의 보증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재직증명서, 납세증명서 등) 1부
- 재입국 허가
 - 장기비자를 가지고 일본에 체류하는 도중 일시 출국할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소에서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함. 동 허가를 받지 않고 일본을 출국하는 경우 종래에 가지고 있는 비자는 자동 취소되므로 출국 후 재 입국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받아야 함
- 필요서류: 외국인 등록 증명서, 여권
- 재입국 허가의 종류에는 2종이 있음
 - 싱글 : 1회 한 (수수료 : 3,000 엔)
 - 멀티플 : 다 회 출국 및 재 입국 가능(6,000 엔)
- 재 입국 허가 후 6 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재 입국 허가는 무효가 되며 출국 후 1년 이내에 재입국하지 않아도 무효가 됨

바. 출입국 절차 및 유의사항

- 출입국 시 특별한 어려움은 없음. 일본어가 불가능해도 무관
- 면세범위를 초과하거나 별송품이 있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그 외의 여행자는 구두로 신고함. 용지는 항공기내, 선내, 세관에 준비되어 있음
- 일본 세관의 통관 검사는 비교적 관대한 편임. 세관원은 매우 수상한 인물에 한해 수화물의 개방을 요구함. 고가의 제품이라도 일본 현지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되는 개인용 물품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음
- 단, 불법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엄격히 단속하며 특히 마약류를 상시 단속함

휴대품 면세범위

품명	수량 또는 가격
주류	3병 (760ml를 한 병으로 계산)
담배	권련 : 200개피 / 여송연 : 50개피
향수	2온스 (56ml)
기타	상기 품목을 포함, 개인당 200,000엔(원화 약 2,000,000원)까지 면세 대상임

- 다음 물품은 법률에 의해 일본으로 반입이 금지되어 있음. 일본 당국은 하기 물품에 대해 엄격히 단속하고 있으므로 절대로 소지해서는 안 됨
 - 마약, 각성제류
 - 총기, 도검류
 - 외설잡지, 테이프류
 - 야생 동물류, 식물, 의약품 등

5. 환율/환전

가. 개요

- 일본 화폐단위는 엔(Yen)이며 표시기호는 ¥임.
- 화폐는 주화와 지폐로 구성되어 있음. 주화는 1, 5, 10, 50, 100, 500 엔 등 6 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폐는 1,000, 2,000, 5,000, 10,000 엔권 등 4 종임. 2004년 11월 1일부터 10,000 엔권, 5,000 엔권, 1,000 엔권의 신권이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음. 새로운 은행권의 발행 후에도 현재의 은행권(구 지폐)도 계속해서 유효함.
- 일본은행은 2000년에 500 엔권 주화의 디자인을 변경했고 2000년 7월에는 2000 엔권 지폐를 발행했음.
- 중앙은행 발행 화폐 이외에 한국과 같은 고액권 자기앞수표는 사용되지 않고 T/C의 경우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만 통용됨.
- 당좌수표의 경우 개인 당좌수표는 없으며 법인발행 수표만 통용됨. 엔달러 환율은 2006년 12월 26일 기준 USD 1 당 118.87 엔, 엔원화 환율은 100엔당 781.82 원임.
- 일본 출장 및 여행 출발 전 한국에서 미리 원화를 엔화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함. 일본의 환전업무는 자유화되어 있고 출장자의 경우 은행, 호텔 등에서 주로 환전하고 있음.

나. 환전 가능한 장소

1)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지역

- 외환은행 도쿄 지점, 오사카 지점, 후쿠오카 지점

2) 나고야지역

- 미쓰비시도쿄 UFJ 은행 (원→엔, 엔→원)
 - 중부국제공항 출장소 (07:30-20:00 / 연중무휴),
 - 나고야지점 (09:00-15:00 / 토. 일요일 휴무)
- 미즈호 은행 (원→엔)
 - 나고야지점, 나고야 중앙지점, 나고야역전지점, 나고야빌딩지점, 오조네 지점 이찌노미야 지점, 오카자키 지점, 토요하시 지점 (09:00-15:00, 토. 일요일 휴무)
- 슈쿄은행 (원→엔, 엔→원)
 - 본점영업소 (11:45-14:30, 토. 일요일 휴무)
- World Currency Shop (도쿄미쓰비시 UFJ 은행 계열 외화/환전취급점) (원→엔, 엔→원)
 - 나고야역전 메르사점 (10:00-18:00, 토 11:00-17:00, 일요일 휴무)
 - 나고야점 (09:00-18:00, 토 11:00-17:00, 일요일 휴무)
 - 사카에 메르사프랏츠점 (11:30-18:30, 토 11:30-17:00, 일요일 휴무)

- 우체국 (원->엔, 엔->원)
- 나고야중앙, 치쿠사, 도요타, 나고 대학 내, 나고야 역 앞 분실(分室)

나고야 지역 해외발행 신용카드(PLUS, CIRRUS) 대응 ATM기 설치장소

설치장소	층수	주소	영업시간
UFJ 카드			
나고야힐튼호텔	1F	名古屋市中区栄 1-3-3	7:00~23:00
나고야관광호텔	1F	名古屋市中区錦 1-19-30	7:00~23:00
나고야니시키워싱턴호텔 프라자	2F	名古屋市中区錦 3-12-22	24시간
웨스턴호텔 나고야캐슬	1F	名古屋市西区樋の口町 3-19	7:00~23:00
메이테츠 메르사	B1F	名古屋市中村区名駅 1-2-4	10:00~20:00
테루미나 CD코너	7F	名古屋市中村区名駅 1-1-2 名古屋ターミナルビル	9:00~21:00
메이테츠 백화점	1F	名古屋市中村区名駅 1-2-1	월~토 10:00~19:30 일, 휴일 10:00~19:00
유니몰	B1F	名古屋市中村区名駅 4-5-26 先ユニモール地下街	8:00~20:30
JR나고야 타카시마야	10F	名古屋市中村区名駅 1-1-4	10:00~19:30
중부국제공항	2F	常滑市セントレア 1-1	7:00~24:00
미쓰이 쓰미토모 VISA카드			
JR나고야 타카시야마	10F	名古屋市中村区名駅 1-1-4	10:00~19:30
선로드 나고야서비스센터	B1F	名古屋市中村区名駅 4-7-25 名古屋地下街サンロード	7:00~21:00
JCB카드			
도카이 영업부	1F	名古屋市中区新栄町 2-13 第一生命ビル	9:00~17:00
시티뱅크			
나고야지점	1F, 8F	名古屋市中区栄 3-14-15 スギビル 1F・8F	24시간
나고야역 출장소	33F	名古屋市中村区名駅 1-1-4 セントラルタワー 33F	평일 10:00~19:00 토요일 10:00~16:00
중부국제공항	2F	常滑市セントレア 1-1	24시간
AEON 크레딧 서비스			
AEON ATSUTA 쇼핑센터	1F	名古屋市熱田区六野 1-2-11	9:00~23:00
AEON 월드 데스트 나고야	1F	名古屋市中区錦 3-4-6 桜通大津第一生命ビル	00:10~23:45
중부국제공항	2F	常滑市セントレア 1-1	00:05~23:50
기타 설치장소			
자스코 모리야마점	1F	名古屋市守山区大字吉根字笹ヶ根 559-2	9:00~22:00
자스코 세토미즈노점	1F	瀬戸市本郷町 68	9:00~23:00
다이아몬드시티 원더시티	1F	名古屋市西区二方町 40	7:00~22:00

자스코 도요타점	1F	豊田市広路町1-1	00:00~23:45
자스코 타카하시점	-	豊田市東山町1-5-1 (店内オレンジ駐車場前)	9:00~21:00
지하철 혼고역	-	名古屋市名東区本郷2-132	00:15~23:50
AEON 아리마쓰 쇼핑센터	2F	名古屋市緑区字有松町200	9:00~23:00

6. 물가정보

< 일반사항 >

일본은 90년대 들어 거품경제가 꺼지면서 오랫동안 지속된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층은 고급지향의 일부 부유층과 소비 지출을 가능하면 꺼리는 일반 대중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다. 예전에 일본 국민의 80%를 차지한다고 일컬어지던 중산층도 지금은 신흥 부유층으로 상승하는 층과 니트(NEET)나 프리터 등으로 전락하는 빈곤층으로 세분화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시내 곳곳에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거의 모든 물품을 100엔으로 구입할 수 있는 100엔숍, 중고용품을 재 판매하는 리사이클숍 등이 눈에 띈다. 한 마디로 15년 전에 비하면 중국산을 비롯하여 저렴한 외국산 제품이 많이 수입되고 있고 대량 생산기술이 발달한 탓에 일반소비생활의 물가 수준은 오히려 낮아졌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고비용 사회구조를 띄는 일본에서는 아무리 해도 낮아지지 않는 물가가 있는데 바로 인건비와 교통비 부분이다. 택시는 말할 것도 없고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조차도 우리나라 보다 3배-5배는 비싸다는 느낌이다. 고속도로통행요금 등도 우리나라 보다 훨씬 비싸다. 다만 기름값 만은 세금구조의 차이 때문인지 우리나라 보다 10% 가량 싸다.

한 편 인건비와 관련해서도 각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파견직 사원이나 계약직 사원을 활용하거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경영합리화를 위해 힘쓴 결과 상당히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높은 교통비용 부문만은 사회적 구조 조정과 합리화가 더욱 진척되기 전까지는 상당기간 지속되리라 본다.

한 편 食 부문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음식점에서 생맥주 한 잔(350ml-500ml) 당 500-600엔 가량을 받고 있고 일반 서민이 맥주 한두 잔을 포함하여 간단히 음주 식사를 하는 경우 1인당 2,000-3,000엔 수준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가격의 상한선을 둘 수 없는 최고급 레스토랑도 셀 수 없이 많고 반대로 냉동식품, 라면 등의 경우에는 한 끼니를 100-200엔으로 때울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은 소비가 양극화로 치 달으며 물가도 역시 값비싼 소비 지향과 염가 지향의 수요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화되어 일률적으로는 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수도권 도쿄와 지방 도시 - 예컨대 후쿠오카, 나고야 등 - 간의 물가 수준은 차이가 커서 동일한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20-30% 내외의 가격 차이를 보인다.

□ 도시 : 도쿄 (일본)			- 환율 : US\$1 = ¥119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 의복			7. 잡화	
1.1	남성양복(1벌, 순모100%)	820.59	7.1	구두(1켤레, 소가족)	220.59
1.2	넥타이(1개, 실크100%)	75	7.2	치약(150g, 1개)	2.5
1.3	와이셔츠 (1벌, 면100%, 긴팔, 흰색, 현지브랜드)	105.88	7.3	칫솔(1개)	2.5
1.4	양말(1켤레, 면100%, 현지산)	8.82	7.4	면도기(1세트)	8.38
1.5	코트(1벌, 롱코트, 추동)	1,058.82	7.5	건전지(1세트, 1.5V AA)	4.62
1.6	스타킹(1켤레, 밴드타입, 현지브랜드)	4.41	7.6	화장지(1통, 300매)	2.5
1.7	청바지(Levi's)	150.88	7.7	비누(1개)	2.21
	2. 식료품			8. 사무용품	
2.1	쇠고기(1KG, 안심)	8.82	8.1	복사용지(1권, 250매, A4)	6.61
2.2	돼지고기(1KG 구이용)	2.03	8.2	볼펜(12개)	3.02
2.3	닭고기(1KG, 생 닭)	7.9	8.3	연필(12개, HB 사무용품)	3.76
2.4	쌀(1KG, Short Grain)	2.92	8.4	공CD(1통, 12개입, 700MB)	9.31
2.5	밀가루(1KG)	1.5	8.5	휴대폰(범용형)	174.71
2.6	설탕(1KG, 백설탕)	1.08	8.6	휴대폰사용료(1개월, 기본)	40.59
2.7	계란(10개)	2.65	8.7	인터넷가설비(1회최초, 1회설치)	17.65
2.8	감자(1KG, 현지 산)	3.34	8.8	인터넷사용료(1개월, 기본)	24.71
2.9	미네랄워터(1.5ℓ, Evian 1Pet)	2.21		9. 자동차	
	3. 한국식품		9.1	자동차(2000cc, 기본, A/T)	12,310.92
3.1	고추장(1Kg)	5.82	9.2	엔진오일(1L)	14.71
3.2	된장(1Kg)	3.97	9.3	휘발유(1L)	1.18
3.3	라면(1개)	0.5	9.4	자동차등록비(2,000cc)	705.88
3.4	설령탕류(1인분, 설령탕, 곰탕등)	10.08	9.5	자동차보험료 (2,000cc, 1년, 신규종합보험)	1198.9
3.5	불고기(1인분, 200g)	8.40		10. 대중교통	
3.6	삼겹살(1인분, 200g)	6.72	10.1	지하철(1구간)	1.09
3.7	김치찌개(1인분)	8.4	10.2	시내버스(1구간)	1.68
	4. 기호식품		10.3	택시(기본요금)	5.55
4.1	햄버거(1개)	2.1	10.4	택시(추가요금/Km)	1.34
4.2	피자(1판)	28.24		11. 공공서비스	
4.3	코카콜라(1캔, 250ml)	1.01	11.1	전화개통비 (1회선, 가입비, 장치비 포함)	39.16
4.4	맥주(수입산, 1캔, 355ml)	1.74	11.2	전화사용료(월 기본요금)	14.12
4.5	담배(수입산, 1갑)	2.52	11.3	전화사용료(3분, 시내평상)	0.07
4.6	위스키(1병, 750ml)	18.32	11.4	공중전화(3분, 시내평상)	0.25
4.7	커피(1병, 175g)	7.52	11.5	국제전화(현지-서울, 3분, 평상)	0.39
	5. 주택(150㎡)		11.6	국내우편(일반편지, 1통, 2~3페이지)	0.67
5.1	[임차]중급아파트 (침실3개미만, Semi-finished)	4,369.75	11.7	국제우편 (일반편지1통, 10g이하, 현지-서울)	0.76
5.2	[임차]중급단독주택 (대지 500㎡ 및 침실 4개미만)	4,159.66	11.8	특급우편 (DHL, 1개, 1Kg 이하, 현지-서울)	58.82

5.3	중개수수료(월 임차료의 %)	100%	11.9	전기요금(1KW/h, 가정용)	0.13
5.4	임차보증금(월 임차료의 %)	200%	11.10	수도요금(1㎡, 가정용)	7.23
	6. 가전제품		11.11	가스요금(1㎡, 가정용)	1.09
6.1	TV(29인치, 칼라, 범용)	359.66			
6.2	VTR(6헤드, 범용)	67.06			
6.3	DVD Player(범용, 비디오콤보)	75.46			
6.4	전자레인지	149.58			
6.5	냉장고(500L급, 가정용)	1,603.36			
6.6	에어컨(400W급, 가정용)	712.			

□ 도시 : 도쿄(일본)			- 환율 : US\$1 = ¥119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2. 교육			18. 노동여건	
12.1	외국인학교(주재국내 외국인학교 수)	40개교	18.1	법정최저임금(월급여)	6
12.2	외국인학교(등록금, American School)	없음	18.2	상여금(월급여대비%, 연간)	440~00%
12.3	외국인학교(기부금)	없음	18.3	사회보장부담금 (월급여대비%, 연간)	12.5%
12.4	외국인학교(수업료, 초등1년간)	16,302.52	18.4	법정휴가일수(연간)	10~20일
12.5	외국인학교(수업료 중등 1년간)	16,302.52	18.5	출산휴가일수(연간)	6주간
12.6	외국인학교(수업료 고등1년간)	16,302.52	18.6	연간국경일	13일
	13. 레저.오락		18.7	토요 휴무(실시여부)	실시
13.1	골프장그린피(비회원, 18홀, 1라운드)	132.77	18.8	노동쟁의 시 냉각기간일수	없음
13.2	골프장회원권 (18홀, 매매가능, 종신 양도가능)	13,025.21	18.9	주당 법정근무시간	40시간
13.3	골프공(1타)	52.94		19. 사업여건	
13.4	골프채(Callaway, 드라이버 1개)	436.76	19.1	법정최저자금	0.01
13.5	DVD 타이틀(1개, 최신영화)	21.68	19.2	회사설립 변호사 비용	2,521.01
13.6	영화관람료 1회(개봉관, 성인최신)	10.08	19.3	외국인업체 세제혜택 (법인세)	없음
	14. 의료.약품		19.4	외국인업체 세제혜택 (개인소득세)	없음
14.1	의료보험료 (4인가족, Full Cover, 치과제외)	2,811.33	19.5	법인은행대출금리(1년)	1.375%부터
14.2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초진)	35.71			
14.3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초진)	15.38			
14.4	치과(스켈링, 1회)	44.12		※ 19.1 최저 자본금 완화 기준 ¥ 1	
14.5	약품(해열제, 아스피린, 10정)	2.73			
	15. 신문.방송.잡지				
15.1	현지신문(1개월, 현지유력지)	32.77			
15.2	한국신문(1개월)	42.02			
15.3	케이블TV(1개월, 기본시청료)	20.29			
15.4	잡지(1부, Time 혹은 Newsweek)	3.36			

	16. 호텔			
16.1	특급호텔 (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249.18		
16.2	특급호텔 (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120.65		
16.3	중급호텔 (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141.18		
16.4	중급호텔 (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107.61		
16.5	조식(특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17.65		
16.6	조식(중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6.72		
	17. 임금			
17.1	사무실직원(월급여, 대졸초임)	1,638.66		
17.2	사무실비서(월급여, 학력불문)	1,478.99		

□ 후쿠오카지역 물가수준 (1US\$=¥110 기준)

항목	기준품목	금액(USD)	품목내역
식 품 기 호 품	김치찌개	8.20	1인분
	햄버거	2.40 , 5.52	맥도널드 빅맥1개, 셋트
	수입담배	2.73	말보로 라이트1갑20개피
주 택 사 무 실	고급아파트 월 임차료	1,818~4,545	시내, 신축, 100m2/월
	중급아파트 월 임차료	636~1,272	후쿠오카 시내, 신축2~3LDK/월
	사무실 임차료	455 /909~1,273	하카타구 20m2 / 50m2
교 통 차 량	자동차 2000cc	17,273	현대JM, 오토, 에어컨
	시내버스 요금	0.9	후쿠오카시내 1구간
	택시 요금	5.4 / 5.55	소형 / 중형 기본요금
	택시 요금	0.73	추가요금, 2분15초(365m) 당
통 신 전 기	공중전화요금	0.09 , 0.44	근거리1분, 장거리1분
	국제전화요금	0.45~1.09	일본->한국, 1분당
	전기요금	2.70	큐슈 전력, 10암페어1kwh
	인터넷사용료	27.27~45.45	1개월, ADSL 100M
교 육	사립학교 수업료	2,727~9,090 (평균5,454)	수도권 사립초등학교 연간수업료
	외국인학교 수업료	578	재일한국학교 월간수업료
레저, 오락	골프장 그린 피	100	비회원, 18홀1라운드, 평일
	영화 관람료	16.36, 13.63	성인요금, 학생할인요금
의 료	병원진료비	15~20	의료보험적용(본인부담30%), 내과초진기준
호 텔	특급호텔 숙박비	136 ~182	싱글1박
	보통호텔 숙박비	63.63 ~90.9	싱글1박, 조식포함
임 금	사무실비서 월 급여	1,364~1,545	학력 불문, 초임
	사무실직원 월 급여	1,636~1,818	대졸, 초임(수당별도)

자료원 : 후쿠오카 무역관 자체 조사

7. 교통/통신

가. 항공편

- 대한항공(KAL), 아시아나항공(OZ), 일본항공(JAL) 등 6 개 항공사가 인천, 부산, 제주와 일본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정기항로에 취항. 도쿄 나리타 국제공항은 KAL(대한항공) UAL(유나이티드 항공), OZ(아시아나항공), JAL(일본항공), ANA(전일본 공수) NWA(노스웨스트) 등이 취항하고 있으며, 김포공항과 도쿄 하네다공항을 연결하는 정기 편에는 KAL(대한항공), OZ(아시아나항공) ANA(전일본공수), JAL(일본항공) 등이 있음
- 항공임은 시기 및 지역에 따라 상이하나 왕복기준 30~50 만원 사이임
 - * 연휴기간에는 60만원~70만원 수준으로 할증되는 경우도 있음

한국 → 일본

서울 출발 (인천국제공항)			
도착지	항공사	운항일	소요시간
도쿄 (東京)	KAL	매일	2시간
	ASIANA	매일	
	JAL	매일	
	ANA	매일	
	NWA	매일	
	UAL	매일	
오사카 (大阪)	KAL	매일	1시간 30분
	ASIANA	매일	
	JAL	매일	
	ANA	매일	
	UAL	매일	
나고야 (名古屋)	KAL	매일	1시간 30분
	ASIANA	매일	
	JAL	매일	
	ANA	매일	
후쿠오카 (福岡)	KAL	매일	1시간 5분
	ASIANA	매일	
	JAL	매일	
	ANA	매일	
삿포로 (札幌)	KAL	매일	2시간 35분
	JAL	매일	
나가사키 (長崎)	KAL	월, 토	1시간 20분
가고시마 (鹿児島)	KAL	수, 금, 일	1시간 20분
니이가타 (新潟)	KAL	매일	1시간 50분
	JAL	매일	
구마모토 (熊本)	ASIANA	월, 목, 토	1시간 20분
센다이 (仙台)	ASIANA	매일	2시간
고마츠 (小松)	KAL	월, 수, 금, 토	1시간 35분

	JAL	월, 수, 금, 토	
히로시마 (広島)	ASIANA	매일	1시간 20분
	JAL	화, 목, 일	
다카마츠 (高松)	ASIANA	월, 수, 토	1시간 20분
아오모리 (青森)	KAL	수, 금, 일	2시간 20분
아키다 (秋田)	KAL	월, 목, 토	2시간 15분
오카야마 (岡山)	KAL	매일	1시간 30분
오이타 (大分)	KAL	금, 일	1시간 30분
토야마 (富山)	ASIANA	월, 수, 토	1시간 55분
오키나와 (沖縄)	ASIANA	수, 목, 일	2시간 5분

부산 출발 (김해국제공항)			
도착지	항공사	운항일	소요시간
도쿄 (東京)	KAL	매일	1시간 40분
	JAL	매일	
	NWA	매일	
오사카 (大阪)	KAL	매일	1시간 10분
	ASIANA	매일	
	JAL	매일	
후쿠오카 (福岡)	KAL	매일	1시간 10분
	ASIANA	금, 일	
나고야 (名古屋)	KAL	매일	1시간 20분
	JAL	매일	
코마츠 (小松)	KAL	금, 토	1시간 30분

제주 출발 (제주국제공항)			
도착지	항공사	운항일	소요시간
도쿄 (東京)	KAL	월, 수, 금, 일	3시간 10분
오사카 (大阪)	KAL	매일	1시간 35분
	ASIANA	목, 일	
나고야 (名古屋)	KAL	수, 금, 일	1시간 40분

일본 -> 한국

서울 도착 (인천국제공항)			
출발지	항공사	운항일	소요시간
도쿄 (東京)	KAL	매일	2시간
	ASIANA	매일	
	JAL	매일	
	ANA	매일	
	NWA	매일	
	UAL	매일	
오사카 (大阪)	KAL	매일	1시간 30분
	ASIANA	매일	

	JAL	매일	
	ANA	매일	
	UAL	매일	
나고야 (名古屋)	KAL	매일	1시간 30분
	ASIANA	매일	
	JAL	매일	
	ANA	매일	
후쿠오카 (福岡)	KAL	매일	1시간 5분
	ASIANA	매일	
	JAL	매일	
	ANA	매일	
삿포로 (札幌)	KAL	매일	2시간 35분
	JAL	매일	
나가사키 (長崎)	KAL	월, 토	1시간 20분
가고시마 (鹿児島)	KAL	수, 금, 일	1시간 20분
니이가타 (新潟)	KAL	매일	1시간 50분
	JAL	매일	
구마모토 (熊本)	ASIANA	월, 목, 토	1시간 20분
센다이 (仙台)	ASIANA	매일	2시간
고마츠 (小松)	KAL	월, 수, 금, 토	1시간 35분
	JAL	월, 수, 금, 토	
히로시마 (広島)	ASIANA	매일	1시간 20분
	JAL	화, 목, 일	
다카마츠 (高松)	ASIANA	월, 목, 토	1시간 20분
아오모리 (青森)	KAL	수, 금, 일	2시간 20분
아키다 (秋田)	KAL	월, 목, 토	2시간 15분
오카야마 (岡山)	KAL	매일	1시간 30분
오이타 (大分)	KAL	금, 일	1시간 30분
토야마 (富山)	ASIANA	월, 목, 토	1시간 55분
오키나와 (沖縄)	ASIANA	월, 수, 금	2시간 5분

부산 도착 (김해국제공항)			
출발지	항공사	운항일	소요시간
도쿄 (東京)	KAL	매 일	1시간40분
	JAL	매 일	
	NWA	매 일	
오사카 (大阪)	KAL	매 일	1시간10분
	ASIANA	매 일	
	JAL	매 일	
후쿠오카 (福岡)	KAL	매 일	1시간10분
	ASIANA	금, 일	
나고야 (名古屋)	KAL	매일	1시간20분
	JAL	매일	

제주 도착 (제주국제공항)			
출발지	항공사	운항일	소요시간
도쿄(東京)	KAL	월, 수, 금, 토	3시간10분
오사카 (大阪)	KAL	매일	1시간35분
	ASIANA	월, 금	
나고야(名古屋)	KAL	월, 수, 금	1시간40분

나. 선박편

운항구간	선사명	운항수	소요시간	문의처
부산-시모노세키	부관훼리	매일 1편	12시간 30분	TEL) 051-463-3161 ~ 9 02-738-0055
부산-오사카	팬스타라인 (팬스타드림호)	매일 1편	18시간	TEL) 051-468-0501 02-779-4011
부산-후쿠오카	한국고속해운 (비틀/제비)	매일 3-4편	2시간 55분	TEL) 051-465-6111 02-730-8666
	미래고속	매일 2-3편	2시간 55분	TEL) 051-441-8200 02-725-1101
	고려훼리 (뉴카멜리아호)	매일1편	16시간 30분	TEL) 051-466-7799 02-775-2323
부산-히로시마	부관훼리 (은하호)	매일1편	16시간 30분	TEL) 051-463-3161 ~ 9 02-738-0055

주: 여수-후쿠오카, 제주-나가사키 정기 훼리가 취항 중

다. 일본 현지 교통기관 이용방법

1) 철도/지하철

- 전철을 탈 경우에는 먼저 표를 자동판매기로 구입함. 보통 판매기 위쪽에 노선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역의 이름과 요금을 알 수 있음. 목적지까지의 표를 구입한 다음에 개찰구 통과함. 단, 특급권, 좌석 지정권은 자동판매기로 구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역의 매표소에서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2) 버스

- 버스 중에는 정액요금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과 승차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것 2 가지가 있음. 정액요금 버스인 경우 버스 앞쪽 문에서 타고 운전석 옆에 있는 요금함에 돈을 투입함. 승차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버스인 경우 대개 버스 가운데 부분에 있는 문으로 타고 정류장 번호표를 받음. 하차 정류장을 알려주는 안내에 따라 버스 안에 있는 버튼을 눌러 내릴 준비를 함. 내릴 때 운전석 위쪽에 있는 번호표 번호에 맞는 요금 금액을 확인하고 운전석 옆에 있는 요금함에 돈을 투입함

3) 택시

- 앞 유리 왼쪽에 있는 표시등에 빨간색 글자로 “空車” 라고 쓰여 있는 택시는 탈 수 있음. 달리는 택시의 경우 손을 들면 그 택시를 세운 다음, 운전기사가 왼쪽 뒷문을 자동으로 열어주면 승차함. 행선지를 운전기사에게 말하고 내릴 때 요금을 지불. 일본에서는 운전기사에게 팁을 줄 필요가 없음.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승차 전 신용카드 지불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함

라. 일본 현지 전화 이용방법

1) 일본 국내 지역으로 전화

- 한국과 기본적으로 동일함. 전화번호는 시외국번(지역번호)-시내국번-가입자 번호로 되어 있음. 상대방이 시외국번(지역번호)이 같은 경우에는 시내국번과 가입자 번호만을 누르면 됨

2) 공중전화

- 동전 또는 텔레폰 카드를 사용. 텔레폰 카드에는 자기카드와 IC 카드가 있음. 녹색, 회색 공중 전화기는 자기 텔레폰 카드 및 동전의 사용이 가능함. 동전은 10 엔 또는 100 엔의 사용이 가능하나 100 엔 동전을 사용할 경우 잔돈은 반환되지 않음
- 자기 텔레폰 카드에는 500 엔권과 1,000 엔권이 있고, 1,000 엔권은 1,050 엔 분의 통화가 가능함. IC 마크가 있는 IC 공중 전화는 IC 텔레폰 카드를 사용함. IC 텔레폰 카드는 카드의 끝부분을 자른 뒤 포켓에 투입하여 다이얼을 함
- 텔레폰 카드는 자동판매기와 편의점 등에서 구입 가능
- 국제 통화 겸용 표시가 있는 공중 전화기는 국제전화 이용 가능

3) 시내전화

- 국번과 번호만 누르면 되며 요금은 1분에 10 엔 (원화 약 80 원, 2006년 4월 기준)

4) 시외전화

- 0 번을 포함한 해당지역번호(시외국번)를 누른 다음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누름
- 국내 콜렉트콜
- 먼저 106 을 누름
- 녹색, 황색, 청색전화는 106 을 누르면 되나 적색전화는 공중전화를 운영하는 점포 주인의 도움을 받아야 함
- 교환이 나오면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줌
- 상대방의 콜렉트콜 수락이 있을 후 통화 가능

5) 국제전화

- 국제전화는 국제자동전화 (ISD)와 교환원을 통하는 국제수동전화의 2 가지가 있음

- 국제자동전화
 - 전화통신회사의 고유번호-010-국가번호-시외국번-상대방전화번호를 누르면 됨 (전화통신 회사의 고유번호는 0041,0061,0033,001 등이 있음)
- 국제수동통화: 먼저 010 을 누른 다음 원하는 지역과 번호를 말하면 됨
- 국제전신전화 안내: 03-3270-5111

주요 국가의 국가번호

국가	번호	국가	번호
미국/캐나다	1	한국	82
프랑스	33	중국	86
영국	44	홍콩	852
독일	49	대만	886

마. 국내/국제 우편

- 우체국 국내우편 및 국제우편 요금은 다음과 같음

국내우편요금

내용	중량	요금
정형우편물(편지)	25g이하	80엔
	25g~50g	90엔
정형외우편물(소포)	~50g	120엔
	50g~100g	140엔
	100g~150g	200엔
	150g~250g	240엔
	250g~500g	390엔
	500g~1kg	580엔
	1kg~2kg	850엔
	2kg~4kg	1,150엔

- 정형우편물 규격
 - 길이 14~23.5cm, 폭 9~12cm, 두께 1cm 이하, 무게 50g 이하
- 우편엽서: 50 엔 (왕복엽서는 100 엔)

바. 국제우편 요금 조회

- 일본우정공사 홈페이지(한글)
 - http://www.int.post.japanpost.jp/index.php?page=charge/cha/c_normal_air_1_1

8. 호텔/식당

가. 호텔

1) 일반 호텔 (ホテル)

일본의 일반 호텔요금은 지역과 등급 및 시설 수준별로 매우 다양함. 연중 시기별 수급 동향에 따라 호텔요금의 변동폭도 적지 않음. 통상 싱글 (1인실)을 기준으로 15,000 - 25,000엔 수준임.

일본의 호텔은 주로 전화로 예약을 받고 있지만 최근에는 주요도시 소재 호텔에서는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호텔예약을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는 현지 인터넷사이트도 늘어나고 있음.

일본 일반호텔 검색 및 예약 가능 인터넷사이트

사이트명	홈페이지	한국어 지원
일본숙박정보 (Accommodation JAPAN)	www.e-stay.jp	가능
JTB숙박예약정보 (JTB宿泊予約情報)	yado.jtb.co.jp/sp	불가
Rakuten TRAVEL (楽天トラベル)	www.mytrip.net	가능

2) 비즈니스 호텔 (ビジネスホテル)

잡은 출장 업무에 분주하고 저렴한 숙박비를 선호하는 비즈니스 출장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숙박 시설로 룸과 욕실이 일반 호텔보다 좁음. 요금은 싱글(1인실)을 기준으로 7,000-10,000엔 선으로 일반 호텔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편이며 룸서비스, 포터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음.

일본 비즈니스호텔 검색 및 예약 가능 인터넷사이트

사이트명	홈페이지	한국어 지원
비즈니스호텔찾기달인(ビジネスホテル探しの達人)	www.good-businesshotel.com	불가
비즈니스호텔JARAN(ビジネスホテルじゃらん)	http://biz.jalan.net	불가

3) 료칸 (旅館, 여관)

일본의 전통적인 생활 양식을 접할 수 있는 곳으로 일본 전역에 약 90,000개의 여관이 있음. 객실요금은 지역 및 시설 수준에 따라 매우 다양함. 유명 관광지의 고급 여관의 경우 특급 호텔요금 수준 (약 30,000엔)에 달하지만 보통의 여관은 1인당 10,000엔 전후. 일반적으로 숙박 당일 석식 및 다음날 조식은 숙박비에 포함됨.

일본 료칸 검색 및 예약 가능 인터넷사이트

사이트명	홈페이지	한국어 지원
야도넷 (YADO NET)	www.yadonet.ne.jp	불가
일본여관명선 (日本旅館名選)	www.ryokan.or.jp	가능

4) 일본 주요 도시별 호텔 리스트

도쿄지역

호텔명	전화	팩스	홈페이지
시나가와프린스	03-3440-1111	03-3441-7091	www.princehotels.co.jp/shinagawa
뉴오타니	03-3265-1111	03-3221-2619	www.newotani.co.jp/tokyo
오쿠라	03-3582-0111	03-3582-3707	www.hotelokura.co.jp/tokyo
아카사카프린스	03-3234-1111	03-3262-5163	www2.princehotels.co.jp
제국	03-3504-1111	03-3581-9146	www.imperialhotel.co.jp

오사카지역

호텔명	전화	팩스	홈페이지
호텔닛코오사카	06-6244-1111		www.hno.co.jp
스위스호텔	06-6646-1111	06-6648-0331	www.swissotel-osaka.co.jp
난바위싱턴호텔	06-6212-2555	06-6214-3332	nanba.wh-at.com
뉴오타니호텔	06-6941-1111	06-6941-9769	www.newotani.co.jp/osaka
토요코인우메다	06-6376-1045	06-6376-1046	www.toyoko-inn.com/hotel/00034

나고야지역

호텔명	전화	팩스	홈페이지
웨스턴캐슬	052-521-2121	052-521-5195	www.castle.co.jp
매리어트어소시아	052-584-1111	052-584-1112	www.associa.com/nma
힐튼	052-212-1111	052-212-1225	www.hilton.com
도큐	052-251-2411	052-251-2422	www.nagoya-h.tokyuhotels.co.jp
젠니쿠그란코트	052-683-4111	052-683-4121	www.grandcourt.co.jp

나. 식당

도쿄 주요 한식당

식당명	전화	소재지
쿠사노이에 본점 (草の家本店)	03-3589-0779	아카사카
한일관 (韓日館)	03-3589-1989	아카사카
일룡본점 (一龍本店)	03-3583-5278	아카사카
일룡별관 (一龍別館)	03-3582-7008	아카사카
천영 (千榮)	03-3452-1714	아자부
용원 (龍園)	03-3564-1576	긴자
도토리	03-3501-0535	유라쿠초

도쿄 주요 일식당

식당명	전화	소재지
세리나	03-3402-1053	오쿠라호텔
나다만	03-3221-4152	뉴오타니호텔
오카한	03-3261-3417	뉴오타니호텔
TOP OF THE TOWER	03-3238-0023	뉴오타니호텔
깃쇼	03-3591-8191	긴자
사가미	03-3216-4624	유라쿠초

오사카 주요 한식당

식당명	전화	소재지
진미갈비 (珍三カルビ)	06-6205-2959	大阪市中央区瓦町2-1-11
간니치간 (韓日館)	06-6213-3089	大阪市中央区西心齋橋2-4-6第一花月Bldg2階
민조크무라 (民俗村)	06-6212-2640	大阪市中央区宗右衛門町1-22
아지요시 (アジヨシ) http://www.ajiyosi.co.jp/	06-6772-7760	大阪市天王寺区下味原町2-2
우메다메이게쯔간 (梅田明月館) http://r.gnavi.co.jp/k043902/	06-6312-2989	大阪市北区堂山町5-17
하쿠운다이 (白雲台) http://www.hakuundai.com/	06-6774-4129	大阪市天王寺区下味原町5-26

오사카 주요 일식당

식당명	전화	주소
쯔르통단 (つるとんたん) http://www.tsurutontan.co.jp/	06-6211-0021	大阪市中央区宗右衛門町3-17
기소지 (木曽路) http://www.sake-kisoji.com/	06-6212-5155	大阪市中央区西心齋橋 2-1-3 다이아몬드빌딩 B1
쿠이다오래 (くいだおれ) http://www.cui-daore.co.jp/	06-6211-5300	大阪市中央区道頓堀1-8-25
간꼬스시 (がんこ寿司) http://www.gankofood.co.jp/	06-6376-2001	大阪市北区芝田1-5-11猪井梅田빌딩
하이키야 (巖眞屋) http://www.hiikiya.co.jp/	06-6315-9288	大阪市北区曾根崎2-7-13

나고야 주요 한식당

식당명	전화	소재지
신라관 (新羅館)	052-702-2900	名東区 極樂5-1
야키니쿠테라스 (焼肉テラス)	052-953-0233	中区 錦3-12-32
야나기(柳)	052-205-8022	中区 錦2-12-8
서울야 (ソウル家)	052-959-2220	中区 錦3-15-4
코리아타운 (KOREA TOWN)	052-262-7860	中区 新栄 1-12-30
북창동순두부 (BSD)	052-752-7474	千種区 池下1-4-15

나고야 주요 일식당

식당명	전화	소재지
기소지 카와라마치 (木曽路)	052-261-7469	中区 新栄 1-27-17
카니혼케 사카에쥬오 (かに本家)	052-263-1161	中区 栄 3-8-28
시라카와 (白河)	052-522-8331	西区 城西4-30-3
카파 스시 (KAPPA 寿司)	052-541-7888	中村区 JRTwinTower 12F1
엔쥬 (圓珠)	052-221-8989	中区 栄 1-12-37

후쿠오카 주요 한식당

식당명	전화	소재지
미야코	092-271-7484	기온마치
한정	092-263-0334	나카고후쿠마치
한일관	092-752-4040	케고
명동	092-683-5651	와카미야

9. 관공서 관행

일본의 관공서는 대체로 친절하고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편임. 그러나 담당자의 재량이 적고 형식 및 절차에 구애를 많이 받아 구비 서류나 증빙서 등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경우가 많음. 또한 서류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확인한 후 처리해두는 것이 좋음.

아직까지 공급자 위주, 관 위주의 사회구조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담당자에 따라서는 고자세인 경우도 있음. 그러나 급행료나 뇌물 등은 전혀 통하지 않으므로 일본의 공무원은 청렴하다고 할 수 있음.

10. 공휴일

일본의 축일법(祝日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7년도 일본 법정공휴일

일자 (요일)	공휴일 명칭
1. 1 (월)	신년공휴일 (元日)
1. 8 (월)	성인의 날 (成人の日)
2. 11 (일)	건국기념일 (建國記念の日)
3. 21 (수)	춘분의 날 (春分の日)
4. 29 (일)	쇼와의 날 (昭和の日)
5. 3 (목)	헌법기념일 (憲法記念日)
5. 4 (금)	초록의 날 (みどりの日)
5. 5 (토)	어린이날 (こどもの日)
7. 16 (월)	바다의 날 (海の日)
9. 17 (월)	경노의 날 (敬老の日)
9. 23 (일)	추분의 날 (秋分の日)
10. 8 (월)	체육의 날 (体育の日)
11. 3 (토)	문화의 날 (文化の日)
11. 23 (금)	근로감사의 날 (勤勞感謝の日)
12. 23 (일)	천황탄생일 (天皇誕生日)

* 법정공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익일 휴무

□ 연중 일본 현지 출장을 피하셔야 할 기간

- 3월 중순 - 3월 말: 한국과 달리 일본 기업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임. 이에 일본기업은 연도 결산월인 3월말까지 연간 결산업무를 반드시 종결해야 하기 때문에 3월 중순에서 말까지 외부인과 접촉을 꺼리는 경향이 매우 강함.
- 4. 29 - 5. 5: '골든위크 (ゴールデンウィーク, GOLDEN WEEK)' 라고 불리는 연휴기간으로 은행 및 공공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이 휴무하여 업무 연락이 불가능함.
- 8월 중순: '오봉야스미 (お盆休み)로 지칭되는 여름 휴가기간으로 8월 15일을 전후하여 약 10일간 상당수 기업의 직원들이 휴가를 떠나 접촉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 12. 29 - 1. 3: '연말연시 연휴(年末年始連休)' 기간으로 금융기관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업이 일제히 휴무하는 기간임.

11. 여행시 유의사항

가. 일본 여행시 유의 사항

1) 지나친 자신 및 자국에 대한 칭찬

- 이러한 언행을 하는 사람에 대해 일본인은 상대방을 매너가 없으며 수양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함. 일본의 가정교육 혹은 학교 교육의 제 1조는 "자랑하지 말라" 임을 명심 해야 함

2) 남에게 폐를 끼치는 행동

- 공공장소에서 고성방가 등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피해야 함. "자랑하지 말라"가 가정교육의 제 1 조 라면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는 제 2 조에 해당함

3) 공격적인 자신의 주장과 입장 표명

- 일본 속담에 "나온 말뚝이 정 맞는다"는 표현대로 일본인은 상대방의 기분이나 입장을 고려하여 표현하고 행동하며, 상대방도 자신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행동할 것을 기대함

나. 일본 비즈니스 상의 유의 사항

- 외국기업 특히 한국의 개인이나 법인이 일본에서 기업활동을 할 때 서로의 문화나 습관의 차이로 인해 각종 트러블이 발생하여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일본인의 비즈니스 룰이나 매너, 가치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1) 일본인은 “협조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함

- 사내 부서간 협조 작업에서는 회의를 반복하여 한 부서만의 돌출된 행동은 삼가 함
- 회의나 의견교환 과정에서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함. 결코 상대방을 묵살하려고 하지 않음
- 거래처나 관련회사 사이에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조정을 반복하여 인내하면서 합의점을 찾아냄
- 트러블이 발생할 때에는 바로 안이한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끝까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함

2) 개인플레이보다 팀플레이를 중시함

- 업무에서 자기만 다른 동료들과 동떨어져 있거나 돌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업무는 팀플레이를 강조하는 스포츠와 같아 집단을 의식하며 그 안에서 개성을 발휘하는 것이 좋음

3) 대화를 중시함

- 인간관계나 업무상의 트러블에 큰소리를 낸다든지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거나 폭력을 써서는 결코 안되며 대화로 해결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같이 식사를 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음

4) 상대를 이해하여 신용을 갖기까지 시간이 걸림

- 타사와의 업무적인 미팅이나 세일즈를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소개가 필요하며, 예약 없는 면회는 거절당하기 쉬움. 이 부분은 외국인으로서 큰 장애 요인이기도 함. 또한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신뢰관계가 없으면 성공적인 거래가 될 수 없음.

- 상품을 판매 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 대해 신뢰를 갖게 하는 것이 순서임. 왜냐하면 상품의 우수성만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경쟁사에서 자사의 상품보다 우수한 상품이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임.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적인 면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성의를 다해 상대방을 대해야 함. 일본인은 비즈니스 매너나 료를 중요시하는 국민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음

5) 성과 우선주의보다 과정을 중시하며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미덕임

- 계약서와 커뮤니케이션, 양쪽 모두 중요함. 설사 계약 위반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음

6) 인맥 만들기 중요

- 일반적으로 일본인은 외국인과의 접촉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을 꺼려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음. 그러므로 처음으로 접촉하는 곳은 아는 일본인을 통한 소개를 바탕으로 접촉하는 것이 일을 원활하게 진행시킬 수 있음. 회사 외부의 임원이나 고문 또는 어드바이저의 활용도 중요하지만 보다 높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외의 더 많은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함

7) 시간을 엄수함

- 만날 시간보다 최소한 10 분 전에 도착할 것. 적어도 방문 5 분전에는 도착하는 것이 기본임. 약속시간에 늦었을 경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신뢰를 잃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임

8)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도록 함

- 단 한번의 약속위반으로 이후의 모든 거래가 중지될 수도 있음.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신용을 쌓는 기본이 된다는 점을 명심

9) 존칭에 유의함

- 일반회화나 회의에서는 상대방에게 친구에게 사용하는 듯한 말투를 쓰지 않도록 함. 특히 서양에서처럼 성을 뺀 이름만을 부르거나 해서는 안됨

10) 각종 교류회에 적극적으로 참가

- 교류회는 인맥을 넓힐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므로 가능한 한 많은 사람과 명함을 교환하고 얼굴을 익혀둘 것. 교류회의 다음날에는 자필로 자신을 소개하는 편지를 보내고 이후에 약속을 정하여 상대방의 회사를 방문함. 이렇게 하여 자신의 인맥을 넓혀 나갈 수 있음

11) 자신의 어필하기 위한 식사 및 술자리도 중요함

- 단, 과음은 삼가. 상대방 앞에서는 될수록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좋음. 담배연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으며, 설사 상대방이 피우고 있더라도 자신은 피우지 않는 것이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음

12)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것을 피하도록 함

- 회의석상에서는 자신의 목소리가 다른 이에게 전달될 정도의 음량으로만 말할 것. 그 이상 커지면 불쾌한 잡음이 됨

13) 빌딩의 입구나 엘리베이터 앞에서는 양보

- 현관 및 엘리베이터 앞에서 먼저 양보하는 것이 매너임

14) 택시를 탈 때에는 자신이 앞 좌석에 앉아서 요금을 지불함**15) 접대나 회식자리에서는 상석에 앉지 않도록 함****다. 일본기업 방문 시 주의할 점**

- 외부 사람들을 만날 때는 당신이 회사의 대표라는 인식을 갖고 행동해야 함. 당신 개인의 이미지가 그대로 회사의 이미지로 반영되지 때문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유의함

1) 반드시 사전에 약속함

상대방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갑자기 방문하는 것은 실례일 뿐만 아니라, 담당자가 자리에 없을 경우 허탕을 치게 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약속하고 방문하는 것이 기본예의 임. 사전에 방문목적, 방문일시, 소요시간 등을 밝히고 상대방의 확인을 얻어야 함. 사전약속은 상대방에게도 준비할 시간을 주게 되어 상담의 원활화에 도움을 줄 것임.

2) 방문처에 대한 기초조사

처음으로 방문하는 경우 사전에 상대기업의 사업내용을 비롯하여 경영방침, 주요 거래처, 업계에서의 위치, 신규 사업계획 등 가능한 최신정보를 많이 입수하는 것이 좋음. 상담시 자기무장에 도움이 되고 아울러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됨. 또한 회사의 주소, 전화번호, 상대방의 소속부서명과 이름 등을 미리 메모하여 찾아가는데 실수가 없도록 준비함

3) 자료, 명함, 선물 등을 준비함

필요한 서류와 자료, 샘플 등을 리스트업하여 빠트리지 않도록 유의함. 또한 메모도구, 명함 등도 확인함. 일본은 명함이 꼭 필요한 사회임. 따라서 영업직의 경우에는 명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임. 선물은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간단한 것으로 준비함. 예를 들면 직원들이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 (소규모로 포장된 빵, 과자류, 아이스크림 등)나 드링크류 등이 가장 보편적임

4) 약속시간을 엄수함

약속시간보다 5-10분 정도 전에 접수처에 도착하는 것이 좋음. 약속시간에 늦거나 너무 빨리 도착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폐가 됨. 지각은 비즈니스에서 신용을 잃게 하는 원인중의

하나임. 상대를 기다리게 하는 것은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임. 만일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거나, 앞의 상담이 늦어져서 약속시간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전화로 사정을 이야기하고 얼마 정도 늦어진다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예의임

5) 접수처에서의 매너

타사 방문 시에는 제일 먼저 접수처 담당자에게 자신의 회사명과 이름을 확실하게 밝히면서 명함을 건네고, ○○와 ○○시에 약속했다고 전함.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명함만 불쑥 내민다거나, 약속한 사람을 불러달라고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님. 접수용 전화나 인터폰이 설치된 회사의 경우에는 번호를 눌러 자기가 도착했음을 알리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지시에 따름. 접수처가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제일 가까이 있는 사원에게 자신이 찾아온 용건을 간단히 설명하고 안내를 부탁함. 응대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실례임

6) 응접실에서의 매너

응접실에서는 안내인이 자리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 자리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서열이 낮은 자리(입구 쪽)에 앉아서 기다림. 방문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직위가 높은 순위로 상석(입구 쪽에서 먼 자리)부터 차례로 앉음

7) 응접실에서의 자리 배치

가방이나 샘플은 자기 발 밑에 둬. 팜플렛이나 샘플은 필요 시에만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상대방에게 전달할 경우에는 정면이 상대방으로 가도록 하여 두 손으로 전달함. 기다리는 동안이나 상담 중에 음료수를 대접받으면 정중하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상대방이 만약 회의 중이어서 말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목례를 함

8) 명함 주고받기

- 방문한 쪽에서 먼저 내밌 (여럿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상사, 선배 순으로 내밌)
- 회사명, 이름을 말하면서 건넬
- 상대방이 정면으로 볼 수 있도록 건넬
- 상대방 명함은 두 손으로 받음
- 상대방 이름 한자의 읽는 법을 모르는 경우 공손히 물음
- 상대방 명함을 만지작거리거나 명함에 메모 등을 하지 않도록 함
- 상대방이 명함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강요하지 않음

방문한 곳에서 명함을 교환한 후에 상대의 명함은 자신이 앉은 테이블 오른쪽의 자신의 명함케이스 위에 올려 놓음. 상대방이 복수일 경우에는 동일하게 가로로 나란히 놓음. 상대방의 명함을 언제라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절대로 바로 자신의 명함 케이스에 넣어서는 안 됨

9) 인사법

일본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도록 인사법이 철저한 나라이며, 일본인끼리는 거의 악수를 하지 않음. 일본의 인사법은 상대방의 나이보다는 자신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가에 따라 그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

사내 복도에서 상사나 내방객을 지나칠 때는 가볍게 목례를 하지만, 업무적으로 만나게 되는 납품처 관계자, 구입처 관계자, 그리고 동업자, 상사, 부하직원, 동료등과 교환하는 인사는 각각 약간씩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인사예절을 제대로 구별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일본통’ 이라고 말할 수 있음

- 목도(15도) : 동료와의 아침 저녁인사, 상사나 고객과 복도에서의 인사
- 중례(30도) : 일반적인 인사로 고객을 응대, 배웅할 때, 아침 저녁 상사에 대한 인사
- 최경례(45도) : 정식인사로 사죄하거나 감사하다는 인사

10) 대화시의 주의점

일본인은 태도나 언행에서 상담교섭(商談交渉) 이전의 문제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음. 상담교섭 이전의 문제란 품질이나 가격도 매력적이지만, 그 영업맨의 태도나 말씨가 어떠한가, 또는 얼마나 좋은 인상을 보이는가 하는 문제임. 일본어로 상담하거나 대화 할 때에 주의할 점은 발음이나 억양보다는 예의 바르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언어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임.

영업맨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반드시 바른 경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도 있음. 언행으로 인해 품위나 수준까지도 의심받기 쉬움. 특히, 다리를 꼬고 앉거나 소파에 몸을 뒤로 젖혀서 앉는 행위는 불손한 태도로 보여지므로 삼가는게 좋음

라. 기타 유의 사항

- 위험지역: 일본은 비교적 치안이 안정되어 있어 위험지역은 거의 없으나, 심야 시간대 환락가나 인적이 드문 좁은 골목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안전함.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 반드시 부모와 동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음.
- 팁제도: 일본에서는 팁제도가 전혀 없음. 심지어 서비스에 대해 호의로 팁을 주더라도 사양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12. 유용한 연락처

외교기관

기 관 명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주 일 대한민국 대사관(대표전화)	03-3452-7611/9	03-5232-6911
주 일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	03-3455-2601	03-3542-2696
주 일 대한민국 대사관 문화 담당실	03-3988-9271	03-5476-4976
주 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06-6213-1401	06-6213-0151
주 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092-771-0461	092-771-0464
주 삿포로 대한민국 총영사관	011-621-0288	011-631-8158
주 요코하마 대한민국 총영사관	045-621-4531	045-624-2963
주 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052-586-9221	052-586-9286
주 니가타 대한민국 총영사관	025-230-3411	025-230-5505
주 센다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022-221-2751	022-221-2754
주 코베 대한민국 총영사관	078-221-4853	078-261-3465

KOTRA 무역관

기 관 명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KOTRA 도쿄	03-3214-6951	03-3214-6950
KOTRA 오사카	06-6262-3831	06-6262-4607
KOTRA 나고야	052-561-3936	052-561-3945
KOTRA 후쿠오카	092-473-2005	092-473-2007

주요 공공기관

기 관 명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한국무역협회 도쿄지부	03-5472-2641	03-5472-2640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	03-3597-1717	03-3591-4601
한국관광공사 오사카지사	06-6266-0847	06-6266-0803
한국관광공사 후쿠오카지사	092-471-7174	092-474-8015
농수산물유통공사 도쿄농업무역관	03-5367-6656	03-5367-6657
중소기업진흥공단 일본사무소	03-3508-0673	03-3508-0675
한국 경제연구센터	03-3543-1045	03-3545-0710
한국과학재단 도쿄사무소	03-3431-7215	03-3431-7218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도쿄사무소	03-3453-1484	03-3453-1484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03-3513-0233	03-3513-0234

금융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한국은행 (도쿄사무소)	03-3213-6961	03-3213-6959
한국수출입은행	03-3287-0925	03-3287-2435
외환은행 도쿄지점	03-3216-3561	03-3214-4491
외환은행 오사카지점	06-6630-2600	06-6630-2806
국민은행 도쿄지점	03-3201-3411	03-3201-3410
신한은행 도쿄지점	03-3578-9321	03-3578-9355
한국산업은행 도쿄지점	03-3214-4541	03-3214-6933

일본 주재 언론사

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연합뉴스	03-5571-4033	03-5563-1522
경향신문	03-3246-3690	03-3246-3691
대한매일신문	03-5715-3588	03-3740-3536
동아일보	03-3248-1251	03-3248-1254
문화일보	03-5908-4373	03-5908-4374
조선일보	03-3214-5236	03-3213-1060
중앙일보	03-3524-0333	03-3524-0334
한겨레신문	03-3639-8575	03-3639-8577
한국일보	03-3270-8371	03-3270-8372
매일경제신문	03-3257-8786	03-5298-7014
한국경제신문	03-3216-2363	03-3216-1687
파이낸셜뉴스	03-5255-7226	03-5255-7227
KBS	03-3485-5100/5500	03-3485-6529
MBC	03-5500-5871/2	03-5500-5875
SBS	03-6215-0087	03-6215-0089
YTN	03-5571-4033	03-5563-1522

투자진출지원 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아이치 투자 서포트 오피스	052-203-4527(영어/일어)	www.aichi-iic.or.jp/co/ai-support
일본 무역진흥기구 나고야 무역정보센터	052-203-4527	http://www.jetro.go.jp
아이치현 기업청	052-954-6692	http://www.pref.aichi.jp

외국인 대상 상담 창구 및 긴급 전화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재)아이치현 국제교류협회 (財団法人愛知県国際交流協会)	052-961-7902	http://www2.aia.pref.aichi.jp/
(재)나고야 국제센터 (財団法人名古屋国際センター)	052-581-0100 (한국어대응)	http://www.nic-nagoya.or.jp/
외국인 의료센터 (外国人医療センター)	052-588-7040	http://www.h6.dion.ne.jp/~mica/
Information on NTT service for 24 hours!	0120-019116	http://www.ntt-west.co.jp/service_guide
입국 관리국 외국인 재류 종합정보센터 (入国管理局外国人在留総合イン フォメーションセンター)	052-223-7336 ~ 7	
법무성 나고야 입국관리국 (法務省名古屋入国管理局)	052-955-0927	http://www.immi-moj.go.jp
도쿄 변호사회 외국인 인권 구제 센터 (日本弁護士連合会)	03-3581-2201	www.nichibenren.or.jp/ja/link/bar_ association.html
메이테츠 고객센터 (名鉄電車テレフォンセンター)	052-582-5151	http://www.owari.ne.jp/~nico/link/ koutsu/koutsu.htm
킨테츠 텔레폰 센터 (近畿日本鉄道 (株)テレフォンセンター)	052-561-1604	http://www.owari.ne.jp/~nico/link/ koutsu/koutsu.htm
JR도카이 텔레폰 센터 (JR東海テレフォンセンター)	052-561-4143	http://www.owari.ne.jp/ ~nico/link/koutsu/koutsu.htm
일본 도로교통 정보센터 (日本道路交通情報センター)	03-3264-1331	http://www.keishicho.metro.tokyo.jp/
경시청 교통상담코너 (警視庁総合相談センター)	03-3593-0941	http://www.keishicho.metro.tokyo. jp/soudan/sougou/sougou.htm
경시청 운전면허 전화서비스 (警視庁運転免許テレホンサー ビス)	03-3450-5000	http://www.npa.go.jp/koutsuu/li cense_renewal/home.htm
한국통신(KT)콜렉트 콜	0053-821 0066-55-821	예)일본에서 한국02-123-4567으로 전화 00539-821⇒4⇒2⇒123-4567#⇒통화 00539-821⇒4⇒0⇒한국교환원⇒통화
위급, 화재	119	
교통사고, 범죄	110	
날씨예보	177	
전보	115	
전화번호 안내 (유료)	104	
전화고장	113	
국제전보	03-3347-2345	

관광안내소 및 관광협회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및 인터넷 URL
나고야시나고야역 관광안내소 (名古屋市名古屋駅観光案内所)	052-541-4301	名古屋市中村区名駅1-1-4 (킨테츠나고야역 도보 5분)
나고야시가나야마 관광안내소 (名古屋市金山観光案内所)	052-323-0161	名古屋市中区金山1-17-18 (金山総合駅北口)
오아시스21 i센터 (オアシス21iセンター)	052-963-5252	名古屋市東区東桜1-11-1 (오아시스21地下1階)
아이치현 관광협회 (愛知県観光協会)	052-561-5231	http://www.aichi-kanko.jp/apta000.asp
기후현 관광연맹 (岐阜県観光連盟)	0120-310561	http://www.pref.gifu.lg.jp/pref/HIMIKO/
미에현 관광연맹 (三重県観光連盟)	0120-301714	http://www.kankomie.or.jp
나고야 관광 컨벤션 뷰로 名古屋観光コンベンション ビューロー	052-202-1143	http://www.ncvb.or.jp
여행자 인포메이션 센터 (ツーリストインフォメーション センター)	03-3201-3331 075-344-3300	http://www.jnto.go.jp/info/support/tic.html

숙박 및 관광정보(인터넷 웹사이트)

기관명	홈페이지 주소
(사)일본호텔협회 (社団法人日本ホテル協会)	http://www.j-hotel.or.jp
전일본시티호텔연맹(全日本シティホテル連盟)	http://www.jcha.or.jp
일본 관광여관 연맹 (社団法人日本観光連盟)	http://www.nikkanren.or.jp
JAPANESE INN GROUP	http://www.jpinn.com
Accommodations JAPAN	http://www.e-stay.jp
국제관광여관연맹(社団法人国際観光旅館連盟)	http://www.ryokan.or.jp
일본 유스호스텔협회 (財団法人日本ユースホステル協会)	http://www.jyh.or.jp
국민 휴가촌 협회 (財団法人休暇村)	http://www.okamura.or.jp
아이치 관광정보파일 (愛知観光情報ファイル)	http://www.aichi-kanko.jp
기후관광 가이드 (岐阜観光ガイド)	http://www.kankou-gifu.jp/
관광 미에 (三重県観光情報)	http://www.kankomie.or.jp
The Roads Trough Japan`s Heartland (일본 중부지역 중심)	http://www.j-heartland.com
비지트 재팬 캠페인(일본) (VISIT JAPAN CAMPAIGN)	http://www.visitjapan.jp
국제관광진흥회(JNTO) (日本国際観光振興会)	http://www.jnto.go.jp

13. 관광명소

가. 도쿄지역

1) 도쿄타워

- 개 요: 전장 333M의 철탁, 도쿄를 대표하는 타워로 1958년에 완성된 도쿄의 상징임.
- 교 통: 지하철 히비야선 가미야초역 하차, 도보 7분.

2) 도쿄국립근대미술관

- 개 요: 1952년 일본 최초의 국립미술관으로 개관된 후 1972년에 현재의 건물로 이전 개관되었음. 현재 본관에는 약 6,200점에 이르는 작품이 전시되고 있음.
- 교 통: 지하철 도자이선 다케바시역 하차, 도보 3분.

3) 도쿄돔

- 개 요: 각종 스포츠나 콘서트, 이벤트가 열리는 돔으로 21번 게이트 옆에는 야구 체육 박물관도 있음.
- 교 통: JR 소부선, 지하철 미타선 스이도바시역 하차.

4) 도쿄 디즈니 리조트

- 개 요: 도쿄에서 가장 인기있는 테마파크 리조트로 여섯개의 특징있는 주제별로 구성된 디즈니랜드, 물을 테마로 만들어진 디즈니시, 쇼핑센터, 특급호텔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현재 전세계 테마파크 중에서 가장 높은 매출액을 올리고 있음.
- 교 통: JR 게이요선 마이하마역 하차, 도보 5분.

5) 롯병기 힐즈

- 개 요: 2003년 4월에 준공된 롯병기힐즈모리타워를 중심으로 한 주상복합 고층빌딩 밀집지역. 야후, 라이브도어, 라쿠텐, M&A 컨설팅 등의 IT, 금융관련 기업이 다수 입주 하고 있어 신흥부유층 밀집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쇼핑몰, 고급부탁, 영화관 등의 각종 상업시설, 모리미술관, 전망대 등을 중심으로 관광객을 모으고 있음.
- 교 통: 히비야선, 오에도선 롯병기 역 하차, 도보 4분.

6) 오다이바

- 개 요: 도쿄항의 매립지에 만들어진 임해부도심 중 하나로 1995년 도쿄도의 7번째 부도심으로 책정된 후,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업시설이 들어서며 도쿄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됨. 레인보브릿지, 카이힌공원, 후지 TV 본사사옥 등이 있으며, 인근 아리아케 지구에는 도쿄 내 최대 전시장인 빅사이트가 있음.
- 교 통: 린카이선 다이바 역 하차.

7) 아키타하바라

- 개 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자상가 밀집지역. 대형가전양판점, 각종 게임, PC 관련 및 전자부품 취급점포가 많으며, 최근에는 애니메이션, 성인물을 중심으로 ‘오타쿠’ 문화가 집결하는 곳으로 주목으로 받으며 유명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음.
- 교 통: JR 야마노테선, 소부선, 케이힌토호쿠선, 지하철 히비야선 아키타하바라역 하차.

8) 에도도쿄박물관

- 개 요: 에도 시대부터 현재 도쿄에 이르기까지 변천 과정이 실물자료와 모형 등으로 소개 되고 있음.
- 교 통: JR 료고쿠(兩國)역에서 도보 3 분, 입장료 600 엔.

9) 가마쿠라

- 개 요: 도쿄에서 1 시간 거리에 소재, 1192 년 봉건정부가 창설된 지역으로 조용한 절과 신사가 있음. 특히 700 년 전에 만들어진 대불이 볼거리임.

나. 오사카지역

1) 오사카성

- 개 요: 오사카성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4 만 명의 인력을 들여 3 년 간에 걸쳐 1585 년 완성하였으나 그의 죽음과 함께 불타 거석이나 흔적 정도만 남아 있는 것을 도쿠가와 바쿠후의 제 3 대 장군 도쿠가와 이에미쓰가 개수한 것으로 오사카의 대표적인 상징물임.
- 교 통: JR 이용 오사카조코엔(오사카성공원)역에서 하차

2) 가이유칸(海遊館 <http://www.kaiyukan.com/index.html>)

- 개요: 환태평양 화산대에 생식하는 약 580 종류 3 만점의 생물을 모은 세계 최대급의 수족관임
- 교통: 지하철 중앙선 오사카코우(大阪港)역 하차 도보 5 분. 입장료 2,000 엔

3)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USJ, <http://www.usj.co.jp>)

- 개요: 할리웃 영화들의 주인공들을 사실적으로 재현한 세계적인 수준의 무비 테마파크 임. 각종 3D, 4D 상영관 등이 볼거리
- 교통: JR 오사카역에서 JR 니시쿠쵸(西九条)역 방향으로 JR 유니버설시티역 하차. 간사이 공항에서 JR 간사이공항 쾌속(關空快速)탑승 JR 니시쿠쵸(西九条)역에서 갈아탐. 입장료 4,950 엔

다. 나고야지역

1) 나고야 성 (名古屋城)

- 개요: 1612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당대 기술을 결집하여 축조한 성으로 도쿠가와 가문의 영광이 서려 있음. 성내 니노마루(二の丸)정원을 포함한 주요 유적은 2차 대전 미군의 폭격으로 폐허가 되었음. 현재와 같이 복원되면서 벚꽃 등 일본의 정취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곳으로 유명함.
- 교통: 지하철 메이조선(名城線) 시야쿠쇼역(市役所駅) 하차, 도보 10분.

2) 도쿠가와 미술관(徳川美術館), 도쿠가와엔(徳川園)

- 개요: 도쿠가와 가문에 전해져 내려온 수많은 유품과 다이묘(大名, 영주)가 사용한 각종 도구를 전시하고 있음.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유품을 중심으로 일본 국보 겐지 모노가타리 그림 두루마리(源氏物語絵巻)등이 있음. 미술관 옆에 소재한 도쿠가와엔(徳川園)은 일본 에도(江戸)시대 영주의 정원양식이 그대로 복원된 일본 전통정원으로 폭포에서 계곡을 지나 연못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일본의 자연풍경을 응축 하여 재현하고 있음.
- 교통: JR 추오본선(中央本線) 오오조네역(大曽根駅) 하차, 도보 10분.

3) 아츠타신궁(熱田神宮)

- 개요: 일본 삼종의 신기 중 하나인 쿠사나기노쓰루기(草薙剣)를 모시고 있는 신사임.
- 교통: 메이테츠 신궁전역, JR 아츠타역, 지하철 신궁서역 하차.

라. 큐슈지역

큐슈에는 일 전에 일본의 국내 신혼여행지의 메카로서 이름을 날렸던 미야자키를 비롯하여 온천으로 유명한 벳푸나 유후인, 화산으로 유명한 아소산 등 관광지가 풍부하고 관광 자원이 무수히 많다. 그리고 큐슈라고 해도 상당히 넓으므로 단기간에 전부 돌아보는 것은 무리이므로 일단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지역별로 혹은 관심사 별로 루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큐슈를 지역별 주요 관광 명소는 다음과 같다.

1) 큐슈 북부

큐슈 북부에는 큐슈의 수도로 불리 우며 상업도시로 발달해 후쿠오카시 및 제조업이 발달한 기타큐슈시 등이 위치하여 최첨단 문화와 전통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 모지항 레트로지구

네오 르네상스 양식의 모지항역을 중심으로 이국정서가 넘치는 풍취를 구경할 수 있다.

□ 다자이후 텐만구

학문의 신으로 숭배 받는 스가와라 미치자네를 기리는 전국 텐만구의 총본궁이다.

□ 히코산

일본 3대 수도의 장으로 큐슈 전역에서 신앙시 되어온 산이다. 일본 최초로 국립 공원으로 지정되었다.

□ 우사신궁

전국 4만여 하치만사의 총본산으로 본전은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2) 큐슈 서부

고대의 낭만과 이국 정서가 넘치는 역사를 자랑하며 다채로운 문화를 풍부히 꽃 피우고 있는 곳이다.

□ 하우스텐보스

17세기 네덜란드의 거리를 재현하여 자연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테마파크이다.

□ 요시노가리 유적

야요이시대 일본 최대급의 환호집락 유적으로 외지왜인전에 기술되어 있는 야마토국을 생각나게 한다. 일본에서 두번째로 국영역사공원으로 정비, 공개되고 있다.

□ 평화공원,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

세계 최초로 원폭이 투하된 곳으로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의미에서 공원으로 조성 되었다

3) 큐슈 중부

수려한 계곡이나 화산 등 천혜의 관광 자연이 풍부한 곳이다

□ 구마모토성

일본 3대성 중의 하나로 뽑히는 명성으로 웅장한 규모를 자랑한다. 봄에는 주위에 벚꽃이 만발하여 감탄을 자아낸다.

□ 아소 화산

지금도 활발한 화산 활동을 하고 있는 활화산으로 나카다케 화구는 남북 1.1km, 동서400m, 주변 둘레 4km에 이른다.

□ 벳뿌

온천 원천수 및 용출량에서 일본 제1위로 꼽히는 벳뿌는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온천 휴양지이다. 벳뿌의 유명한 관광 명소로는 지옥 순례라고 하여 색이나 성분이 다양한 열탕이 200-300m 지하에서 분출하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

□ 다카치호 계곡

아소용암을 강이 침식하여 생긴 협곡이다. 이 곳의 마나이 폭포는 일본의 폭포 100선에 선정 되었으며 협곡을 보트를 타고 유람할 수도 있다.

□ 구쥬 고원

구쥬 산록에 넓게 펼쳐진 완만한 경사의 광대한 고원으로, 목가적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4) 큐슈 남부

한 때에는 국내 신혼여행의 메카였던 미야자키, 가고시마 등이 소재하여 아직도 맑고 깨끗한 바다와 공기를 즐길 수 있다

□ 시가이아

광대한 부지에 리조트 호텔, 오션돔, 컨벤션센터, 어뮤즈먼트, 골프장 등의 시설이 갖추어진 대형 리조트이다.

□ 니치난 해안

국도 220호선은 동쪽으로 태평양을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드라이브 루트이다. 이 도로를 따라서 30분 정도 달리다 보면 유명한 관광 리조트인 아오시마가 있다

□ 사쿠라섬

하루에 7번 모습이 바뀐다고 하는 활화산이 있는 섬으로 전망대, 용암도로 등이 추천 코스이다.

□ 오키나와

세계에 알려진 남국의 섬 리조트로서 아직 손 닿지 않는 자연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다

V. 무역

15. 교역관련 주요법규

일본의 무역관련 주요 법체계

수출입에 관한 기본법	외국환 및 외국 무역법 수출입 거래법
통관에 관한 기본법	관세법, 관세정률법, 관세잠정조치법
수출입 관리법	주요식량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의 불법수출입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총포, 도검류 소지 등의 규제법, 비료규제법, 종묘법, 화약류규제법, 약사법, 주세법, 화학물질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고압가스보안법
그 외 수출입 관리법 (수출입시 검역 등)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광견병예방법, 감염증의 규제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국제조약, 협정 등	WTO조약, IMF협정 등 포괄적 협약 워싱턴조약 등 특정품목에 대한 규정

자료원: JETRO

16. 수입규제제도

일본은 다음과 같은 법령에 근거하여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가. 법령에 의한 규제

1) 외환법상의 규제

- 승인을 요하는 화물
 - 수입공표 제 1 호(수입할당품목): 비자유화품목(일부 농수산물 등)과 국제협정 등에서 규제하고 있는 품목
 - 수입공표 제 2 호: 특정원산지 및 선적지로부터의 특정 화물, 워싱턴 조약 등에 의한 규제품목
- 확인을 요하는 화물(수입공표 제 3 호)
 - 사전확인품목: 면역혈청, 특정외국문화재, 참치, 고래 등의 조제품 등
 - 통관시확인품목: 양귀비씨, 대마씨, 다이아몬드 등

2) 관세정률법에 의한 규제

-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화물, 위조통화, 권총, 마약 등의 수입 규제

3) 관세법에 의한 규제

- 관세납부 등을 포함한 수입통관수속상의 규제

- 일본의 관세제도
 - 일반관세
 - 특혜관세
 - 관세할당
 - 간이세율제도
 - 특수관세: 반덤핑과 보조금에 의한 수출과 같이 무역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예상하여 부과, 수입급증 등에 대해 할증관세 부과 (발동 조건과 절차는(WTO)에서 정함)

4) 기타 국내법에 의한 규제

- 일부 품목의 수입금지: 대마거래법, 식물방역법
- 수입검역: 검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 수입 허가 및 등록제: 약사법, 비료거래법
- 일별 검역할당제: 야채류 등 세관별 검역목표 설정

5) 조약과 국제협정에 의한 관리

- WTO(세계무역기구)에서 인정한 수입규제 방식에 의한 규제
- 워싱턴 조약, 몬트리올 의정서, 바젤 조약 (특정 유해 폐기물), 화학병기 금지 조약, 대인 지뢰금지 조약 등

나. 일본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른 수입규제 조치 도입 동향

1) 선거 등을 의식한 농산물에 대한 잠정 긴급 수입제한 조치

2) 세관의 1일 검역검사건수 상한제 도입(2001.4.1)

- 일본 농림수산성이 각 항 별 1 일 검사 건수를 정해 검역을 실시하는 검역 개선책을 시행함에 따라 통관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중국 등이 이에 대한 개선 요구서한을 발송
- 동 조치 역시 일본정부는 표면적으로 야채수입 증가로 인한 검역량이 늘어난데다 세관원 증원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철저한 검역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선거 등을 겨냥, 민심을 고려한 정치적 조치로 보임

3) 경제적 상황관련 주요 사례

- 세이프가드에 관한 정보수집 모니터링 체제 강화(2000.2)
 - 일본 농림수산부가 세이프가드조치 검토에 필요한 정보를 상시 수집하기 위해 특정 농수산물을 감시대상품목과 긴급감시대상품목으로 정해 운영
 - 감시 대상 품목은 마늘, 가지, 합판, 마른 표고버섯, 미역, 장어(조제품 포함), 가다랭이이며, 긴급감시대상품목은 토마토, 피망, 양파, 목재(제재품 및 집성품)임
 - 파, 생표고버섯, 이구사 3 품목도 긴급감시대상품목으로 지정

○ 관세할당 제도

- 피혁 3 품목(염착색된 소와 말 가죽, 염착색된 것 이외의 소와 말가죽, 염착색된 양과 염소가죽, 혁화(혁제 및 가죽을 사용한 신발(스포츠용 및 슬리퍼 외), 에틸 알코올(주류제조용) 등 5 개 품목에 대해 2 단계 관세율(할당범위 내 저관세, 범위초과 고관세)을 적용하는 제도로 경제산업부 장관 명의로 매년 2 회에 걸쳐 할당 수량을 발표
- 일본 국내의 관련 산업 보호 성격이 강함

○ 반덤핑관세

- 한국과 대만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
- 국산 반도체(하이닉스)에 대한 반덤핑 과세 신청('04년 6월)
- 국산 타이어보강재(타이어코드용 폴리에스테르단섬유)에 대한 반덤핑 과세신청 검토(일본 화성 협회 주관, '04년 6월 중)
- 대만·중국제 자전거에 대해서도 발동 검토(현재는 해제)

다. 기타(외교적 상황 등) 규제

- 몬트리올 의정서에 정하는 규제물질에 대한 수입규제(88.7)
- 워싱턴조약동식물 및 그 파생
- 물에 대한 수입규제
- 이라크로부터의 수입화물에 대한 수입규제
- 화학병기의 금지 및 특정물질의 규칙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특정물질 및 제 1종 지정물질에 대한 수입규제(95.2)
- 테러 위험도 높은 국가로부터의 수출입에 대한 규제(2001. 12)

라.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른 수입규제

- 2005년 5월 29일 이후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식품 중에 농약 등 규정 물질이 일정량 이상 잔류할 경우, 식품의 판매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포지티브 제도를 설정함. 2005년 5월 29일 전까지는 반대로 잔류해서는 안 되는 것만을 기재하는 네가티브 방식이었음.
- 식품 중에 잔류하는 농약, 식품용 의약품 및 사료첨가물(이하 “농약 등”으로 줄여서 칭함)에 대해서 지금까지 식품안전법 제 11조에 근거하여 잔류기준을 설정하여 그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해왔음. 그러나 현행의 제도로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잔류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물을 포함한 식품에 대해서는 규제가 곤란한 상황이었음. 이에 따라 동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전식품에 대하여 잔류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량 이상의 농약을 포함한 경우에 판매를 금지하는 포지티브 제도로의 전환을 도모함.
- 그 이후에도 수입식품의 증대와 식품중의 농약 등의 잔류에 관한 소비자의 불안이 고조되면서 그 규제강화가 요구되어 왔음.
- 이러한 요구에 따라 2003년 5월 일본 의회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로 법 개정을 공표함. 그 후 후생 노동성 정령에 의해 2006년 5월 29일부서의 시행됨

- 포지티브 제도의 대상이 되는 물질로는 1. 농약(농약단속법 1948년 법률 제 82호 제 1조의 2 제 1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 2. 사료첨가물(사료의 안전성확보 및 품질의 개선에 관한 법률 1953년 법률 제 35호 제 2조 제 3항의 규정에 근거한 농림수산성령에 규정된 사료에 첨가 혼합, 침투 등의 방법으로 첨부된 것) 3. 동물용 의약품(약사법 제 2조제 1항에 규정된 의약품으로 동물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성분)으로 그 성분이 과학적으로 변화하여 생성한 물질까지를 포함함. 그러나 이들 중에서도 인간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고 후생노동성 대신이 결정하는 성분은 본제도 이용의 대상에서 제외가 됨.
- 이번의 개정으로 잔류기준이 없던 농약 등에 많은 잠정기준이 설정되고 잔류기준이나 잠정기준에서 설정하고 있지 않았던 농약 등에 대해서도 0.01ppm 이라는 일률기준이 설정되었음.
- 본제도는 미가공식품, 가공식품을 포함한 모든 식품이 대상임. 식품첨가물은 본제도에 의한 대상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식품으로서 유통되는 것을 첨가물로서 사용한 경우에는 본제도의 대상이 됨.
- 담당관청으로는 유통면에서 후생노동성 식품안전 검사부 기준 심사과, 수입 면에서는 기획정보과 검역소 업무관리실이 있음. 생산은 농림수산성 안전관리과 농산대책실, 검사는 후생 노동성 식품안전과의 해당지역 검사과에서 담당

[예] 도쿄검역소

- 주소: 035-0064, 東京都江東区青海 2-56 東京南湾合同庁舎
- Tel: 03-3599-1520, Fax: 03-5530-2153
- 담당지역: 茨城県、栃木県、群馬県、埼玉県、東京都(동경공항검역소 지역 일부를 제외)

<참고> 포지티브 시스템 관련 인터넷 주소 (2006년 8월 기준)

- 분야 별 시책 「식품 중 잔류농약 등」
- <http://www.mhlw.go.jp/topics/bukyoku/iyaku/syoku-anzen/zanryu2/index.html>

< 대한수입규제현황 >

가. 최근의 대한민국 수입규제 품목 및 규제 현황

1) 대한 수입규제 일반 동향

- FTA 강화 등의 추세에 맞추어 수입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는 규제 완화 추세에 있으나 ①지적재산권 관련(특히 전기전자분야), ②식품위생 관련(농림수산물, 축산물 등)사항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추세임
- 현재 일본이 한국에 대해 정식으로 수입규제를 하고 있는 품목은 폴리에스텔 단섬유(반덤핑 관세), 질병 발생으로 인한 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수입금지 등이 있음
 - 소고기는 2005년 11월 11일부터 조건부 수입허가. 단, 한국에서 가공되어 수입되는 제 3국산 소고기에 한함

- 한편 지적재산권, 정부보조금 문제 등을 배경으로 한 한국업체 제소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삼성 PDP 피소, 후지츠와 화해로 일단락
 - 하이닉스 DRAM 반도체, 엘피타사가 2004.6.16 일부로 상계관세 부과 신청, 재무성 수리, 상계관세 조사 진행 후 관세 부과 결정
 - 타이어 보강재(폴리에스테르 타이어코드 직물)에 반덤핑 부과 신청검토(04.6.18 일부, 일본 화섬협회 주도)

2) 대한 수입규제 세부 내역

□ 질병 등에 의한 수입금지

-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수입금지
 - 구제역 발생관련 소고기(및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03년 8월 1일부 개시, 이후 지속
 - 구제역 발생관련 한국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4월 12일 일시 해제조치 후 재차 수입 금지 조치. '04년 5.15일부로 제주도산에 한해 수입금지 해제, 이후 재차 수입금지 조치
 - 조류독감발생관련 한국산 닭고기(및 가공품)수입금지.'03년 12월 12일부 개시, 현재도 적용 중

□ 반덤핑 과세 조치

- 한국 및 대만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 조사개시: 2001년 4월 23일
 - 조사종료: 2002년 4월 22일
 - 대상품목: 폴리에스테르 단섬유(굵기: 3.88-22.23, 길이: 25-80mm)
 - 부과기간: 2007년 6월 30일까지 5년간 부과 결정
 - 제조기업: 도레이, 크라레, 유니치카 파이버 등
 - 피제소기업: 한국 : S 사 등 30사, 대만 : CHUNG SHING TEXTILE CO, LTD 외 7사

□ 세이프가드(SG)관련 모니터링 체제 정비

- 농림수산물을 주된 대상으로 특정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일본 국내 산업에의 피해 방지 차원에서 2단계 모니터링 실시 중으로 한국은 농수산물이 대상으로 지정됨
 - 모니터링 대상은 수입국 전체, 수입량이 많은 품목은 요주의
 - 상기 품목 외에 파에 대해서도 일본 당국은 요주의 품목으로 관리 중
- 감시대상품목(농림수산물성관련)
 - 마늘, 가지, 加糖조제품, 합판, 건표고버섯, 가다랭이, 연어, 송어, 복어(이상 레벨 1) 감시대상 품목 지정, 분기단위 조사
 - 더욱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하기 품목(레벨 2)에 대해 긴급감시 대상 품목으로 재지정, 월단위 모니터링 실시. 파, 생표고버섯, 다다미, 토마토, 피망, 양파, 목재(製材품 및 集成材), 미역, 뱀장어(조제품포함)
- 감시대상품목(식품위생법관련)
 - 장염 비브리오 검출관련 감시대상품목 지정 운영
 - 품목명: 성게(일본명: 우니), 피조개, 키조개(일본명: 타이라기具)
 - 모니터링 실시기간: '05.7.1-10.31

□ 식품위생법관련 수입규제(세관 검사 강화)

- 법률 근거: 식품위생법 제 15 조 3 항에 의거한 검사명령 실시
- 실시내용
 - 실시기간: 2003.4.1-계속
 - 검사방법: 관련법을 규정에 입각, 전국세관에서 全數 조사
- 한국관련 조치 내용(대상품목 및 감시대상 물질. 성분)
 - 복어(어종감별), 피스타치오넛츠(이후라톡신), 믹스스파이스(좌동), 시안화합물 함유 두류(시안화합물), 캐사바 및 동 가공품(좌동): 이상은 전 수출국 대상
 - 돼지고기(셀파지미진), 활장어(오키소린산), 양식 광어 및 동 가공품(옥시테트 라 사이클린, 엔로후로키사신), 2 매패 및 동 가공품(마비성패독), 냉동피조개(황색 5 호 및 적색 102 호코치닐, 구치나시황색소, 모나스카스색소), 오리 및 동 가공품(지크롤보스), 청고추 및 동 가공품(에토프로호스), 적고추 및 동 가공품 (에토프로호스), 미니 토마토 및 동 가공품(EPN), 미나리 및 동가공품 (크롤피리호스), 파프리카 및 동 가공 품(에토프로호스), 부추 및 동 가공품(크롤피리호스), 파 및 동 가공품(프로시미돈, 크롤 피리호스), 들깨 및 동 가공품 (비훤트린), 상추 및 동 가공품(프로시미돈): 이상은 한국 해당 품목

나. 비관세 장벽 현황

1) 수입할당제 운영

- 어패류 수입할당제
 - 9 종의 어패류(대구, 방어 등)에 대한 수입할당제 시행
 - 할당규모: 9 종 합계 연간 4 천만불 범위 내
- 김에 대한 수입할당제
 - 할당규모: 05 년도의 경우 400 만속 (전세계)
- 다시마 조제품에 대한 수입할당제
 - 할당규모: 500 톤(한국)
- 마른 오징어에 대한 수입할당제
 - 할당규모 : 4,500 톤(전세계)

2) 관세할당제 운영

- 견연사에 대한 관세할당제 잠정 운영
 - 05 년 1 월 1 일부터 섬유협정 체결시 철폐
- 가공피혁 및 혁제신발류에 대한 관세할당제 운영

3) 검역.검사

- 패류(굴 등)에 대한 과도한 검사

- 신선야채. 수산물에 대한 검사 강화(유해물질 발견관련)
- 식품위생관련
 - 가공식품에 대한 폴리솔베이트 사용금지
- 기타
 - 수입차에 대한 인증제도의 국제 정합성 결여
 - 항만 하역작업시 항운협회의 사전협의제 운영

4) PSE제도

- 2006년 4월 1일부터 전기용품을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PSE 마크 부착하여야함
- 일본의 “전기용품안전법” (구 전기용품단속법)에 의하면 동법에 적용되는 450개 전기용품을 일본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PSE 마크 부착을 의무화 하고 있음

< 수입쿼터 >

- 일본의 수입할당품목은 비 자유 품목(수입 공표제 1호)으로 청어, 대구, 꽂치, 고등어, 오징어, 김, 다시마 등 해산물과 핵연료물질 등이 있다.
- 해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는 경제산업성이 매년 수입할당방식, 수입시 주의사항 및 수입신청자 자격등에 대해 발표한다.

수입무역관리령 제 14조에는 이러한 수입의 승인, 수입할당에 대해 예외를 적용하는 ‘특례’가 있는데, 다음의 경우이다.

- 총 가격 500 만엔 이하의 화물. 단, 별도고시에 적용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실제로는 수입할당품목 중 총 가격이 18 만엔 이하의 무상(無償)화물에 대해서만 특례가 해당된다.
-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개별적 사용 목적의 대상이 되는 정도의 물량의 화물 등
- 관계법령: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수입무역관리령, 수입무역관리규칙, 수입공표, 관세법
- 관계기관: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 무역심사과

17. 관세제도

가. 일본의 관세제도 개요

1) 개 요

일본의 관세제도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며, 각종 세칙사항은 3개의 법률(관세법, 관세징율법, 관세장정조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관세는 특혜관세와 비 특혜관세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혜관세(관련법령: 관세장정조치법)는 중국, 동남아 국가 등 후발개도국에 적용하는 관세(관련 홈페이지: <http://www.houko.com/00/01/S35/036.HTM>)와 FTA 체결국에 적용하는 관세에 적용된다.

비 특혜 관세(관련법령: 관세법기본통달 68-3-5)는 협정(WTO)관세와 기본관세가 있는 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가가 적용 받는 협정관세를 적용 받고 있고 북한, 동티모르, 안도라 등 3개국은 기본(or국정)관세를 적용 받아 관세혜택이 가장 불리하다.

나. 최근 일본관세제도의 주요 특징

- 첫째, 신속성이 강조된다. 즉 일본 관세제도의 기본목표는 "신속과 정확"이라는 2대 명제를 두고 양자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최근 수출입 물량의 증가와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대응하여 "신속"을 우선시하는 조치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
- 둘째, 보세지역을 5개 종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화물관리에 있어 법률상 외국 화물은 반드시 보세지역에 입고, 보관토록 되어있다

□ [참고] 보세지역 종류 5가지

- 지정보세지역 (관세법 제37조 - 41조)
 - 보세 장치장 (" 제42조 - 55조)
 - 보세공장 (" 제56조 - 62조)
 - 보세전시장 (" 제62조 2항-7항)
 - 종합보세지역 (" 제62조8항-15항)
- 셋째, 수입자가 반드시 신고자이어야 한다. 관세법 제67조에는 "화물을 수입하는 자는 세관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통관업법 基本通達 에도 "수입신고는 통관업자의 명으로 수행해서는 안 된다" 고 명시되어 있어 수입자가 반드시 신고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수입신고서에는 수입자 란은 있으나 신고자 란은 없음)
 - 넷째, 관세의 신고납세방식: 일본은 1966년부터 관세의 과세방식을 신고납세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일부는 부과과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 다섯째, 통관시스템의 전산화 구축이다. 일본 세관은 1988년부터 항공화물에 대한 통관처리 전산화를 시작했으며, 1991년부터는 해상화물에 대해서도 전산화가 도입됨. NACCS (통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통관처리는 전체신고건의 90% 수준에 달하고 있다
 - 여섯째, HS분류를 채택 하고 있다. 일본의 실행 관세율표는 일본관세협회(전화 03-3263-7221)가 발행하고 있으며 품목별 관세율, GATT 양허표, 관세잠정조치법 및 수입 통계 품목표가 게재되어 있다. 각종 관세율과 통계치는 HS조약에 의거 작성되며, 部(21개), 類, 項(4자리 수), 號(6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다. 관세제도상 각종 규제완화조치

일본정부가 지난 95년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관세제도와 관련한 각종 규제완화 시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상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출입 수속: 항공기 화물에 대해서 도착즉시 수입 허가제 도입

- 절차의 신속화 - 예비신고의 결과 검사가 불요하다고 인정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보세 지역에 반입하지 않고도, 화물도착이 확인되는 대로 수입 신고가 이루어지면 바로 수입을 허가하는 제도
- 소액 수입화물에 대한 간이통과제도 도입
- 수출수속의 포괄 사전심사제도 확충

2) 업무처리의 24시간화: 주요 공항에 있어 업무시간외 업무처리체제 확충

- 업무시간외 예비신고의 수리 - 수입업자 등은 야간, 휴일에도 예비신고가 가능
- 臨時開廳의 자동 승인제 도입 - 세관의 업무시간 이외에 신고를 할 경우 미리 임시 개청의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함. 단, 예비신고에 의해 심사가 종료되어 검사불요로 판정된 화물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본 신고로 인정 됨

3) 수입업자 및 선택 자유화

- 관세 등의 포괄납기기한 연장에 관한 담보제도 개선 - 수입화물에 관계되는 관세 및 소비세납부에 있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3개월 이내에 한해 납기한 연장이 인정됨.
 - 현행 각 세관 별로 담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개선하여 SEA- NACCS (해상 통관정보 처리 시스템) 도입 세관에서 1곳에 담보를 제공할 경우 타 세관에서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가공재수입 감세제도에 관한 수속간소화
 - 일본에서 수출된 원재료가 외국에서 가공 또는 조립된 후 재수입될 경우, 동제품에 부과된 관세 가운데 수출 당시 원재료에 해당되는 관세분은 감세가 가능함
 - 동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각종 서류 및 절차가 대폭 개선되어 통관의 신속화와 함께 이용자 부담이 경감됨

4) 전산화의 가속 및 인터페이스화

- 현재 식품위생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등에 규정된 수입절차는 매뉴얼로 처리되고 있는데, 대장성은 각 절차를 전산화하는 동시에 이미 전산화 시스템과 인터페이스가 가능토록 추진할 방침
- 식품위생수속 관련 96년 이후, 동식물검역 수속관련 97년 이후 시행
- 제출서류의 전자정보화에 의한 PAPERLESS화 추진
- 세관의 적하 목록 처리에 있어 EDI 촉진
 - 해상수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적하목록의 제출 및 해당화물의 보세업무를 EDI화함.

라. 예비심사제도

- 개요
 - 대상화물: 모든 수입화물
 - 제출서류: 예비신고서(수입신고서 사용), 인보이스, 기타 과세표준 결정을 위한 필요 서류
 - 제출처: 화물의 장치 예정장소를 관할 하는 세관관서
 - 신고시기: 수입신고 예정일의 최대 11일전
- 예비 심사제도는 1988년 처음 도입되어 1991년 대폭 개정을 통해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데, 수입자의 신속한 화물인수를 촉진키 위해 화물이 일본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 신고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세관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주요 이용대상 화물은 생선, 식품 등 신선도를 요하여 거래선의 납기 기간이 엄격한 화물, 연말 연시 등 주요 시즌에 지급 소요되는 화물, 수입신고 될 화물, 종류가 매우 많아 서류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화물, 기타 법령에 의거한 화물 등등이다.

이용상 주요 이점으로 1)서류심사가 화물도착 전에 행해지며 2) - 검사여부가 수입 신고 전에 판명되므로 화물의 인수를 위한 사전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주요 관할처(전화 상담처)
 - 도쿄세 관: 업무부 수입총괄 제1부문 - 전화 03-3528-3666
 - 요코하마 세관: 업무부 수입총괄 제1부문 - 전화 045-212-0300
 - 나고야 세관: 업무부 수입총괄 제1부문 - 전화 052-655-1790
 - 고오베 세관: 업무부 수입총괄부문 - 전화 078-333-4410
 - 오사카 세관: 업무부 수입총괄 제1부문 - 전화 06-6576-1130

마. 2005년도 관세제도 개정 주요 내용

- 일본은 2005년부터 적용할 관세제도 개정판을 마련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특혜관세 적용제외 확대, 관세 감면. 면세 제도의 개정, 지적재산권 등의 단속 강화 및 통관 수속 신속화를 위한 세부 시행규칙의 정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첫째, 관세 감면세 제도의 개정으로 지난해 말로 기한이 만료한 가공품 수입감세제도 적용 기한을 3년 간 연장하고 革製 자동차용 시트 부분품을 대상품목에 추가하는 한편 항공기 부분품 등의 면세 제도도 적용 기한을 동일하게 연장키로 하였다.
- 둘째로는 잠정세율 등의 적용기한 연장으로 잠정세율 적용대상 총 420개 품목에 대해 현행 잠정세율의 적용 기한을 2005년도(2006.3.31)까지 연장키로 하였으며, 우루과이 라운드합의에 의거 관세화된 농산품의 특별 긴급관세, 소고기, 돼지고기의 긴급조치의 적용기한을 2005년도 말(기한은 상동)까지 연장키로 하였다.
- 셋째로는 국 별, 품목 별 특혜관세적용 제외 조치로서 각 국 별 사정을 고려 국 별, 품목 별 특혜적용제외 조치를 적용키로 하였는데 올해부터 제외조치가 적용되는 국가 및 품목은 다음과 같다.

국명	HS Code	대상품목
중국	160419 세번 등	조제한 기타 魚
	160590-2-(3) 세 번 등	조제한 연체동물
	282410	일산화 鉛
	691200	도자제 식탁용품,キッチン용품 기타 가정용품 및 화장용품
	940490	침구,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태국	160414 세번 등	조제 참치, 가다랭이
인도네시아	160416	조제한 전갱이
말레이시아	293919	나트륨 규산염

자료원: 재무성

주: HS 코드번호는 일본식 분류에 의한 것으로 특히 6단위 이하의 경우 분류방식이 다를 수 있음

- 넷째로는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등에 대한 단속강화 조치임.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에 관련된 인정수속과 관련하여 일정 요건하에서 권리자로 부터의 신청에 의거 세관이 당해 물품의 견본을 권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키로 하였다.
- 아울러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에 의거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품목 즉, 표시 혼란을 야기하는 제품 등을 수입금지품목으로 추가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키로 하고 이를 위한 사전조치로서 ▲부정 경쟁 방지법상의 벌칙 규정 개정, ▲세관이 현장에서 신속, 적정하게 침해의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키로 하였다.
- 한편 농산물분야에서는 육성자권의 효력을 가공품까지 확대하는 문제가 검토되고 있는 점도 감안하여 침해 여부에 관해 세관이 필요에 따라 종묘법의 소관성청에 의견 조회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키로 하였다.
- 마지막으로 세관에서의 현장 단속 강화 및 통관수속의 신속화 위한 조치로서 국내에서의 테러행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폭발물, 화약류 등에 추가하여 아동포르노물을 수입 금지품에 추가하는 한편 세관 현장 단속을 강화하면서도 통관수속의 간소화 등을 기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 통관수속의 간소화와 관련해서는 법령준수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 화물을 보세지역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신고 및 허가가 가능토록 하고,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수입업자가 납세신고 전에 화물을 인수받을 수 있는 간이신고제도의 실시와 관련해서는 세관장이 적용 대상 화물을 지정할 때 일정 요건 충족 시 HS4단위 기준의 지정도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 이밖에도 이번 개정을 통하여 수출입업자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을 위한 조치도 마련되었는데 예컨대 구조개혁 특별구역에 있어서의 법정 시간외 수속 승인수수료의 경감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한편 FAL조약(국제 해상교통의 간소화에 관한 조약)의 비준에 대비 외국 무역선 등의 입항수속의 간소화를 추진키로 하였다.
- 이번의 개정 조치 내용 중 특히 아국의 대일무역활동과 관련이 있는 조치내용으로서는 ▲특혜관세 적용 제외 조치, ▲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단속 강화, ▲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표시 부정물품 단속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 특히 특혜관세 적용 제외 품목의 경우 특히 우리의 주요 경쟁 상대국인 중국의 적용 제외 품목은 우리의 대일 수출비중이 적지 않은 품목도 포함되어 있어 수출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예컨대 침구(HS940490, 관세율 3.8%)의 경우 2004년 당시의 중국의 일본수입시장 쉐어는 87.3%로 압도적인 1위를 점하고 있고 반면 한국은 1.1%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 한편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단속 강화 조치는 일본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특히 아국의 경우 지재권 침해물품으로 단속되는 케이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아국기업의 철저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바. 일본의 관세와 관련된 주요 참고사이트

- 관세율표: 세관 홈페이지 실행 관세율표 2006년
 - <http://www.customs.go.jp/tariff/2006/index.htm>
- 관세제도, 규격, 절차에 관한 정보, 관세에 관한 Q&A 등: JETRO 홈페이지
 - <http://www.jetro.go.jp/jpn/regulations>
- 관세에 관한 정보 전반: 세관 홈페이지
 - <http://www.customs.go.jp>

18. 주요인증제도

일본의 인증제도로는 JIS(일본공업규격)제도가 대표적이며, 전기용품의 일본판매를 위해서는 PSE마크가 필수적임. 또한, 농산물과 관련된 인증으로는 JAS인증제도가 있음

가. JIS제도

1) 공업표준화법과 JIS

JIS(일본공업규격)는 일본에서 공업표준화 촉진을 위해 공업표준화법(1949년)에 의해 제정된 일본의 국가규격임

2) JIS마크표시제도

일본의 공업 표준화 제도는 공업 표준화법에 근거하여, ‘일본 공업규격(JIS)’의 제정과 ‘일본 공업규격 표시제도(JIS마크 표시제도)’의 운영 두 가지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 2004년 3월 현재 JIS표시제도의 대상이 되는 지정 품목 수는 532건, JIS마크 표시 인정건수(일본 국내)는 12,449건, 해외JIS마크표시 인정건수는 474건임

JIS마크표시제도는 인정을 받은 생산자가 자기 책임 하에 제품에 JIS마크를 표기하는 것임. JIS마크표시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JIS에 적합한 상품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

2005년 10월에 개정된 JIS마크



자료원: 일본규격협회

나. PSE제도

1) PSE마크

2001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전기용품안전법” (구 전기용품단속법)에 의하면 동법에 적용되는 450개 전기용품을 일본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PSE 마크의 부착을 의무화 하고 있음

개정 당시, 구 전기용품 단속법에 근거해 마크(T마크)를 부착하고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기존 제품에 대한 경과조치로, 품목에 따라 5년, 7년, 10년의 유효기간을 두었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이 5년인 259개 품목의 경우, 금년 4월 1일부터는 PSE마크를 부착하지 않고서는 판매가 불가능하게 됨

2) PSE마크 표시대상품목

구 분	주요 품목	유효기간	신 마크	구 마크
특정전기용품 (112 품목) * 2개 품목은 유효 기간 대상 외	온수기, 온장고 등 32 품목	2006.3.31		 <갑종전기용품>
	전기마사지기, AC 어댑터 등 36 품목	2008.3.31		
	형광등용 소켓, 스위치 등 42 품목	2011.3.31		
특정 이외 전기용품 (338 품목)	냉장고, 세탁기, TV, 음향 기기 등 227 품목	2006.3.31		마크 없음 <을종전기용품>
	전기스탠드, 에어컨 등 65 품목	2008.3.31		
	전선관등 45 품목	2011.3.31		

19. 지적재산권

가. 일본의 지적재산권보호관련 제도 개요

일본의 지적재산권 관련법규로는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국제출원법, 부정경쟁방지법, 변리사법 등이 있다. 일본이 가맹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관련조약으로서의 베른협약, UCC, 파리협약이 있다.

일본의 지적재산권 문제에 관한 시각은 특히 최근 들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기술, 자본, 상품의 국제교류 및 국제이전과 관련하여 각종 첨단기술분야의 신기술 보호와 신기술 개발 동기 부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85년 중에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보호를 명문화했으며 반도체 보호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일본은 또한 기술선진국으로서 지적재산권 문제에 있어서는 보호확대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며 신기술 제품의 교역자유화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적극적이다.

그러나 일본의 지적재산권 관련 절차는 자의적인 부분이 많으며, 등록절차도 복잡하고 정식으로 발효될 때까지는 약 5-6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예컨대, 특허권 및 상표권에 있어서 신청·조사 및 검사·부여까지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요한 발명에 있어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의 제기를 접수함으로써 경쟁을 유도하고 있고, 특허 중 특정 경우, 6개월간의 유예기간만 인정하고, 특허신청도 반드시 일본에서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특허에 관해 번역에 따른 오기를 인정치 않으며 특허관련 분쟁도 접수시에 제공된 사례 및 한도 내에서 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지적재산권의 보호 면에서 미흡하다. 특허권의 경우 외국 특허 신청과정의 지연으로 특허권 획득에 보통 2년에서 10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특허보호 범위가 극히 협소하여 경쟁사에 의한 유사특허의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상표권의 경우도 4년이 소요되고 이 기간 중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벌금도 부과되지 않고 있으며 판권의 보호기간도 30년으로 여타국에 비해 짧다. 현행 일본의 특허법 하에서는 행정기관이 수입하는 경우 특허모조품을 배제하지 못하며, 특허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당사자가 직접 재판소에 침해를 중지토록 또는 침해에 의해 발생한 부당이익을 반환하도록 제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과다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제소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최근 들어 반도체 등 첨단산업분야에서의 기술보호,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오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일본정부는 2003년에 지적재산 입국을 표방하고 특허 심사의 신속화, 대학과의 공동연구활동 등을 집중 지원해오고 있으며, 국제적인 특허분쟁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지적 재산고 등 재판소도 신설 예정으로 있는 등 특허관련 정책을 집중 강화해 오고 있다.

이처럼 지적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한 인프라가 착착 정비되어오면서 지금까지 국제적 소송을 주저해오던 일본기업이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최근 들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 중에 후지츠가 삼성 SDI 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PDP 소송(이후 화해로 조정완료)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우리 정부, 업계의 관심과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나. 형태별 개요

1) 저작권

일본은 1970년 저작권법을 제정하였으며 그 후 수 차례에 걸쳐 동 법을 개정해오고 있다.

일본의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 소설, 드라마, 논문, 강연 및 기타 문학작품
- 뮤지컬 작품
- 안무 및 판토마임
- 그림, 조각 및 기타 예술작품
- 건축물
- 지도, 차트, 모델 7. 영화
- 사진
- 프로그램 등
- 방송, 유선방송 등으로 구분된다.

데이터베이스, 유선회로 TV, 비디오텍스 등의 이른바 뉴미디어에 의한 새로운 정보서비스도 1985년의 저작권법 개정 시 소위 편집저작권과 저작권 인접권으로 보호 대상에 포함하였다. 한편 컴퓨터 소프트웨어도 85년의 저작권법 개정 시 보호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소위 창작 년월일 등록제도를 취하여 설사 동 컴퓨터 프로그램이 공표되지 않은 것이라 지라도 창작과 함께 그 저작권이 보호된다.

일본의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저작권 보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호기간
 -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50년(단, 영화 사진작품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창작 후 50년)
 - 외국저작물의 경우는 베른 조약에 의거하여 보호. 단, 원 저작국의 보호기간이 일본 보다 짧은 경우에는 원 저작국의 법률에 의함
 - 공연, 다. 반, 방송 및 유선방송의 경우 첫 공연 또는 방송으로부터 20년
- 저작권 위반에 대한 제재
 - 저작권 침해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 상업용 다. 반복제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

2) 실용신안권

실용신안법은 1905년 제정되었으며 그 후 수 십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현행 법률은 1959년의 개정 실용신안법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일본은 실용신안에 있어서 심사주의, 1 고안 1 출원, 선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호기간: 출원공고일로부터 10년 (단 출원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출원공고: 다음 항의 특허법과 동일

- 위반에 대한 제재
 - 실용신안권 침해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
 - 사기행위에 의해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
 - 특허청 또는 법원에서 위증을 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 반도체칩의 설계 (LAY - OUT)

일본의 반도체칩 회로배치 방법의 보호는 지난 83년 미국과 일본간의 첨단기술산업 작업회가 반도체칩의 배치방법에 대한 미국과 일본 양국정부에 건의한 데 따라 실시되었다.
(미국은 84년부터, 일본은 85년부터)

일본의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호기간: 등록일로부터 10년
- 등록신청: 최초 제조 후 2년 이내에만 등록신청 가능
- 권리의 양도 및 이용권의 설정: 특허권자는 권리의 양도, 전용 이용권 및 통상 이용권의 설정이 가능
- 보상금 청구의 소급성: 등록전에 회로배치가 모방되고 이용되는 경우 등록권자는 등록 후에도 그 보상금 청구가능
- 위반에 대한 제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

3) 종묘권

1978년 제정된 "종묘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호기간: 등록일로부터 15년. 단 과수 재목 등은 18년
- 위반에 대한 제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

4) 상표권

일본에서 상표법은 1959년에 제정된 이래 수 차례의 부분수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본 상표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요 보호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호기간 : 출원등록일로부터 10년. 갱신가능
- 상표 등록권자: 선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상표가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이 필요
- 불사용 취소: 3년
- 출원공고 (이의 신청기간): 3개월
- 상품분류: 34류
- 위반에 대한 제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5) 의장권

일본 의장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호기간 : 의장등록일로부터 15년

- 신규성 장애 요인 : 국내외 공용공지, 국내외 간행물 게재
- 심사주의
- 등록표시 필요
- 위반에 대한 제재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

6) 특허권

일본 특허법은 1899년 제정된 이래 20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왔는데, 현행법률은 1959년 개정법률을 그 기초로 하고 있다. 일본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호기간: 출원 공고일로부터 15년. 단 출원일로부터 20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또 추가특허는 원 특허의 소멸과 동시에 소멸한다.
- 신규성 장애요인: 공지공용, 국내외 간행물 게재
- 특허대상이 될 수 없는 발명: 원자력 변환의 방법에 의해 제조되는 물질
- 이의신청: 출원공고가 있을 때는 누구든지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특허청장관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 실시의무: 특허권 부여 후 동 권리가 3년간 적절히 사용되지 않을 경우 강제실시가 허용된다. 강제실시는 통산성대신의 요청에 의해 실시된다.
- 심사청구: 출원일로부터 7년
- 출원공고: 특허청장관은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출원공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 위반에 대한 제재
 - 특허권 침해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 사기행위에 의해 특허를 받은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 허위표시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 법원 및 특허청에서의 위증: 10년 이하의 징역

최근 인터넷 소프트에 대한 copy 방지목적으로 소프트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인정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다. 지적재산권 침해 수입물품 단속현황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2005년 지적재산 침해물품 수입단속실적은 1만 3467건으로 전년 대비 47.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된 물품 수는 약 110만점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하여 일본 정부의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단속이 엄격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국산 제품의 단속 실적 건수가 약 1.9배로 증가하여 전체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6.7%에서 46.6%로 대폭 증가하였다.

침해 건수는 중국산이 6,278건으로 1위, 침해 물품수는 한국산이 6,045건으로 1위였다.

국가별 지적재산권 침해 수입품 단속실적

(상단:건수 / 하단:물품수)

국 가	2001년	구성비	2002년	구성비	2003년	구성비	2004년	구성비	2005년	전년비	구성비
중 국	202	7.2	552	7.9	1,630	22.0	3,358	36.7	6,278	187.0	46.6
	383,332	38.0	534,495	53.8	395,265	51.2	434,980	41.9	448,680	103.1	40.9
한 국	2,177	77.4	5,334	76.4	4,505	60.8	4,598	50.3	6,045	131.5	44.9
	128,609	12.7	231,149	23.3	240,393	31.2	381,371	36.8	458,143	120.1	41.7
홍 콩	231	8.2	476	6.8	625	8.4	423	4.6	369	87.2	2.7
	426,582	42.2	77,587	7.8	58,997	7.6	142,414	13.7	91,223	64.1	8.3
필리핀	48	1.7	140	2.0	299	4.0	387	4.2	365	94.3	2.7
	16,186	1.6	54,503	5.5	28,402	3.7	37,840	3.6	40,974	108.3	3.7
태 국	68	2.4	242	3.5	199	2.7	220	2.4	272	123.6	2.0
	6,077	0.6	33,825	3.4	9,823	1.3	13,939	1.3	25,633	183.9	2.3
미 국	9	0.3	23	0.3	25	0.3	30	0.3	38	126.7	0.3
	315	0.0	1,695	0.2	1,009	0.1	3,702	0.4	2,057	55.6	0.2
대 만	16	0.6	40	0.6	31	0.4	33	0.4	21	63.6	0.2
	6,972	0.7	19,254	1.9	15,871	2.1	5,846	0.6	3,380	57.8	0.3
베트남	2	0.1	13	0.2	24	0.3	15	0.2	15	100.0	0.1
	11,000	1.1	4,190	0.4	1,780	0.2	1,316	0.1	616	46.8	0.1
싱가포르	2	0.1	8	0.1	2	0.0	8	0.1	12	150.0	0.1
	7,224	0.7	1,176	0.1	1,108	0.1	2,210	0.2	4,375	198.0	0.4
이탈리아	37	1.3	110	1.6	24	0.3	16	0.2	11	68.8	0.1
	17,643	1.7	17,019	1.7	592	0.1	743	0.1	535	72.0	0.0
기 타	20	0.7	40	0.6	48	0.6	55	0.6	41	74.5	0.3
	6,018	0.6	18,015	1.8	18,066	2.3	12,636	1.2	21,784	172.4	2.0
합계	2,812	100.0	6,978	100.0	7,412	100.0	9,143	100.0	13,467	147.3	100.0
	1,009,958	100.0	992,908	100.0	771,306	100.0	1,036,997	100.0	1,097,400	105.8	100.0

주: 발송국(지역) 기준이며, 원산국(지역)이 아님.

자료원 : 재무성 (2006년 발표)

20. 소비자보호제도

가. 소비자보호기본법

1968년 5월 제정된 소비자 보호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법률로, 소비자 이익의 옹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나. 제조물 책임법 (PL 법)

PL 법(제조물 책임법)에서는 상품의 결함에 따른 책임을 수입업자가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수입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상품결함에 따른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 등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수출자가 가지도록 계약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시 주의가 요망된다. PL 보험가입을 계약조건으로 내세우는 경우도 있다.

일본의 제조물 책임법(PL 법)은 94년 6.22 참의원에서 최종 가결되어 95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동 법안은 민법의 특례법으로 총 6조 부칙 2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비자 보호 측면이 강화되었으나, 소비자 중시의 미국형 PL 법보다는 기업측에 유연한 유럽형 PL 법에 가깝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계, 중소기업의 입장을 고려하여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고 있으며,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은 도입하지 않고 있다. 책임기간은 유통단계에서 10년간이며, 법률 시행 후 출하된 제품부터 대상이 된다. PL 법 각 조문에서는 제조물의 범위 및 결함의 정의가 상세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재판관의 판단과 해석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이에 따라 각 업계단체에서는 PL 상담센터를 설립,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제품 하자에 의한 손해에 관한 상담은 많지 않으며, 의뢰건수도 점차 축소되고 있다.

다. 소비자보호 조례

소비자보호 조례는 1974년에 고베시가 "고베 시민의 생활을 지키는 조례"를 제정한 이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정해진 소비자보호 조례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등 국회를 통과한 소비자보호 법안보다 내용면에서 훨씬 엄격하다.

라. 독과점금지

1) 개요

□ 독점금지법의 체계 및 구조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이하 獨占禁止法 또는 동법)은 13장, 본문 130조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130조 가운데 실제규정은 20조정도로 나머지는 절차규정이다.

□ 실제규정

독점금지법은 공정,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3가지의 기본정신에 입각하고 있다.

- 독점의 금지: 사적 독점의 금지(3조 전단), 합병, 영업양도, 주식 보유, 임원겸임의 제한, 독점적 상태의 규제.
- 카르텔의 금지: 부당한 거래 제한의 금지 (3조 후단), 사업자 단체의 일정 행위의 금지, 가격의 동조적 인상에 관한 규정

-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금지(19 조)

□ 절차규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권한 및 위반행위의 처리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2) 독점금지법의 연혁

일본의 독점금지법은 1947 년 초에 제정되었다. 제 2 차 세계 대전 후 일본을 점령한 미군 총사령부에 의한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의 反 트러스트 법을 기초로 제정되었다. 원시독점금지법은 기업결합의 엄격한 제한 등 미국의 독점금지법 이상으로 엄격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후 국제정세변화가 미군정의 정책변화를 가져와 급속히 일본경제를 부흥, 자립시키는 정책으로 바뀌어 이를 위한 기업의 자금조달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1949 년 제 1 차 독점금지법 개정으로 규제가 완화되었다.

1953 년의 개정은 큰 폭으로 완화된 내용의 독점금지법이었으나 1977 년의 개정은 제 1 차 석유파동에 의한 물가폭등에 따른 과징금 제도 및 대규모 기업의 주식보유총액에 대한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엄격한 내용으로 바뀌었다. 1992 년의 개정에서는 과징금이 보다 고액화 되었다.

공정거래 위원회의 법 운용은 점차 엄격해짐과 동시에 사안별로 세부지침을 설정하고, 독점금지법 운용에 대한 공정거래 위원회의 기본방침을 알리기도 하며, 산업계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일종의 예방행정활동을 전개해왔다.

3) 독점금지법과 부속법령

독점금지법의 체계를 구성하는 법률로는 다음 3 가지로 모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다.

-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적용제외 등에 관한 법률(독점 금지법의 적용제외에 관한 법률)
- 하청대금지불지연방지법 (하청법)
- 부당 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경품표시법)

공정거래 위원회는 내부기준, 사건 처리 절차, 신고 및 인가 기타 사항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 규칙을 정할 수 있다. (76 조) 공정거래 위원회 규칙 가운데에는 실무상 중요한 것이 많다.

- 인가신청 및 신고에 관한 사항
 - 국제적 협정 및 국제적 계약 신고에 관한 규칙
 - 독점 금지법 8 조에 의한 신고에 관한 규칙

4) 기본개념

독점금지법 제 2 조는 사업자, 사업자 단체, 임원, 경쟁, 사적독점, 부당거래 제한(카르텔), 독점적 상태, 불공정한 거래방법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실제로 개개의 사안에 대하여 각각의 용어를 정확히 적용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 경쟁 및 경쟁의 실질적 제한
 - 독점금지법상의 '경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서로 시장가격 및 품질면에서 보다 우수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과 거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독점금지법은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사적 독점, 카르텔에서와 같은 시장 지배력의 형성·유지 행위를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 '경쟁의 실질적 제한'은 시장에서의 경쟁상태 내지 경쟁기능이 손상된 상태를 가리킨다.
 - 한편 제 2 조 4 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경쟁' 개념은 사업자간에 경쟁 관계가 성립하는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일정한 거래분야'라는 것은 시장을 의미한다. '일정한 거래분야'를 확정하기 위한 요소로서는, 구체적인 경쟁제한행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 거래의 상대방, 거래가 행하여지는 지역, 거래의 단계 등 4 가지를 들 수 있다.

- 불공정한 거래방법
 -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금지는 각종 경쟁에 저해되는 행위를 배제하고 경쟁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것으로 정립함으로써 시장조건을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5) 주요 세부지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법령의 운용에 관하여 다양한 가이드라인 및 사무 처리기준을 공포하고 있다. 그 가운데 주요한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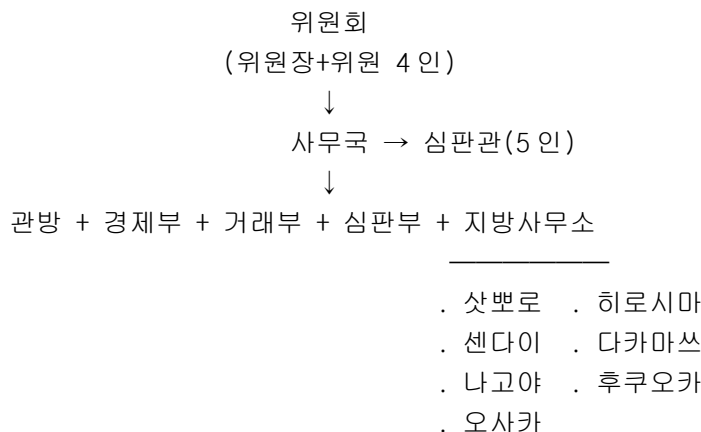
- 불공정한 거래방법
 - 유통거래관행 가이드라인
 - 연속적, 배타적 거래를 배경으로 하는 행위
 - 총대리점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
 - 병행수입의 부당저해
- 공동개발연구에 관한 독점금지법의 지침
- 특허·노하우 라이선스 계약에 관한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규제에 관한 운용기준
- 회사의 합병 등의 심사에 관한 사무처리기준
- 회사의 주식소유의 심사에 관한 사무처리기준
- 국제적 협정 또는 국제적 계약의 신고 관한 규제

6)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권한

- 조직
 - 공정거래 위원회는 독점금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내각부의 외국(外局)으로 설치된 국가행정기관으로서 내각총리대신의 관할에 속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및 4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의 임명은 일 왕(日王)이 인증한다. 사무국 직원 가운데 심판절차를 행하는 심판관은 5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검찰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무국의 정원은 2005년 3월 말 현재 672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의 국과 7개의 지방국을 가지고 있다.
- 권한
 - 행정권한: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배제조치명령, 과징금의 납부 명령 등. 이들의 목적을 위한 신고, 보고서의 접수, 출입검사 등
 - 준입법적 권한: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지정 등. 신고, 인가 등에 관한 규칙의 제정
 - 준사법적 권한: 독점금지법에 위반하는 범죄의 고발. 심판, 심결

독점금지법은 정치적 중립성 하에서 운용될 필요가 있는 데서 공정 거래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직권행사의 독립성이 인정되고 있다.(31 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7) 위반사건의 처리절차 및 조치

독점금지법위반행위를 규율하는 수단으로서 독점금지법은 행정절차, 형사절차 및 민사손해 배상절차의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행정절차에서 심사가 종료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거나 또는 심판절차를 개시한다.

피심판자가 심판개신결정서의 기재사실 및 법률의 적용을 인정하여 공정거래 위원회에 대하여 그 이후의 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결(審決)을 받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제출하고 또한 위반행위를 배제하기 위하여 스스로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그 후의 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결 할 수 있다. (동의 심결)

행위자가 권고를 응낙한 때에는 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권고와 동 취지의 심결을 하다.
(권고심결)

심결에 불복하는 자는 도쿄 고등재판소(전속관할)에 대하여 시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피심판인은 재판소가 정하는 보증금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고 당해 심결이 확정되기 까지 그 집행을 면할 수 있다.

8) 과징금의 납부명령 및 그 처리절차

과징금제도는 카르텔금지 위반행위가 반복됨에 따라 1977년 독점금지법개정에 의해 신설된 것임 과징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상의 조치로서 카르텔을 행한 사업자에 대하여 카르텔에 의한 경제적 이익의 국고에의 납부를 명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은 아니다.

과징금액은 사업자가 카르텔의 실행으로서 사업활동을 행한 날로부터 없어지는 날까지의 기간(실행기간)중 카르텔 대상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정령(政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산정한 매출액에 6% (소매업은 2%, 도매업은 1%)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1/2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7 조의 2, 8 조의 3)

납부명령 불복이 있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심판절차의 개시를 청구할 수 있다. 과징금의 납부를 명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도쿄 고등재판소(전속관할)에 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9) 형사처벌 및 고발을 둘러싼 문제

독점금지법은 89 조에서 95 조의 3 까지 벌칙규정을 두고, 부당한 거래제한 및 사적 독점의 금지 규정 등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최고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엔 이하의 벌금) 그러나 불공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다.

- 일정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양벌(兩罰) 규정 외에 법인의 대표자가 위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대표자를 처벌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 95 조 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외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 89 조 (사적 독점, 부당거래제한, 사업자단체에 의한 일정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의 실질적 제한)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 대하여도 1억엔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 95 조의 2: 제 89 조 1), 90 조의 2) 혹은 3) 91 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계획을 알고도 그 방지에 필요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당해 법인의 대표자에 대하여도 각 조문의 벌금형(최고 5백만엔)을 과한다.
- 상기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 1심 재판권은 도쿄 고등재판소에 있다. (85 조)

사적 독점 또는 부당거래 제한의 금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국제협정 등의 제한, 주식 소유 등의 제한규정의 위반 및 확정 심결 위반의 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고발을 소송조건으로 하고 이 조건을 결할 시에는 공소제기가 성립하지 않다. 일단 공소제기가 성립한 후에는 고발을 취하할 수 없다. (96 조)

공정 거래 위원회는 이 법률규정에 위반하는 범죄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검찰총장에 고발해야 한다. 지금까지 공정거래 위원회가 고발한 예로는 원유 판매업자 12사의 석유 제품 가격인상 결정사건(도쿄 고등재판 판결 80년 9월 26일) 등이 있다.

10) 손해배상청구소송

독점금지법은 사적 독점 혹은 부당한 거래 제한을 하거나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사용한 사업자의 피해자에 대한 무과실 손해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25 조) 이 제도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지만 미국과 같은 3배 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청구권은 결정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재판상 주장할 수 가 없고, 결정확정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에 따라 소멸한다. (26 조)

또한 이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동조 위반 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해액에 대한 의견을 구해야 한다. (84 조)

-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 독점 금지법에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민법 709 조의 불법행위책임 규정에 근거하여서도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1. 교역관련 국가기관

가. 무역관리기관

- 경제 산업성 (Ministry of Economy and Industry: MEI) : <http://www.meti.go.jp>
- 수출조합, 수입조합
- 세관 : <http://www.customs.go.jp>

나. 외국환관리기관

- 경제 산업성 (Ministry of Economy and Industry: MEI) : <http://www.meti.go.jp>
- 재무성 (Ministry of Finance: MOF) : <http://www.mof.go.jp>
- 세관 : <http://www.customs.go.jp>
- 일본 은행 : <http://www.boj.or.jp>
- 외국환은행

22. 시장 특성

가. 일본 시장의 특성

1) 초일류 부품소재 기업이 이끄는 거대 내수 시장

- 일본의 超정밀·고기능 부품·소재 기업은 압도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제조업을 리더
 - 소형모터, 실리콘 웨이퍼, 화합물반도체, CCD소자, 세라믹필터, 청색LED, 광통신용렌즈 등

- 특히, 액정, PDP, 유기EL 등 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우 핵심설비와 부품의 대부분을 일본 기업이 공급
 - 분야별 세계시장 점유율
 - * 액정제조설비(96%), 편광막 보호 필름(100%), PDP부품(94%)
- 또한 일본의 내수시장은 세계 2위로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임

2) 소비의 양극화 진행, 선별적 소비형태

- 경기침체의 긴 터널을 벗어난 일본은 소비자의 소비행태에서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가급적 저가격품을 구입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한편, 자신이 갖고 싶은 것,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에는 높은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
 - 일본의 대표적인 백화점인 三越(미츠코시)백화점은 '05.10월 도쿄 니혼바 시점을 재오픈 하면서 부유한 시니어를 타겟으로 매장을 구성하여 매출액을 올리고 있으며 100엔 샵에서는 플라스틱 가정용품, 식품, 신변잡화 등을 중심으로 진열상품이 확대 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 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대량생산, 대량소비, 매스 마케팅의 시대로부터 다품종 소량생산, 선별소비, 개별적 마케팅으로 이행하는 추세가 명확해지고 있음
 - 전체적으로 소비가 침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명확한 컨셉에 입각하여 개발된 “진품(혼모노, 本物, 흉내 낼 수 없는 것을 의미)”의 상품, 서비스, 확실한 기술력에 기초한 고품질 상품,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상품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추세

3) 유통구조 변화

- 메이커의 유통업계에 대한 지배력 약화
 - 일본은 여전히 복잡한 유통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십 수년 간 크게 변화하여 도매업에서 소매업까지를 수직적으로 지배해온 메이커의 유통시장에 있어서의 지배력이 크게 감퇴되는 등의 변화를 겪어오고 있음
 - 이의 배경에는, 메이커가 가격(다테네, 建値)을 설정, 유통업자의 판매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판명된 점, 소매업자의 PB(Private Brand)상품 개발, IT를 활용한 물류·판매 관리 시스템의 합리화 촉진, 외자계 유통기업이 글로벌 스탠더드 하에 일본의 유통구조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 수입형태의 다양화
 - 종전에는 해외의 메이커가 제조, 가공한 제품을 종합상사, 수입 총 대리점, 전문수입업자가 수입하여 1차도매상으로부터 2차도매상을 거쳐 소매상(전문점, 백화점 등)으로 흐르는 것이 일반적인 수입품의 유통경로였음

- 근년에는 대형 소매상, 도매상에 의한 개발수입, 일본 메이커의 해외 생산공장으로 부터의 역수입이 증가하고 또한 중소 도매, 소매상에 의한 소규모 수입, 소비자가 직접 행하는 개인수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수입 형태가 다양화하고 있음
- 특히 소매상이 저가격, 양질의 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는 형태로 제품조달의 글로벌화가 진전됨에 따라 1차, 2차 도매상을 경유하지 않고 상품이 유통되는 형태가 실현되어 일본의 전통적인 유통경로의 단축, 합리화에 일정부분 기여를 해오고 있음
- 또한 소비자의 니즈의 다양화, 가격경쟁의 격화, 인터넷의 보급 등 수입품의 유통을 둘러싼 환경도 크게 변화해오고 있음

4) Private Brand 상품 생산의 확산

- 글로벌 상품 조달력을 갖춘 소매업체가 자체적으로 생산, 물류를 컨트롤하여 리스크를 부담함으로써 저코스트를 실현하여 소비자의 지지를 받고 있음
- 오리지널리티를 어필하고, 내셔널브랜드 판매에 따른 무한가격경쟁에 휩쓸리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종합 소매업체로부터 중소규모의 소매점까지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
- 과거에는 PB상품이 저가 위주였으나, 최근에는 진품의 PB브랜드상품 개발에 착수하는 케이스가 증가하거나 혹은 아직 일본에 소개되지 않은 상품을 수입함으로써 오리지널 상품을 제안하는 매장이 증가하고 있음

23.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한국에서 일본의 신규 바이어 발굴을 위해서 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KOTRA 등 수출 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해외시장개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KOTRA의 주요 시장개척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상세한 서비스 내용은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자세한 안내가 게재되어 있다.

가. KOTRA 해외시장개척지원 서비스

1) 지사화 사업

지역별로(일본지역은 연간 이용료 360만원) 일정금액의 서비스 이용료를 내고, 해당 지역 KOTRA 무역관 참가가 확정되면 수출희망품목에 대한 해외 현지 시장동향, 바이어발굴 의뢰, 거래상담 지원 등 토털 수출마케팅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현지사정에 능통한 무역관 직원이 전담해서 수출지원 서비스를 행하므로 다른 일회성 서비스에 비해 밀도 높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수출중소기업에 인기가 높다.

2) 해외시장 조사 대행

수출희망품목에 대한 시장성 분석, 관심 바이어 명단 등을 제공 받을 수 있고, 구체적인 현지 시장의 분석자료 등을 의뢰할 수도 있다. 사안별로 서비스 이용가격이 5만원에서 25만원으로 해당 품목의 현지시장성 분석이나, 일회성 바이어 정보 확인의 경우 유용한 서비스이다.

3) 수출 상담회

수출 상담회는 한국상품의 수입을 희망하는 구매단이나 유망 바이어를 해외 각지에서 초청하여 한국기업과 상담회는 개최하는 것이다. 국내 참가업체 모집은 KOTRA 홈페이지나 경제신문 등에 공지한다.

4) 해외시장개척단파견

KOTRA, 국내 지자체, 업종별 전문단체가 주관이 되어 국내 참가기업을 모집한 후 해외 현지로 직접 가서 바이어와 상담한다. 바이어는 해외 KOTRA 무역관에서 알선한다. 농수산물 시장개척단, IT시장개척단, 기계부품, 전자부품 시장개척단 등이 일본지역으로 주로 파견된다. 자세한 일정은 KOTRA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다.

24.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인터넷을 통해 한국기업과 거래를 희망하는 바이어는 다음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다.
- KOTRA의 무역 포털사이트인 바이 코리아 (www.buykorea.org)는 품목 별, 국가 별로 거래 희망 바이어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
- JETRO 비즈니스 매칭 데이터베이스(www3.jetro.go.jp)
 - JETRO에서 제공하는 매치 메이킹 데이터베이스로 영문으로 제공됨
- 그 외 일본의 각종 조합, 협회 등의 홈페이지를 직접 검색하면 해당 회원 기업들의 리스트를 확인 할 수 있다.
- 일본은 수많은 조합, 협회 등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품목은 해당 조합이나 협회가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검색방법은 일본어 검색 웹사이트 (야후 재팬 등)의 검색창에서 한자로 해당 품목명과 조합, 협회를 입력하여 검색하면 된다. 일본어는 한자가 많으므로 일본어를 모르더라도 개략적인 의미를 추정할 수 있다.

25. 상담 요령 및 비즈니스 에티켓

1) 복장

정장이 원칙이고, 와이셔츠도 흰색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최근 비즈니스맨의 경우 자신의 이미지에 맞는 약간의 색상이 가미된 복장을 착용하는 경향이 있으나 패션성이 강하거나 무늬가 요란한 복장은 점잖치 못하다는 인상을 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기본적으로 일본의 비즈니스맨은 아무리 더운 여름철에도 긴 팔 와이셔츠에 상의를 입고 (아니면 들고 다니더라도)다니기 때문에, 덥다고 해서 노타이 차림으로 다른 회사를 방문하

는 것은 실례로 여겨졌으나, 2005년부터 일본정부의 주도로 Cool-biz(하절기 간편복장) 운동이 확산되고 있어, 최근에는 노타이 차림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중요한 상담이나 첫 대면 등에서는 아무래도 정장차림으로 나오는 것이 상대방이 신뢰감을 줄 수 있다.

2) 명함

상담 시 명함 교환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일본에서 명함은 늘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할 필수품으로 인식되어 있다. 또한, 명함은 상대방이 읽을 수 있도록 순 한글로 된 명함 보다는 한자와 영어로 된 명함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일본인들은 대부분 가족으로 된 명함 지갑을 따로 가지고 다니며, 깨끗한 상태의 명함을 상대방에게 건네주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수첩이나, 지갑에서 때가 묻은 명함을 꺼내서 건네주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

3) 상담자료(카다로그, 샘플)

상담이전에 자사 카다로그를 미리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은 꼼꼼하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 상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일본인은 회사의 규모나 실적 등을 중시하므로 회사의 규모나 연혁, 재정상태를 알 수 있는 회사소개자료나 공개해도 무방한 거래처의 리스트 등의 자료를 카다로그와 함께 제공하는 것이 상담에 매우 효과적이다.

특히 거래선 중 유력회사가 있다면 회사의 신용도를 크게 제고할 수 있다. 일본인들에게 활자는 진실에 버금가는 것이므로 무역이나 기타 분야의 정기 간행물 등에 자사나 자사 제품에 대한 소개기사가 게재되었을 경우 이것을 보여주면 더욱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자료는 기본적으로 일본어로 작성하는 것이 비즈니스상담에는 효과적이나 별도로 구비되지 않을 경우 영어자료라도 준비하도록 하자.

4) 좌석

상대방 기업에 방문하였을 경우 방문자는 자리를 안내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상담 태도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타협적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인은 타협할 자세를 갖추고 있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이 너무 많거나 공격적이며 타협자세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사람은 경원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또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시킬 수 있는 노골적인 혐의 과시에 대해서는 대단히 불쾌한 인상을 가질 수 있다.

상담은 중간관리층이 행하는 것이 좋고, 젊은 직원을 상담대표로 보내는 것은 일본측을 불쾌하게 만들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일본인은 상대회사가 상담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규모가 크지 않은 상담에 임원급이 참석하면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으므로 상담대표로는 중간관리층이 가장 적당하다. 상담 시에는 정확하고 간결한 표현을 사용해야 하며 비어나 속어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통역을 두고 상담하거나 일본어에 대단히 능통하고 있지 않는 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비어나 속어의 사용은 좋지 않다.

그러나 오래 동안 거래하여 서로간에 잘 아는 사이일 경우는 농담이나 익살스런 표현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일본기업은 기본적으로 거래선을 바꾸는 것을 싫어하며 가능한 한 동일 기업과 오래 거래하기를 희망하는 경향이 있어 거래선 선정에 대단히 신중하다. 따라서 첫 상담에서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과욕은 금물이며 무엇보다 처음 상담에서는 일본측에게 신뢰 할 수 있고 거래를 해도 안전한 상대방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일본기업과의 거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하여야 하며 지나치게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 하는 한탕주의적인 거래태도는 버려야 한다. 또한 상대방의 발언을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 대화도중 상대방의 발언을 가로 막는 것은 대단한 실례이기 때문이다.

비록 상대방이 이야기가 요점을 벗어나고 있더라도 끝까지 들어준 후 얘기가 끝나면 " 예. 그렇습니다만--- "이라고 발언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끝으로 상대방의 질문이 없으면 관심이 없다는 의미일 수 있다. 겸손은 일본인의 미덕이므로 일본인은 상대방의 상품에 관심이 전혀 없더라도 말로는 표현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이 전혀 없거나 간단한 대답만을 하는 등의 경우는 관심이 없다는 의사표시로 생각할 수 있다.

6) 일본시장은 들어오기는 어렵지만, 일단 들어오면 지속적으로 거래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7) 처음으로 방문하여, 연회석을 마련하는 일은 금물이며, 추후 거래가 성약되고 거래관계가 잘 유지되고 상호 친하게 된 후에는 고려할만하다.

26. 계약 체결시 유의할 점

상대방의 신용상태를 철저히 점검한다. 큰 기업의 경우 홈페이지 등에 거래처, 거래은행이 게재되어 있어 거래실적을 파악해 볼 수 있다. 특히, 큰 규모의 계약이나, 거래실적이 불분명한 바이어인 경우 일본의 유료 기업정보기관(제국데이터뱅크, 닛케이 텔레콤)을 통해 신용조사 의뢰를 해 볼 것을 권장한다.

중요한 상담과정은 반드시 문서(팩스, 우편, 이 메일 등)를 통해 교신하고, 보관하여 둔다. 또한, 거래조건, 대금지불 등 중요한 서신의 경우는 상대방 대표자의 날인이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간혹 담당자의 서명만으로 작성된 서신이 있는 데 이는 향후 문제 발생 시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한다.

계약서 작성은 신중하고,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납기, 물량, 금액에 대한 도량형(단위)에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고, 대금결제 방법, 지불기한 등을 명시한다. 또한, 품질 불량문제 등 사후 클레임 발생에 대비하여 중재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PL법(제조물 책임법)의 강화로 인해 수출상품의 결함 발생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수입자가 모든 책임을 수출자가 지도록 계약서에 표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27. 통관절차

가. 수입통관절차 개요

외국에서 일본에 도착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에 수입 신고하여 검사가 필요한 물품은 검사를 거쳐 수입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 수입신고로부터 시작되어 필요한 검사를 거쳐 관세 및 내국 소비세를 납부하고 수입허가를 받을 때까지의 일련의 절차가 수입통관 절차이다.

□ 수입통관의 흐름

화물의 수입항도착 → 보세지역으로 화물반입 → 수입신고, 납세신고 → 세관에 의한 심사, 검사 → 관세 등의 납부 → 수입허가 → 보세지역으로부터 화물 반출 → 수입자 화물 인수

나. 수입신고

1) 수입신고의 시기

수입신고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이 보세구역 또는 특별히 허가 받은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 반입된 후이다. 다만, 특정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선박 혹은 부선에 물품을 적재한 채 또는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하기 전에 신고가 인정되고 있다.

2) 수입신고자

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해야 하지만 통상적으로 수입자를 대신하여 통관업자에 의한 대리 신고가 이루어진다.

3) 제출서류

수입신고는 통상, 수입(납세)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 수입부문의 품목별(예: 농수산물, 기계 등)통관담당 부문에 제출한다

- 송품장
- 원산지증명서
 - 협정세율 또는 편익관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 일반특혜제도 원산지 증명서
 - 특혜관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 포장명세서, 운임명세서, 보험료명세서 등(필요한 경우)
- 관세법이외의 타 법령의 규정에 의거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서 등
 - 타 법령의 규정에 의거 수입규제를 받는 경우 해당

- 감면세 명세서
 - 감면세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 납부서
 -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4) 수입심사

수입신고서가 세관수입통관부문에 제출되면 다음사항의 심사가 이루어진다

- 수입 신고서, 송품장 등의 제출부수 및 기재사항은 정확한가 또 이들 서류상의 내용은 서로 일치되고 있는지 여부
- 관세법 이외의 타 법령의 규정에 의거 수입허가, 승인을 필요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허가,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
-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관세율표 번호, 세율, 세액 등이 정확한지 여부
- 관세 또는 내국소비세의 감면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필요한 감면세 명세서 기타 감면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

5) 수입검사

수입검사의 목적은 신고내용과 화물의 동일성을 확인함으로써 정확한 관세 및 내국소비세를 확보하고 수입 규제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 권총 등 사회악 적발 등에 있다

- 검사대상물품
 -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는 물품의 종류, 성질, 목적지 등을 감안하여 예를 들면
 - 세번 및 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특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수입 무역 관리령의 규제대상품목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
 - 각성제 단속법,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단속법, 대마 단속법, 독극물 단속법, 식물 방역법 등의 규정에 의한 수입규제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
 - 수량확인을 위하여 특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권총 등 사회악 물품의 부정수입 혐의가 있는 물품 등, 특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중에서 중점적으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 검사장소
 - 수입검사는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고 이와 같은 장소로 세관검사장 및 보세구역 등이 있다. 즉 중량물품, 산물 또는 위험물품으로 지정검사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때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것을 '指定地外検査'라 한다

- 검사의 구분 및 방법
 - 수입검사를 실시할 것 인지의 여부는 세관이 필요에 따라 결정한다. 이것을 '검사 지정'이라 하며 검사 지정된 물품은 검사장소의 구분에 의거 検査場検査(세관구 내 검사장에서 행하는 검사) 또는 現場検査(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보세구역 또는 指定地外 검사장소 등에서 행하는 검사)가 이루어진다. 검사방법으로 전부검사, 일부 지정 검사 또는 견본검사가 있다

6) 수입허가

수입허가는 수입신고가 적법하고 신고서류의 심사 또는 물품의 검사결과, 신고내용과 화물의 동일성이 확인되고 동시에 다음에 제시된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 관세, 내국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들 세금을 납부하였을 것 (납기 연장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
- 물품이 아편, 마약, 기타 수입금지품이 아닐 것
- 타 법령의 규제를 받는 물품은 각각의 법령에 의한 허가, 승인을 득할 것
- 물품의 원산지 등이 허위로 표시되어 있지 않을 것
 - 기타사항 2003년 7월부터 동경을 비롯한 전국 주요 6개(동경, 요코하마 등)항 에서 24시간 동안 통관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체제 구축

* 참고사이트: (사)일본 통관업 연합회 <http://www.tsukangyo.or.jp>; 통관업체 리스트 수록

28. 운송

가. 운송방법

일본과의 화물 운송은 주로 해상운송이 이용되고 있고, 소량 및 단기간 수송이 필요한 경우 항공화물도 자주 이용되고 있다. 샘플 정도의 소량의 경우는 국제우편이나, 국제택배도 이용된다.

□ 해상운송

해상운송은 운항스케줄이 정해져 있는 정기선(Liner)과 차터로 이용하는 부정기선(Tramper)이 있다. 부정기선은 주로 자동차 등 특정화물 수송에 이용된다. 정기선의 대부분은 컨테이너 선이다.

□ 항공운송

- 항공운송이 불가한 화물
 - 항공기 도어(door)크기보다 큰 화물
 - 항공기 하중을 초과하는 무거운 화물
 - 가격이 제한치를 초과하는 화물
 - 위험물 등

- 특별히 제한되어 수송 가능한 화물
 - 제한된 물량 및 용기가 사용된 위험물
 - 항공회사가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포장, 봉인된 귀중품 등
- 일본의 화물운송관련 참고웹사이트
 - (사) 항공화물운송협회 (www.jafa.or.jp)
 - 일본의 화물운송업체 리스트가 탑재

나. 일본 수출 시 경로 별 운송소요시간

한국에서 오사카로 수출할 경우의 예시임. 도쿄, 후쿠오카, 나고야의 경우도 비슷하거나 1일 정도(해상운송의 경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부산항-오사카항(해상운송) : 2일-5일
 - 부산항-오사카항 : 1일(페리선), 2-3일(화물 컨테이너선)
 - 오사카항 도착 후 통관 및 하역처리 : 1-2일
- 인천항-오사카항(해상운송) : 4일-5일
 - 인천항-오사카항 : 3일
 - 오사카항 도착 후 통관 및 하역처리 : 1-2일
 - 관서지역 다른 주요 항구인 고베항, 사카이항의 경우도 소요기간 비슷함
- 인천공항-간사이공항(항공운송) : 1일-2일
 - 인천공항-간사이공항 : 당일
 - 간사이공항 도착 후 통관 및 하역처리 : 1-2일

29. 분쟁해결 절차

가. 당사자간 직접교섭에 의한 방법

1) 화해(Compromise)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계약서, 주문서, 서신 등을 참조하여 당사자간에 배상액 등을 합의 하는 것

나. 제 3자가 개입하는 방법

1) 알선(Mediation)

화해가 곤란한 경우, 당사자가 알선의 합의를 전제로 하여, 당사자 일방 혹은 쌍방에 의해 제3자인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단 알선안은 법적 강제력이 없고, 거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최선이라고는 볼 수 없다.

2) 조정 (Conciliation)

당사자가 조정의 합의를 전제로 당사자가 선택한 조정인이 쌍방의 제출서류 및 주장을 근거로 조정안을 작성하여 쌍방에 양보를 요구하여 해결을 모색하는 방법 알선과 마찬가지로 법적 강제력이 없고, 거부 가능

3) 중재(Arbitration)

국제 상사분쟁 등의 해결방법으로서 화해가 불가능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최선책으로 알려져 있다. 중재는 비교적 비용이 저렴하고, 법적 강제력도 있고, 중재재정(Award)이 나오기까지 시간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타 분쟁해결방법에 비해 강점이 있다.

- 분쟁해결기관: 한국에서는 대한 상사중재원(www.kcab.or.kr) 이 있고, 일본에서는 일본 상사중재 협회(www.jcaa.or.jp)가 있다.

4) 소송(Lawsuit)

상사분쟁 소송을 해결해 주는 국제 재판소가 없기 때문에 자국이나 상대국의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 비용, 언어 등 어려운 점이 많다.

(자료원: JETRO)

30. 유형별 분쟁사례

가. 납기지연에 따른 분쟁

건자재 제조업체인 J사는 일본업체와의 수출계약이 체결되기 전과 체결된 후의 태도가 다르다고 일본업체로부터 원성을 샀다. 일본업체의 주장은 계약 당시의 제품 납기일을 J사가 지연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후 수 차례 약속한 납기일을 지키지 못해 거래처에 신용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납기지연에 따른 지연금 지불 등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입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피해보상을 J사에 요구하였고, 그 금액은 J사의 당초 수출대금에 버금가는 금액이다. 하지만, J사는 처음 납기일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해 착오가 일어났고, 이후 설비자재의 고장 등 피치 못할 사고가 잇따라 납기가 지연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자재는 생산자부터 End User까지 수 많은 유통경로를 끼고 있을 뿐 아니라, 공사납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 시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납기일을 제시하여야 한다. 납기일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일본업체는 납기지연에 따른 지연금 등 추가 지불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 당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나. 대금지불에 대한 분쟁

한국 금형 기업들의 일본 수출 시, 일본기업들의 대금 지불방식은 L/C거래는 극소수이며 대부분 계약 시 1/3, 샘플 검사 시 1/3, 수입제품 검사 후 1/3씩 나누어 결제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국의 A사는 일본측 바이어인 P사와 2004년 말부터 사출성형제품 거래를 시작하면서 바이어가 제시한 계약 시 30%, 제품도착 검사 후 70% 대금지불방식을 수용하여 몇 차례 거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P사는 일본국내에서는 4개월 어음 결제를 하고 있음으로 자금회전의 어려운 점을 들어 A사로 하여금 수출대금 또한 일본 국내방식과 동일한 4개월 어음 결제를 제안하였다. 하지만, A사는 제품가격 인하를 통해 현금결제를 지속하기로 제안하여 P사 담당자와 합의하여 2005년 9월경 추가 주문물량을 수출하였으나, P사의 사장이 다시 4개월 어음결제를 주장하고 있어 대금결제가 계속(2006년2월 현재) 지연되고 있다. A사의 입장으로는 기존 수출대금의 미 회수를 우려하여 바이어의 주장을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지만, 이와 같이 자사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들어 기존에 약속한 대금결제방식의 갑작스런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VI. 투자

31. 외국기업 투자동향

가. 외국 기업의 대일본 투자 동향

일본 경제의 회복으로 1) 여타 제조기업과의 협력이 비교적 쉽고 숙련된 노동력을 확보 가능한 점, 2) 거래선과 보다 가까운 입지를 확보함으로써 납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 3) 첨단 기술, 소비자 니즈와 관련한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 가능하고 이를 상품 개발에 반영할 수 있는 점 4) 외국으로의 기술 유출에 대한 대응 등의 관점에서 투자지로서 일본의 입지조건의 우위성을 재고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미 일부 외자 기업 중에서는 일본에 아시아 역내 본사 기능 및 일본 시장을 겨냥한 제품 개발 거점을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는 등 최근에는 일본의 연구 개발력과 통신 환경, 특정 분야에서의 높은 경쟁력을 고려해 연구 개발 투자에 착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2002년 이후 일본 경제가 민간 수요 주도에 의해 회복되고 있는 점과 더불어 기업 재편 법 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 투자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규제 환경과 관련해서는 M&A 등의 조직 재편을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가 정비되어가고 있으며 회계 기준에서도 국제 수준에 가까운 제도가 마련되어 가고 있다. 나아가 민사 재생법 제정 및 회사 갱생법, 파산법 개정 등 일련의 도산법을 재정비함으로써 경영 부진에 빠진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1) 투자 형태별

전세계의 대일 투자 건수는 2005년 274건으로 전년 대비 -1건,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3년간 대일투자유치 총779건 중 형태별로 살펴보면 M&A 투자가 617건, 그린필드 투자가 162건으로 M&A 투자가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M&A투자에서 일본기업은 2004년에 전년대비 31%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05년에 들어와서는 13.5%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일본 내 외국인기업(일본 법인)에 대한 투자는 2003년~2005년 약 20건 정도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린필드 투자(투자국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의 투자)는 2005년도에 68건으로 전년대비 47.8%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2003년~2005년 대일투자 건수 내역

형태 년	M&A투자			그린필드 투자	합계
	일본기업	일본 내 외국기업(일본법인)	계		
2003	158	24	182	48	230
2004	207	22	229	46	275
2005	179	27	206	68	274
합계	544	73	617	162	779

정보원: 일본 내각부 조사 자료 (2006년8월 기준)

2) 지역, 국가별

과거 투자실적인 779건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북미 382건, 유럽 220건, 아시아 150건, 오세아니아 19건, 그리고 기타지역이 8건으로 북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 2005년까지 북미의 대일본 투자는 전체의 49.0%로 약 과반수를 차지했다. 유럽의 대일본 투자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03년~05년 전체의 28.2%를 차지했다. 아시아도 03년~05년 전체의 1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03년~05년 전체에서 미국이 377건으로 가장 많은 48.4%로 한 국가가 전체투자의 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영국이 91건으로 11.7%, 중국(홍콩 포함) 63건으로 8.1%, 독일 40건으로 5.1%, 프랑스 38건으로 4.9%, 한국 32건으로 4.1%로 상위 6개 국가가 전체의 82.3%를 차지했다.

대일투자기업 연별 지역별 국가별 분류표

지역별	2003		2004		2005		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북미	121	52.7	145	52.7	116	42.3	382	49.0
유럽	57	24.8	73	26.5	90	32.8	220	28.2
아시아	45	19.6	48	17.5	57	20.8	150	19.3
대양주	5	2.2	5	1.8	9	3.3	19	2.4
기타	2	5	4	1.5	2	0.7	8	1.0
계	230	100.0	275	100.0	274	100.0	779	100.0

정보원: 일본 내각부 조사 자료 (2006년8월 기준)

3) 업종별

과거 투자실적의 업종별 내역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221건, 상업 57건, 금융 321건, 비제조업 180건으로 금융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의 41.2%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이 제조업이 28.4%, 비제조업이 23.1%, 상업이 7.3%로 나타났다.

금융업 연별 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04년에 124건으로 전년대비 49.4%의 큰 증가를 보였으나 05년에는 114건으로 전년대비 8.1%의 감소를 보였다.

대일투자기업 연별 업종별 분류표

분류	2003		2004		2005		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제조업	75	32.6	67	24.4	79	28.8	221	28.4
상업	17	7.4	19	6.9	21	7.7	57	7.3
금융	83	36.1	124	45.1	114	41.6	321	41.2
비제조업	55	23.9	65	23.6	60	21.9	180	23.1
합계	230	100.0	275	100.0	274	100.0	779	100.0

정보원: 일본 내각부 조사 자료 (2006년8월 기준)

4) 일본 지역별 투자기업 소재지

799건 중에 대상 기업의 소재지가 일본에 있는 수는 655건이었으며 그 중에 관동 지역(동경 및 그 주변지역)이 488건으로 전체의 74.5%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근기지역이 102건, 아이치 및 그 주변지역이 32건, 북해도 및 동북지역이 12건, 큐슈 및 오키나와가 11건으로 나타났다.

도시 별로 살펴보면 동경이 441건으로 67.3%로 투자가 편중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사카가 79건, 나고야 지역의 아이치현이 22건으로 나타났다.

대일 투자 외국기업 소재지별 분류표

지역별	2003		2004		2005		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북해도, 동북	3	1.6%	5	2.1	4	1.7%	12	1.8%	
관동, 갑신월	도쿄	131	69.7%	160	68.4%	150	64.4%	441	67.3%
	기타	14	7.4%	19	8.1%	14	6%	47	7.2%
	계	145	77.1%	179	76.5%	164	70.4%	488	74.5%
중부	12	6.4%	7	3.0%	13	5.6%	32	4.9%	
근기	오사카	16	8.5%	27	11.5%	36	15.5%	79	12.1%
	기타	6	3.2%	8	3.5%	9	3.8%	23	3.5%
	계	22	11.7%	35	15.0%	45	19.3%	102	15.6%
중국, 사국	1	0.5%	4	1.7%	5	2.1%	10	1.5%	
큐슈, 오키나와	5	2.7%	4	1.7%	2	0.9%	11	1.7%	
계	188	100.0%	234	100.0%	233	100.0%	655	100.0%	

정보원: 일본 내각부 조사 자료 (2006년8월 기준)

32. 우리기업 투자동향

가. 한국기업의 대일투자 현황

- 한국수출입 은행에 따르면 2005년 대일투자건수는 134건, 유치금액 1억7,624만 달러로 전년보다 24% 유치건수는 증가한 반면 금액은 39% 감소하였다. 금액은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나, 전년에 이어 과거 2번째로 많은 금액을 기록하였다. 2005년 대일 직접 투자 국가별 순위를 보면 한국은 미국, 영국, 중국, 독일, 프랑스에 이은 6위로 나타났다.
-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과거 6년간을 보면, 연간 평균 건수는 105건, 평균 금액은 1억2,974만 달러이며, 1999년 이전과 비교하여 확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세계적으로 FDI 건수 및 금액이 늘어난 가운데, 대일 직접 투자는 건수는 늘어난 반면, 대규모 투자의 부재로 인하여 금액은 감소하였다.
 - 2003년, 2004년의 경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로 금액이 비약적으로 늘어남.
- 2005년 대일 직접 투자 동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IT 관련(콘텐츠, 게임 등) 투자가 가장 많으며, 이 밖에 한류 붐을 활용한 식음료점의 FC 전개가 활발하다.(예, 본죽, 이바돔 등)
- 또한, 제품의 경쟁력 상승으로 동양전기 등 기존에 대리점을 통하여 수출하던 아국 중견 기업들의 판매 법인 설립을 통한 일본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연도별 대일투자 현황

(단위: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1990	23	10,020	13	6,768
1991	17	25,324	21	12,123
1992	14	42,724	13	26,682
1993	13	8,758	13	5,999
1994	23	96,210	16	57,954
1995	30	105,708	28	67,623
1996	25	57,108	22	79,906
1997	26	101,434	25	57,083
1998	20	24,337	17	22,678
1999	38	108,781	37	49,219
2000	138	140,051	130	92,426
2001	119	94,079	117	87,812
2002	86	97,160	80	81,679
2003	67	52,024	62	51,524
2004	112	320,036	108	288,732
2005	137	209,193	134	176,239
Total	987	1,525,498	918	1,189,906

정보원: 한국 수출입 은행

나. 개별투자 안건

- 개별안건을 살펴보면, 반도체 메이커인 매그나칩 반도체사가 일본 반도체 개발 업체인 ISRON사를 매수하였다. ISRON사는 휴대전화용 액정 driver IC 등의 개발설계 기업이며 모회사인 SIIX사와 매그나칩 반도체사가 사업 파트너 강화의 일환으로 주식 양도에 합의하였다.
- 오피스 가구 최대 기업인 KOAS사는 일본 동종 업체인 UCHIDA YOKO사와 주식 상호 소유를 통하여 자본 참가 하였고 이는 한-일 각 시장을 대상으로 적합한 제품을 상호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KOAS사는 일본 시장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수납 선반 등을 수출할 예정이며 디지털 오디오 플레이어 메이커인 mpio사는 일본 대리점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으나, 2005년10월에 일본 법인 mpio Japan을 설립, 자체판매를 개시하였다.
- 과거 일본에 진출한 한국 10대기업으로는 일본삼성, 하이닉스, 현대 모터, 한화, 대우 등이 있으며, 최근 한국기업의 대규모 대일 투자 사례로는 삼성전자가 49%를 출자하여 일본 도시바사와 합작으로 설립한 "도시바 삼성 스토리지 테크놀로지 주식회사(2004년 설립)가 있다. 자본금 70억엔, 종업원수 700명, 매출액 2,500억 엔이며 주로 PC용 DVD 드라이브 등의 광디스크장치 개발 판매를 하고 있다.

일본 진출 10대 한국 기업 리스트

(단위: 억엔)

연번	회사명	투자년도	사업내용	자본금
1	일본삼성	1975	도.소매업(전자부품 등)	83.3
2	하이닉스 세미컨덕터 재팬	1996	도.소매업(반도체 등)	64.0
3	현대모터 재팬	1979	도.소매업(자동차 등)	35.0
4	한화 재팬	1984	도.소매업(석유화학제품 등)	6.9
5	대우 재팬	1974	도.소매업(철강제품 등)	4.8
6	KNTV	1996	한국어 위성방송	4.1
7	한샘	1991	도.소매업(시스템키친 등)	3.7
8	포스메탈	1994	냉연강판 제조	3.0
9	진로 재팬	1988	도.소매업(주류제품 등)	2.0
10	LG 재팬	1980	도.소매업(섬유 등)	0.9

정보원: KOTRA 발간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에서 집계

다. 우리기업의 유망 투자 분야

- 한국기업의 지금까지 일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노력을 거듭해 왔지만 성공리에 진출한 예는 많지 않다. 일본기업은 타 외국기업에 비해 시장의 요구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응하는 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일본소비자의 품질에 대한 요구레벨도 대단히 높다.
- 일본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가격, 품질, 구매층 등의 여러 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특히,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IT 분야, 문화콘텐츠 분야의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게임분야에서는 이미 ‘라그나로크’, ‘리니지’, ‘한게임 포탈’ 등이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한국영화, 드라마, 출판 등의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의 활발한 투자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지금 일본에는 블로그, 게시판, 커뮤니티사이트 등으로 대변되는 제2의 인터넷 붐이 일고 있으며, 이미 한국의 커뮤니티 사이트로 Cyworld 가 일본에 진출을 했으며 성공 가능성이 기대된다. 2006년 3월 일본 총무성의 조사에 의하면, 일본의 커뮤니티 사이트 전체 회원수가 약 716만 명으로 조사 되었으며, 이제 태동기의 사업인만큼 앞으로의 급속한 회원 수 증가가 기대된다.

라. 우리기업의 진출전략

- 가깝지만 먼 나라인 일본은 상관습에서도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이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일본에서의 사업은 성공하기가 어렵다.
- 세계적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고 일본국민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Made in Japan’의 상품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한국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일본에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으며, 저가격만으로 일본시장을 공략한다는 것도 큰 오산이다. 동일한 사양의 제품이라면 디자인에서의 차별화를 도모해야 하며, 일본 소비자의 성향과 특성, 그리고 트렌드를 간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또한, 일본기업이 한국 기업과 거래를 할 때에는 완성품이 출시된 실적이 있는지, 자체 제품을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는지, 사장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지 등의 3가지 요소를 중요시하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일본기업의 한국기업에 대한 인상

플러스 면	마이너스 면
프레젠테이션이 자료가 잘 만들어져 있음	큰소리 치지만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의문
영어나 일본어 구사 능력이 뛰어남	일본측 요구사항을 잘 이해하지 못함
결단이 신속 집중력과 행동력이 뛰어남	유사한 회사가 너무 많아 평가가 곤란함
사장부터 직원까지 열의에 넘쳐있음	상담내용이 빈번히 변경되어 안심할 수 없음

정보원 : 2006 해외투자백서 KOTRA

33. 투자환경

가. 일반환경

일본의 대외 투자유치 활동은 90년대 들어 본격화되었다. 지역사회의 자립경제 기반구축과 아름다운 국토창조를 목표로 외국인 직접 투자유치활동을 위한 관련법규를 정비하였다.

외국의 대일 직접투자는 국가 안전 보장상 문제가 있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유이며 자본거래도 완전 자유화 되어 있는 등 법적,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단, 석유업 등 극히 일부의 분야에 대해서 규제가 있다. 그러나 엄청난 地價, 인건비등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여 외국의 대일 직접투자는 여전히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1990년대 일본은 거품경제 붕괴 이후 장기간에 걸친 불황기를 거쳐오면서 기업도산 (야마이치증권 등 대기업 포함)건수 증가, 실업률 상승, 생산위축 등 전후 최악의 경기 침체 현상을 겪으면서 기업은 인원 및 조직 축소, 사업재편 등 구조조정을, 정부도 금융 부실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개혁을 비롯한 제반 경제구조 및 규제개혁을 추진해왔다. 일본 경제는 이 같은 기업과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2002년에 플러스 성장(실질 GDP성장을 1.1% 달성)을 실현한 데 이어, 2003년, 2004년 2% 전후의 성장률, 2005년도에는 3%의 실질 성장률을 달성하였다. 경제성장의 자신감에 의한 제로금리 해지와 디플레이션의 실질적 탈피로 일본 정부는 2006년, 2007년까지 일본경제가 2%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지속적인 경제활성화를 위해 종전까지 해외투자일변도였던 투자부문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 해외자본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2003년 5월 중대일투자회의(본부장 겸 의장 고이즈미 수상)를 설치하여, 투자대상처로서 가장 매력에 있는 국가로 건설하기 위한 각종 투자유치 시책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에서는 2003년 초부터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강화를 위한 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유치 원스톱 서비스 센터를 도쿄도심지인 아카사카에 설치하고 분야 별 전문상담역을 두고 외국인 투자관련 상담 서비스를 실시해오고 있다.

외국기업의 대일 직접투자의 내역을 살펴보면 북미나 유럽 등의 유명기업 혹은 유명 브랜드를 확보하고 있는 국가로부터의 투자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렇지 못한 개도국으로부터의 투자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이는 기업 고유의 뚜렷한 우위요소가 없는 개도국 기업은 일본의 엄청난 지가, 인건비등에 따른 투자비용을 감당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기업은 많은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일본기업의 우위요소와 차별화 될 수 있는 핵심역량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진출 후에도 성공하기 어렵다

일본 투자 시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이 구분 지어 볼 수 있다

- 장 점
 - 방대한 인구 및 시장
 - 높은 소득수준
 - 투자에 대한 법적 자유
 - 무역입국으로 제3국 수출용이
 - 자본거래상 제한 없음
 - 안정된 정치 및 치안
 - 기술인력 확보 용이
- 단 점
 - 엄청난 地價 및 높은 물가
 - 도쿄 및 오사카 중심 평당 신축사무실 임차료 기준

- 높은 임금수준
- 까다롭고 복잡한 유통구조 및 상관습
- 개도국 제품에 대한 나쁜 이미지 및 소비자의 고급 브랜드 제품 선호

- 고급인력, 기술인력 확보의 어려움
 - 고급인력, 기술인력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일본기업을 선호하여 외국 기업은 확보하기 어려움

- 배타성
 - 세계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기업과 경쟁
 - 높은 주재원 부대비용

일본은 90년대 버블경제의 붕괴로 인한 불경기가 13년 이상 계속 되어 왔으나 2002년 이후 경제는 회복세를 보여 오고 있다. 막대한 부실채권으로 인한 금융위기가 제기되어 왔으나 금융재생프로그램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부실채권비율(주요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2006년 5월 기준 2%대로 낮추는데 성공)이 낮아지고 금융부문의 수익성도 개선되어 오고 있어 일단은 큰 위기상황은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일본은 국가 위험도면에서는 가장 안전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객관적으로 낮은 국가위험도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관계를 놓고 보면 우호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종종 역사문제 등으로 파국으로 치달고 있어 이 같은 점이 다른 나라와는 다른 특수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 신회사법 시행에 따른 변화

2005년 6월, 이제까지 일본의 회사법제를 규정해온 상법(제2편), 유한회사법, 상법특례법 등을 하나의 법률로 묶는 신회사법이 가결되면서 2006년 5월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외국기업의 일본진출과 관련성이 높은 개정 항목은 다음과 같다.

- 회사설립의 용이성
 - 주식회사 1,000만엔, 유한회사 300만엔의 최저자본금제도가 철폐되고 유사상호 규제 및 발기설립의 경우 관련 금융기관에 의한 보관증명제도가 폐지되어 회사설립 등기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 외국기업의 지점을 일본에 개설할 경우 대표자 전원이 일본 거주 요건을 충족시켜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최소 1명이 해당요건을 충족시키면 지점 개설이 가능

- 주식회사 기관설계의 유연화
 -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제도가 유한회사가 갖는 유연성을 겸비한 주식회사 제도로 통합 됨. 기관설계는 주식양도제한회사일 경우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이사 1명으로 요건 충족

- 새로운 형태의 회사유형 창설
 - 미국의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및 영국의 LLP(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을 모델로 하는 합동회사(일본판LLC)가 신설됨에 따라 유한책임의 출자자가 임원의 권한 및 이익배분을 협의해 결정할 수 있어 인재집약형 공동사업 및 산업협력에 의한 기업활동의 촉진이 기대됨

- 합병의 유연화
 - 존속회사의 주식으로만 교부가 가능한 현행 합병 대가에 대해 현금과 신회사의 주식을 대용할 수 있게 되었음

나. 투자진출 유망분야

1) 유망분야

일본 통상백서, 경제백서, JETRO백서에 의거한 대일투자진출 진출유망분야는 다음과 같다.

- 주택건설: 2x4공법, 새로운 건축자재, 인테리어 소재 및 시스템 디자인을 도입한 주택 건설
- 의료·복지: 고도 의료기기, 실버서비스, 원격 의료시스템, 생명공학적 의료복지 시설 및 기기
- 환경: 폐기물처리, 자원재활용, 환경조화형 제품
- 에너지: 절전형 전기제품, 폐기물 이용 발전
- 정보, 통신: 정보제공 서비스, Information Network관련 소프트웨어, 통신교육 서비스
- 유통: 대규모 쇼핑센터,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 생활: 스포츠·레저활동 관련제품, 원예, Car Navigation System, 건강관련제품, 예술·문화, 애완용품
- 직업알선: 인재파견, 직업소개
- 경영지원: Outsourcing, 법률 및 경영자문, 업무대행
- 식품: 건강식품, 유기식품, 바이오 관련 식품.
- IT관련 및 정보통신산업
 - IT분야는 특히 우리기업의 일본 진출이 활발한 분야임
 - 소프트웨어 진흥원의 일본사무소(I-Park Tokyo), 중소기업진흥공단 일본사무소 한국 사업 창출센터(전화:03-3508-0673) 등이 설치되어 있어 입주방식에 의한 지원활동을 전개 중임.
 - 기타 온라인 게임 분야 등은 이미 우리 기업(한게임, 그라비티)이 가입자수 1백만 명 이상, 동시 접속 10만 명 이상이라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양해오고 있는 중

2) 특기사항

2004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일본 내 한류 붐의 영향으로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증가해오고 있다. 이 같은 한류는 영화, 드라마, 배우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시작된 것이라 2005년 들어서는 일반상품분야로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2006년도 그 여파를 이어가고 있다.

이미 국산 소프트웨어제품이 일본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고 가전제품, 자동차 등도 서서히 인지도를 높여오고 있다. 이 밖에도 고가브랜드의류분야의 직접 진출도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 본격적으로 한류마케팅을 논하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으나 현재와 같은 한류가 향후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갈 경우에 대비 한류관련상품의 마케팅을 본격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들 분야에서의 일본시장 직접 진출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투자제한 분야

기본적으로 모든 업종에 대하여 진출이 가능하며 사후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별도로 정한 일부 업종은 사전신고를 하거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은 국가의 안전 및 OECD 자본자유화 Code에 의거 개방이 유보된 업종이다. 핵연료제조업, 항공기제조업, 무기제조업, 농림수산업, 석유업, 피혁, 제품제조업 등이 사전신고 업종에 해당한다.

사전허가 또는 면허를 받아야 하는 업종은 은행업, 보험업, 가스 및 전기업, 증권업 등이다. 이들 업종은 각각의 사업법에 의거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후에 영업 개시가 가능하다.

사전신고서는 투자실시 3개월 전까지 일본은행을 경유하여 재무성 및 소관 성 大臣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 접수 시 재무성 및 소관 大臣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직접투자 내용변경 또는 투자중지를 권고할 수 있다.

신고내용이 일본의 국가의 안전 및 외국환관리법상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일본은행을 신고 접수 후 2주일 이내에 투자가능 통지를 한다.

사후신고는 위에 언급된 업종 이외의 모든 업종이 해당된다. 사후신고는 투자 후 15일 이내에 소정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일본은행을 경유하여 재무성 및 소관 大臣에게 하여야 한다.

34. 투자인센티브

가. 일본의 투자관련 우대 조치

일본의 대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우대조치에는 중앙정부차원에서 특정 투자진출 사업자에 대하여 제공하는 세금우대, 책임보증, 저리융자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 단체별로 상이한 우대조치를 제공하고 있다.

특정 투자진출사업자에 대한 우대조치로는 세금우대와 책임보증 제도가 있다. 세금우대는 현행 세법상 5년인 손실금 이월을 10년으로 연장해 주는 제도이다. 책임보증은 투자 진출 후 5년간 차입한 사업자금을 산업기반 정비기금이 차입금의 95%를 10년간 보증해 주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사업소세, 자산세, 취득세 감면 등의 세금우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투자유치 촉진과 관련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低利융자, 대부제도를 운영하는 자치단체도 있다. 주요 우대조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비과세: 특정 지역 내 공장 건립 시 토지보유세 비과세
- 세감면: 생산설비 신 증설 시 3년간 취득세, 사업소세, 고정자산세 감면
- 보조금: 특정생산설비 및 연구소 신 증설 시 고도기술자 1인당 10만엔 보조
- 융자: 특정 생산설비 건축과 관련한 자금의 80%를 년6% 이내로 융자

1) 일본정책투자은행에 의한 융자제도

외국기업 및 외국계기업이 일본에서 사업을 전개할 경우, 토지, 건물 및 기계설비 등의 구입자금, 연구개발자금, M&A 자금을 대해서 정부계 금융기관인 일본 정책 투자은행의 융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문의처
 - 일본정부투자은행 국제부
 - 전화 : 03-3244-1770 팩스 : 03-3245-1938
 - <http://www.dbj.go.jp/>

2) 대일직접투자 종합안내 창구 설치 운영

관계부성청은 2003년부터 대일투자에 대한 행정수속의 명확, 간결, 신속을 도모하고 정보를 원활히 제공하여 대일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 문의처
 - 내각부 대일직접투자 추진실
 - 전화 : 03-3581-8950 팩스 : 03-3581-4772
 - <http://www.investment-japan.go.jp/jp/>

3) 시장개방 문제에 고충 처리 체제(OTO)

일본시장에 진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의 개선을 목적으로 수입 및 대일투자 장벽 등의 정부규제 등에 대한 고충을 내외 기업으로부터의 넓은 의견을 수집 처리하고 있다.

- 문의처
 - 내각부 시장개방문제 고충 처리 대책실
 - 전화 : 03-3581-0384 팩스 : 03-3581-9897
 - http://www5.cao.go.jp/access/japan/oto_main_j.html

4)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지원 서비스

Jetro는 대일투자에 대한 폭넓은 정보제공과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Jetro 대일 투자, 비즈니스 서포터 센터(IBSC)을 설치하여 외국기업의 대일투자 및 대일비즈니스를 지원 하고 있다.

- 문의처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대일투자부 대일투자과
 - 전화 : 03-3582-5571 팩스 : 03-3505-1990
 - <http://www.investjapan.org>
 - E-mail : invest-japan@jetro.go.jp

5) 지방자치단체의 인센티브

지방자치단체의 대부분이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보조금 등의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투자유치에 힘쓰고 있다.

- 문의처
 - 지역별 투자환경 가이드
 - Jetro 홈페이지 Investing In Japan 内
 - <http://www.jetro.go.jp/en/invest/region/>

□ 대내투자 잔고 5년간 2배 증가 목표(투자정책)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이 2003년 1월에 시정방침연설에서 「5년 후에 일본에의 투자잔고 2배 증가를 목표로 하겠다」라는 방침을 표명한 이후, 정부는 대일직접투자 확대를 위한 대처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의 직접투자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해왔으며, 대일투자 확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민간지식인으로 이루어진 대일투자촉진 민간포럼이 대일투자 촉진을 위한 「제3차 개국」추구제언을 고이즈미 수상에게 제출한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촉발되어 정부의 대일 투자회의 하부조직인 외국인 위원을 포함한 지식인으로 이루어진 전문부회는 대일투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대일투자촉진 프로그램」을 정리하기에 이르렀다.

동 프로그램은 대일직접투자 확대가 바로 「일본경제 재생의 열쇠」인 것을 확인하고 대일 투자에 관한 문제점을 5분야로 정리,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74항목의 구체적인 시책을 제시하였음. 각 시책에 대해서는 실행에 책임이 있는 부처·기관명을 병기하여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follow-up에서 진전 정도를 검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에의 투자절차에 관한 정보의 일원적 정보제공 창구 정비나 일정한 조건을 채운 외국인학교 졸업생에 대한 대학수험자격 부여, 유관부처나 JETRO에 의한 해외에서의 적극적인 정보발신 등이 있다.

한편, 외국기업을 포함 기업재편을 원활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 등 개선 도상의 분야도 많이 남겨져 있음. 대일투자는 확대추세에 있으나 수상의 2배 증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보다 확실한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관련 법령

일본의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법령으로는 "외환 및 외국 무역법"이 있다. 한국과 같이 외국인 투자만을 위하여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같은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1992년 7월에 시행된 "수입촉진 및 대내투자사업의 원활화에 관한 임시조치법"이라는 법령에 있어, 손해금액의 이월기간 연장이나 채무보증에 대한 우대조치는 있으나, 이렇다 할 만한 효과가 없어 2006년 4월에 폐지되었다. 현재는 일본정부로부터 외국인투자에 관한 인센티브는 없으나,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단, 이는 외국인투자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주로 일본기업 유치를 위해 이용되고 있다. 일본의 투자유치기관인 JETRO (일본무역진흥기구)에서는, IBSC (International Business Support Center)에서 일본 진출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이 임대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을 제공, 외국기업의 일본 진출을 돕고 있다.

35. 타당성조사

외국인 직접투자진출은 기본적으로 "對內直接投資 等に 관한 政令"에 의거한다.

투자진출이 완료되면 특히 내국법인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 일본 국내법에 의거하여 회사 또는 공장을 운영하여야 한다. 투자진출 관련 주요법령에는 외국환 거래법, 노동법, 무역관계법, 상법, 세법, 특허법 등이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다른 국가에 비해 여전히 규제가 많은 것으로 종종 지적되고 있는 일본에서 국내 지사를 설치한다는 것은 여전히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

일본 내 지사를 설치할 경우, 본국의 본사 세금문제가 일본 지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일본에서 지사를 설치하여 영업 활동을 하는 것은 신중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많은 한국 기업이 일본에 진출하고 있으나, 진출한 국내 주요기업의 진출 형태는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비용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엄청난 地價, 인건비등 초기투자비용 부담이 막대하여 외국기업이 진출하기에는 그렇게 용이한 국가는 아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엔고 극복 차원에서 최근까지도 생산기지 해외이전으로 대표되는 해외투자가 중심이었고 대내 투자유치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처져 있어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일부 제조업 생산거점의 U턴 현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의 대기업을 비롯한 지방의 중소기업은 국내의 높은 제조원가로 인해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의 공장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추세로 현지법인을 설립해 공장가동시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되고 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일본과 같은 선진 기술을 보유한 지역으로의 진출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한국의 제조기업이 일본에 직접 진출하여 공장을 건설하여 운영하는 것은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 투자진출 환경상 장점
 - 방대한 인구 및 시장
 - 높은 소득 및 소비수준
 - 금융자원 활용 용이
 - 인접국과의 교류 용이
 - 투자 및 자본거래 자유 보장
 - 고도 기술수준 이용
 - 풍부한 국내외 시장정보
- 투자진출 환경상 단점
 - 높은 지가, 물가, 임금 수준
 - 높은 물류비용
 - 복잡한 유통구조 및 상관습
 - 전통적 거래선 중시

- 소비자의 고품질 요구
- 고급인력의 외국기업 기피
- 세계수준의 기업과의 경쟁

36. 투자 진출형태 및 설립절차

가. 진출형태

- 외국기업의 일본진출 형태는 아래 4가지가 있다.

1) 주재원 사무소

- 주재원 사무소는 외국기업이 일본에서 본격적인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적/보조적 행위를 실시하는 거점으로서 설치됨. 시장조사·정보 수집·물품의 구입·광고 선전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영업 활동은 할 수 없음. 또, 주재원 사무소의 설치에 등기의 필요가 없음.
- 한편, 주재원 사무소의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 및 부동산을 임차하는 것은 통상 불가능하므로 외국 기업의 본사 또는 주재원 사무소의 대표자 등 개인이 대리인으로서 이러한 계약의 당사자가 됨.

2) 지점

- 외국 기업이 일본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점 또는 자회사(일본 법인)를 설립 할 필요가 있음. 지점 설치에 외국 기업이 일본에 있어서 영업 활동의 거점을 설치하기 위한 가장 간편한 방법임.
- 지점으로서의 활동 거점을 확보하고 지점의 대표자를 결정한 후에 필요 사항을 등기 하면 영업 활동을 시작할 수 있음.
- 지점은 외국 기업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결정된 업무를 일본에 있어서 실시하는 거점이며, 통상 단독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음. 법률상 지점 고유의 법인격은 없으며, 외국기업의 법인격에 내포되는 일부분으로 취급됨.
- 따라서 일반적으로 지점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의 책임은 최종적으로는 외국 기업에 직접 귀속하게 됨.
- 한편, 지점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부동산의 임차도 할 수 있음.

3) 자회사 (일본법인)

- 외국기업이 일본에 있어서 자회사(일본법인)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일본상법에서 규정하는 주식회사 혹은 유한회사의 법인형태 중에서 선택하게 됨. 상법상 합병회사·합자회사라는 법인격도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이 이들에 출자자가 될 수는 없음.

- 법률상 정해진 소정절차를 거친 후에登記하는 것으로 일본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
- 자회사(일본법인)는 외국기업과 별도법인이 되므로 자회사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에 대하여 외국기업은 법률에 정해진 출자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됨.
- 또, 자회사(일본법인)설립 외에 외국기업이 일본법인을 통하여 대일투자를 시행할 방법으로는 일본기업이나 투자회사 등과의 합작회사 설립이나 일본기업에의 자본참가 등으로 가능함.

4) 유한 책임 사업 조합 (LLP)

- 법인은 아니지만 유한책임사업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을 실시할 수도 있다. 유한 책임 사업 조합은 일본판 LLP로 불리는 사업체로 유한 책임을 지는 출자자만으로 구성되는 조합 조직이다. 출자자끼리의 합의로 조합 내부의 룰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조합 자체에는 납세 의무가 없으며 출자자의 이익 분배에 대해서 과세되는 특징이 있다.
- 다만 은행업이나 증권업, 보험업에 종사하는 외국 금융기관이 일본에 주재원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사업법에 따라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주재원 사무소의 일본국내에서의 사업활동은 본사를 위한 자산구입 또는 보관, 광고, 선전, 정보제공, 시장조사, 기초적 연구 등 본사의 사업수행을 위한 보조적 활동에 한정되며, 일본에 항구적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간주되는 경우 당해 주재원 사무소는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 이러한 주재원사무소는 장래의 일본 지점 또는 현지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 또는 시장 조사를 위한 일본에서의 활동 거점으로서 설치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주재원 사무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과 관련된 자금의 외국으로부터의 송금에 대하여 외환관리상 제약은 없다.
- 단순히 주재원사무소가 아니라 현지에서 영업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지점형태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 현지법인 형태를 취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점 또는 현지법인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는, 일본에서의 사업전망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계획 및 재무 계획을 세운 후에 세무상 어느 쪽이 더 유리할 것인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 현지법인설립과 지점설치를 비교해보면, 유연성이라는 점에서는 지점설치가 우세하다. 지점인 경우 새로 경영조직을 만들 필요가 없고 그 운영방법이나 자본금 등에 대하여 세세한 법률규정도 없다. 현지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감사, 이사회, 주주총회 등 법으로 정하는 임원이나 기관의 설치가 필요하고 자본금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지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정하기만 하면 되고 자본금도 지점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있으면 된다.
- 반면에 현지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이라는 점에서는 현지법인이 우세하다. 현지법인 이라면 법률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청산절차도 엄격한 반면, 지점은 간단하게 폐쇄할 수 있으므로 폐쇄 후에는 일본에 연락처가 완전히 없어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일본의 조세체계상 일본법률에 따라 설립된 현지법인과 외국법인의 일본지점에 대하여 과세되는 주요세금에는 법인세, 법인주민세, 법인 사업세, 소비세 등이 있는데, 이들 세금에 있어서 적용되는 세율은 현지법인이나 지점이나 차이가 없다.
- 그러나 법인세의 과세소득 계산에 있어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예컨대 과세소득의 범위, 세액공제방법, 결손금의 이월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세무에 정통한 유명 회계사무소에 상담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
- 일본에 거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필요한 정보는 무한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고 방대하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가장 초보적인 단계인 주재원 사무소와 지점의 설치절차를 알아보는데 그친다.
- 주식회사 등 현지법인을 설치하고자 하는 업체는 비교적 경험이나 재정능력을 갖춘 중견이상의 기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기초로 하고 추가적인 사항은 현지의 기관을 통하여 진행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일본에 주재원 사무소나 지점을 설치하기로 하였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무소나 지점의 장이 될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파견한다는 사실이다. 일본 국민이나 재일 한국교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일단 VISA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 한국사람을 일본에 파견해 지점을 설치·운영하고자 한다면 취업 VISA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취업 VISA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경영」에 해당하는 재류 자격인정 증명서(Certificate of Eligibility)를 발급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주재원 사무소 설치의 경우에는 「기업 내 전근」이라는 비교적 간편한 체류 자격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각종 필요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설립절차의 전체 과정은 재류 자격 인정증명서 취득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원하는 대로 재류 자격인정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보장되는 점이 없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 통상 일본에 지점이나 주재원 사무소를 설립하는 데는 3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첫째, 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 둘째 무비자(3개월, 1회한)로 입국하여 사무실 및 직원과 거주지를 확보하고 지정설립등기 등을 완료하여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을 하는 단계, 셋째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를 발급 받아 귀국하여 VISA를 신청·취득하고 재입국하여 본격적으로 설립 절차를 완결하고 운영에 들어가는 마무리 단계이다.

나. 거점설치요령

1) 사전준비단계

- 목적 별로 일본에 주재원 사무소나 지점을 설립하기로 결정을 하고 난 후, 거점설립을

담당할 직원이 단기체류자격을 받아 현지로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현지 사전조사와 각종 증빙서류의 준비이다.

- 사전 조사해 두면 좋은 것
 - 필요에 따라 2-3개월 머무를 수 있는 장기 체재용 호텔과 임시 사무실
 - 사무실 물건 리스트
 - 주거 물건 리스트
 - 고용할 사무원의 채용조건 및 근로기준 등
- 준비해야 할 증빙서류(일어번역본 필요)
 -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 시 제출할 입증 자료를 위주로 사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신청단계

- 일본거점설립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단 무비자(3개월, 1회)로 입국을 하여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발급요건을 충족시키는 일이다.
-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대리신청이 가능하므로 일본에서 설립절차 전체를 대행해줄 사람이 있다면 입국할 필요조차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통상의 경우에는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 취득을 포함한 제반 준비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단기로 직접 현지에 들어가 여러 가지 작업을 다 해내는 수 밖에 없다.

* 참조 : 2002년 월드컵 공동 개최 이후 임시적인 3개월/1회(현지연장 원칙적으로 불가능) 무비자 제도 실시

□ 사무실 확보

- 거점설립작업 중에서도 상당히 이른 단계에 착수해야 하는 것이 사용할 사무실을 구해서 확보하는 것이다. 설립등기나 공적인 신고, VISA를 취득하기 위한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신청, 은행구좌 개설, 종업원 채용을 비롯한 대부분의 거점개설 작업에는 사무실의 주소가 결정되어 있어야 한다.
- 그런데 주재원 사무소 설치의 경우에 재택근무를 할 생각으로 오피스텔(일본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개념의 오피스텔은 흔하지 않음) 같은 것을 얻는 것도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주거와 분리된 사무실을 임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은 없다.
- 다만,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 발급에 있어 입국관리국의 재량이 많이 적용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대체로 주거와 사무실을 분리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다. 여러 경로를 통하여 사무실을 알아본 후, 어느 정도 대상이 되는 물건이 압축된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교섭에 들어가게 되는데, 일본에 있어서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의 상관습은 우리나라와 다르다. 사전에 다음과 같은 일본의 상관습을 잘 이해한 후 교섭에 임할 필요가 있다.

□ 주거확보

- 현지 거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서둘러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향후 자신이 생활할 주거를 확보하는 일이다. 생활의 거점이라는 의미 이외에도 지점의 대표로 취임하여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주거가 결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선결과제로 된다.
- 주거를 찾는 데는 신문이나 정보지의 광고에 의존하여 찾는 것보다는 부동산 중개회사(브로커)에 의뢰하는 편이 선택의 폭도 넓고 시간도 절약된다. 사무실의 경우에는 브로커를 활용하는 이외에 직접 소유주를 접촉하는 방법도 있지만, 주택의 경우에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닌 한 직접 접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월 100만 엔 이상의 고액물건에 대해서는 대규모 부동산회사나 금융기관이 주인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직접 접촉하는 것도 가능하다.
- 임대차계약서는 일본국내에서의 계약이기 때문에 통상 일본어를 사용한다. 회사의 사택으로 임차하는 경우에는 계약주체는 실제로 거주하는 개인이 아니라 회사이다. 고액물건일수록 소유주는 회사계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개인도 일본에 거주하는 보증인을 한 명 세울 수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다. 보증인이 없는 경우에 약간의 수수료를 받고 보증인이 되어줄 사람을 수배해주는 업자도 있다.
- 임대차계약은 통상 2년이며, 3개월 전에 통지하면 벌과금을 물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 2년이 지나 그 주거지에 계속 살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분 정도의 갱신료를 지불하고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은 물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다.

주거 임대에 드는 비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내 용	지불처
계약 시	· 敷金(통상 집세 6개월 분) · 첫달 분 집세 · 禮金(關東지역 대부분) · 수수료(통상 집세 1개월 분) 중개회사	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집주인 중개회사
매 월	· 다음달 집세 및 관리비	집주인 또는 관리회사

- 레이킨(禮金)이라는 것은 일본(주로 關東지역)에 독특한 관습으로 월 임차료 2개 월분 내외를 지불하며,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도 반환 받지 못하는 일종의 사례금이다. 시키킨(敷金)은 퇴거 시에 반환 받을 수 있지만 현상복구 비로 얼마 정도 공제하고 되돌려 받는 경우가 많다.
- 지역별로 지불액수가 각각 다르나 관동지역은 2개월 분 내외, 관서지역은 6개월 분을 선납해야 한다. 임대료는 교섭 가능하지만 사무실과는 달리 큰 할인율은 기대할 수 있다.
- 다만 고액 물건일수록 할인율은 높아지는 편이다. 한편, 부동산 중개인에게서는 임차료 1개월 분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택에 입주할 경우 초기 경비가 과다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종업원 확보

- 주재원 사무소의 경우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으나 지점개설을 위하여 '투자·경영'에 해당하는 재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현지직원의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 본래 종업원의 채용에 있어서는 채용조건의 결정과 동시에 급여 및 수당규정, 인사고과규칙, 취업규칙, 연금플랜 등의 인사제도를 작성해둘 필요가 있지만, 실제로는 인사제도 구축은 이것저것 처리할 것이 많으므로 채용 예정자의 얼굴을 보아가며 제도화 해 가는 경우가 많다.
- 하지만 일본에 있어서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법률인 노동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관계조정법뿐만 아니라 노사관련 각종 관행을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 일본 현지에서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일본의 사회보험제도에 따른 보험가입의무가 발생한다. 사회보험제도에에는 후생성 관할 사회보험(건강보험, 후생연금보험) 및 노동성 관할 노동보험(고용보험, 노동자 재해보상보험)의 4가지가 있다. 건강보험과 후생연금보험은 원칙적으로 일괄 가입하여야 한다. 법인조직은 전부, 개인의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가입으로 되어있다.
-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소(예컨대, 3명의 현지직원이 있는 주재원사무소)도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市區町村 사무소에서 개인적으로 건강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에, 후생연금보험대신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도 있다.
- 한편, 종업원의 퇴직금은 고용계약에 따른다. 법률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고용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조항을 삽입하지 않으면 지급할 의무가 없다.

□ 지점(사무소)의 설립

- 주재원사무소를 설립할 경우에는 은행업이나 증권업, 보험업의 경우 해당사업법에 따라 사전신고를 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허가나 면허를 받을 필요는 없다. 또한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법상 등기가 필요 없으며, 세법상으로도 법인세 과세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지점의 설립절차에 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 사무실, 주거, 종업원 등이 확보되고 나면 실제로 지점 설립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 지점 설립절차는 설립등기로 일단 완료되는데 등기절차를 밝기까지의 필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각종 인허가사항의 유무 확인
 - 外爲法상의 사전신고 요부 확인
 - 개인의 인감 작성 및 인감증명 취득
 - 회사의 인감 작성
 - 지점설립등기

(각종 인허가사항의 유무 확인)

- 지점을 설립하기 전에 관공서의 인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각 도도부현청에 인허가의 유무와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그 취득방법에 관하여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外爲法상의 사전신고 여부 확인)

- 지점설치는 外爲法(外國爲替 및 外國貿易法) 제26조 2항 5호에 따른 대내직접투자해당되므로, 일본은행을 경유하여 대장성대신 및 소관대신에 대하여 사후보고 또는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특히 심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후보고가 원칙이며,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사후보고도 필요 없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일본은행 또는 외국환취급은행이나, 변호사, 사법서사, 행정서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경우가 많다.
- 일본은행 국제국 투자과 대내직접투자계
 - 東京都 中央區 日本橋 本石町 2-1-1
 - Tel : 03-3279-1111

(개인의 인감작성 및 인감증명 취득)

- 인감을 만들어 인감증명서를 취득하여야 지점의 대표로서 설립등기를 할 수 있다. 인감은 주거지의 사무소(市役所·區役所)에 등록함으로써 인감증명을 교부 받을 수 있다.

(회사의 인감(대표인) 작성)

- 등기신청서에 날인해야 하는 대표자가 등기소에 신고하는 인감으로, 개인인과 겸용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별도로 한다. 지점설립등기 직후에 대표인을 인감증명서 교부신청서에 날인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면 등기소로부터 지점의 대표자의 인감증명서가 교부된다.

(지점설립등기)

- 지점을 신설한 경우에는 3주 이내에 법무국 산하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지점의 신설은 정관이나 연차보고서의 번역 등 방대한 작업이 되어 비용이나 노력의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하지만, 宣誓供述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하게 지점등기를 할 수 있다.
- 우선 지점의 경우에는, 정관을 새롭게 작성하는 대신에 본국 모회사의 정관 원본을 가져와 모회사의 기본정관, 부속정관, 일본지점 대표자에 대한 임명장 또는 고용 계약서, 선서 공술서 등을 지참하고 주일 한국대사관을 방문하여, 대사관에 주재하는 공증인 앞에서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선서한 후, 대사관에서 서류를 인증해 받는 절차이다.

□ 관공서에 대한 각종 신고 및 보고

(세무신고)

- 세무신고에는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청 산하의 세무서에, 지방세와 관련하여 별도로 해당 지자체 소속 都道府縣稅事務所에 각각 하여야 하는데, 보통 회계-세무 사무소에 대행시키는 경우가 많다.
- 세무신고 중에는 청색신고승인신청서라는 것이 있는데, 기업은 청색 또는 백색 중 어느 하나의 신고법인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백색법인에는 특별히 우대세제가 없지만, 청색신고법인에는 각종 세액공제와 더불어 '특정 대내투자 사업자'로 인정 되면 회사 설립일 이후 3년을 경과하는 날까지 종료하는 각 사업 년도에 발생하는 결손금을 10년을 한도로 하여 이월할 수 있는 세제상의 이점을 향유할 수 있다.
- 대신, 청색신고법인은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거래를 복식부기원칙에 따라 기록함과 동시에 장부서류의 법정기간 보존이 의무화된다. 일본지점의 설립의 경우, 당해 사업 년도를 포함하여 청색신고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설립 후 3개월을 경과한 날과 설립 후 최초사업 년도의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의 전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사회보험관련신고)

- 사회보험관련 신고에 대해서는 '4) 종업원확보' 에서 언급한 바 있다.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취득

- 지점 또는 주재원 사무소 설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류자격인정증명서와 취업 비자의 취득문제이다. 비자발급은 입국허가를 추천하는 의미로 외무성(재외공관) 소관사항 이며, 재류자격 인정서 증명교부는 일본 내에서 상당기간 이상의 체재를 인정하는 의미로 법무성 입국관리국 소관사항이다.
- 재류자격은 통칭 VISA STATUS라고 부르는데 27종류가 있으며, 이 중 취업 VISA STATUS에 해당되는 것은 14종류가 있다. 그 중에서 지점설치의 경우에는 '투자·경영' 이라는 재류자격이 필요하고, 주재원 사무소 설치의 경우에는 '기업 내 전근' 이라는 재류 자격이 필요 하다고 보면 된다.
-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의 신청은 본인이 직접 출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외에서 신청하는 사람을 위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대리 신청은 대리신청뿐 아니라 인정신청까지 허용되는 행정서사(신청중개자증명서라는 분홍색 증명서를 갖고 있으며, 일본국내에 약 100명 정도 밖에 없다.) 에게 의뢰하는 경우, 본인은 한번도 입국관리국에 출두하지 않고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다.
- 신청의뢰는 변호사, 사법서사, 기타 행정서사에게 의뢰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들은 인정신청 수속을 신청중개자 증명서가 있는 행정서사에게 재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청대행 비용은 25만엔-80만엔 정도이다.

- '투자·경영'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시 제출서류
 - 재류자격 인정 증명 교부 신청서: 양식 1, 2B(상용, 취직), 3B(상용, 취직) 1통
 - 사진 2매
 - 입증자료(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제3에 기재된 자료, 단 공공간행물 등에서 회사 개요가 명확한 경우에는 불요)
- 무역 기타 사업의 경영을 개시 혹은 이런 사업에 투자하여 경영을 하는 경우
 - 사업내용을 명확히 하는 자료: 상업·법인등기부등본(발행 후 3개월 이내의 것), 최근의 손익계산서 사본(신규사업의 경우 향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 당해 외국인을 제외한 상근직원총수를 입증하는 자료: 회사 안내서 또는 고용보험 납부서 등 사본, 상근직원수가 2인인 경우 당해 2인의 직원에 관련된 다음의 자료(고용계약서 또는 임금대장 사본, 주민표 또는 외국인 등록증 사본)
 - 사업소의 개요에 관한 자료: 회사 안내서, 사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업소의 개요를 설명하는 자료
- 무역 기타 사업의 경영을 개시 혹은 이런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신하여 그 경영을 하는 경우
 - 사업내용을 명확히 하는 자료: 상업·법인등기부등본(발행 후 3개월이 내의 것), 최근의 손익계산서 사본(신규사업의 경우 향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 당해 외국인을 제외한 상근직원총수를 입증하는 자료: 회사안내서 또는 고용보험 납부서 등 사본, 상근직원수가 2인인 경우 당해 2인의 직원에 관련된 다음의 자료(고용계약서 또는 임금대장 사본, 주민표 또는 외국인 등록증 사본)
 - 사업소의 개요에 관한 자료: 회사안내서, 사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업소의 개요를 설명하는 자료
 - 다음의 어느 하나로 활동의 개요, 기간, 지위, 보수 등이 기재된 문서: 계약서 사본, 파견장 사본, 인시이동통지서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
- 일본 내에서 개시 또는 투자된 무역 기타 사업의 관리에 종사 또는 무역 기타 사업의 경영을 개시, 혹은 이런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신하여 그 관리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 사업내용을 명확히 하는 자료: 상업·법인등기부등본(발행 후 3개월 이내의 것), 최근의 손익계산서 사본(신규사업의 경우 향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 당해 외국인을 제외한 상근직원 총수를 입증하는 자료: 회사안내서 또는 고용보험 납부서 등 사, 상근 직원수가 2인인 경우 당해 2인의 직원에 관련된 다음의 자료(고용계약서 또는 임금대장 사본, 주민표 또는 외국인 등록증 사본)

- 사업소의 개요에 관한 자료: 회사안내서, 사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업소의 개요를 설명하는 자료
- 사업의 경영 또는 관리에 있어서 3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다음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문서: 재직하고 있던 기관이나 재직중인 기관에서의 직무 내용 및 재직기간을 증명하는 문서, 대학원에서 경영 혹은 관리에 관계되는 과목을 전공한 기간을 입증하는 문서
- 다음의 어느 하나로 활동의 개요, 기간, 지위, 보수 등이 기재된 문서: 계약서 사본, 파견장 사본, 인사이동통지서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
- '기업 내 전근'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 시 제출서류
 - 재류자격 인정 증명교부 신청서
 - 사진
 - 입증자료(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 표제3에 기재된 자료, 단 공공간행물 등에서 회사 개요가 명확한 경우에는 불요)
 - 다음 중 어느 하나로 외국의 사업소와 일본의 사업소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문서: 안내서, 사업자 등록 관련서류, 또는 그에 준하는 문서
 - 일본의 사업소의 개요를 설명하는 자료: 상업, 법인 등기부 등본(발행 후 3개월이 내의 것), 최근의 손익계산서 사본(신규사업의 경우 향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안내서
 - 외국의 사업소에 있어서의 직무내용 및 근무기간을 입증하는 문서: 외국의 사업소에서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등 전근 전 1년간 종사하였던 직무내용 및 근무기간을 입증 하는 것
 - 외국의 사업소의 개요를 명확히 하는 자료: 상업, 법인 등기부 등본(발행 후 3개월 내의 것), 최근의 손익계산서 사본(신규사업의 경우 향후 1년간의 사업 계획서)
 - 다음의 어느 하나로 활동내용, 기간, 지위 및 보수를 입증하는 문서: 전근명령서 사본, 파견대상기관의 사령장 사본, 이에 준하는 문서
 - 졸업증명서 및 경력을 입증하는 문서: 졸업증명서 또는 그 사본, 신청인의 이력서
 입국관리국에서는 제출서류에 대하여 " XX를 입증하는 서류" 라는 식으로 규정할 뿐, 서류의 세부사항이나 양식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서류의 기재방식이나 표현 방법의 타당성과 보조자료의 제출 등 운영면에서의 세부적인 판단은 창구의 입국 심사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는 특별히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신청 후 2~3개월이면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한 체류자격과 다른 자격으로 증명서가 발급될 수도 있는데, 체류자격의 최종결정은 입국 관리국에 맡겨져 있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마무리 단계

□ VISA취득 및 재입국

- 일본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받고 나면 국내에서 소재하는 일본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비자 신청을 하게 된다. 일본공관에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비자발급신청서 1부,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원본 및 사본 각1부, 신청인의 사진 2매를 제출해야 한다.

- 비자 신청을 하면 일본공관에서는 여권의 비자 페이지에 VISA STATUS를 표시하는 도장을 날인하고 그 밑에 재류자격번호를 기입해준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제출해도 재외공관 서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대로 각각 소관부처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대비하여 재류자격인정 증명서 취득 시 상담 또는 대행 의뢰하였던 전문가와 계속 연락을 유지하여야 한다.
- 취업비자로 일본에 입국하면 입국항에서 입국 심사관이 여권에 재류자격의 도장을 찍어준다. 이것으로 일본에서의 장기체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업 내 전근' 은 1년마다 비자 갱신을 하여야 하며, '투자.경영' 은 1~3 년마다 갱신한다. 비자 갱신 역시 다소의 수고가 필요한데, 주거지를 관할하는 입국 관리국(사무소 소재지 관할 입국 관리국이 아닌 점에 주의)의 지침에 따라 갱신하면 된다.

3) 각종후속조치

□ 외국인 등록 증명서

- 일본에서의 재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취업비자로 입국하여, 주거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난 후 그 주거지 관할 사무소에 등록을 한다. 신규 등록절차는 사무소의 창구에 비치되어 있는 외국인 등록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한 후 여권 및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기간은 약 2~3주 정도 걸리며, 카드형식의 외국인 등록 증명서를 교부 받게 된다.

□ 재 입국 허가 신청

- 일본은 주재 중 귀국 또는 제3국 여행을 할 때는 반드시 출국 전에 입국관리국에 가서 재 입국 비자를 미리 받아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내 또는 제3국에서 최초 입국 비자를 받을 때와 같은 절차를 밟아 입국비자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르게 된다. 재입국 허가는 일단 받아놓으면 최장 1년간 유효하며, 기한이 되면 재 신청하면 된다. 허가에는 단수와 복수의 2가지 종류가 있으며 재입국 허가 신청도 대행을 의뢰할 수는 있으나 그다지 어려운 절차가 아니므로 본인이 직접 입국관리국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필요한 서류에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재입국 허가 신청서 1통, 수입인지 등이 있다.
- 현재 한일간 영사회담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별로 통용되지 않는 재 입국 허가제를 철폐 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른 선진국처럼 일단 입국비자를 받아놓으면 비자 유효기간 중 마음대로 출입국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난 98.10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일본측은 우리측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4) 참고사항(거점 설립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

- (주)대일투자 서포트 서비스 (FIND)
 - 주소: Sixth Floor, Akasaka Annex, 2-17-42 Akasaka, Minato-ku, Tokyo, Japan
 - 전화: 03-3224-1203
 - 팩스: 03-3224-9871 (<http://www.fid.com>)

- JETRO 비즈니스 서포트센터 (BSC)
 - 전화: 03-5562-3131
 - 팩스: 03-5562-3110
 - <http://www.jetro.go.jp/EXPORT/jet02-4.html>
- 법무성 입국 관리국
 - 전화: 03-3580-41111
- 외국인 재류 종합 인포메이션센터 (동경)
 - 전화: 03-3213-8523~7
- 입국관리국에서는 외국인과 그 관계자로부터의 상담이나 안내에 응하기 위해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및 요코하마의 각지방입국관리국과 지국에 외국인 재류 종합 인포메이션 센터를 설치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전화와 방문에 의한 문의에 일본어뿐 아니라 외국어도 (영어, 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상담하고 있다. 인포메이션 센터의 운영은 재단법인 '入關協會'에 위탁되어 있다.

37. 입지선정

가. 도심 임대료 현황

도쿄

(단위: 천엔, 3.3평방 밀리미터 당)

지 역	월 임대료(천엔)	보증금(천엔)
마루노우치 오테마치지역 (도쿄의 금융중심지역)	38-45	480-693
가스미가세키지역 (도쿄의 행정중심지역)	26-34	312-408
교바시 니혼바시지역 (도쿄의 상업중심지역)	22-27	264-324
니시신쥬쿠지역 (부도심지역)	17	204

오사카

(단위: 천엔, 3.3평방 밀리미터 당)

지 역	월 임대료(천엔)	보증금(천엔)
우메다지역	9-13	80-122
미도스지혼마치 주변	6-30	60-300

나. 산업단지

1) 響灘東部 工業團地 (HIBIKINADA TOBU INDUSTRIAL AREA)

- 소재지: 1, HIBIKI-CHO, WAKAMATSU-KU, KITAKYUSHU-SHI
- 부지면적: 5,982,735㎡
- 조성주체: 北九州市
- 공단성격: 기타큐슈시 북쪽에 위치한 해안매립 공업단지이며 도시계획법, 항만법에 의거 임해공업 전용지역임.

- 입주비용: 분양가격 26,500엔/㎡ 원칙적으로 계약 시 일괄 지불해야 하나, 분할납부도 가능
- 조성현황, 입주가능시기: 공업용지면적 5,982,735㎡ 중 미분양면적 1,781,224㎡ 계약 시 입주 가능.
- 교통
 - 철도: 신간선 코쿠라역까지 12km, JR와 카마쓰역까지 4km
 - 공항: 후쿠오카 공항까지 약 75km, 기타큐슈 공항까지 약 23km (약 30분)
- 전력: 큐슈전력의 보통고압(6KV), 특별고압(66KV)이 가설되어 있으며 입주 기업의 수요에 따라 대응
- 용수: 기타큐슈시 운영 公共用 수도로 최대 공급량 54,210㎡/일 급수
- 통신: 전화, 컴퓨터 통신 등 통신시설 양호
- 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노동력확보 용이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약 14만엔/월
- 입주자격 및 규제현황: 제조업, 유통업, 일부 서비스업(소프트웨어 업, 정보처리 서비스 업)에 한하며 공해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입주계약 체결 후 2년 내에 조업 개시해야 함.
- 우대조치
 - 보조금: 대상시설이 마루면적 3,000엔/㎡ (2,000㎡를 초과하고 신규 상용 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일 경우 6,000엔)
 - 고용장려금: 공장 신 증설 시 종업원 1인당 30만엔
 - 자금융자: 공장 신 증설 시 1개 기업 당 5억엔
- 입주여건에 대한 의견: 지리적으로 한국과 인접해 있어 대 한국 출입여건은 좋으나, 기타큐슈시의 인구가 약 100만으로 큐슈지역의 수요가 극히 한정되어 있음.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까지 유통할 경우 물류비가 상당한 부담이 됨.
- 공단연락처: 북구주시 경제국 기업 입지과
 - 주소: #803 1-1, SHIRONOUCHI, KOKURA-KITA-KU, KITAKYUSHU-SHI
 - 전화: 81-93-582-2065
 - 팩스: 81-93-581-9352
 - 담당자: MR. GURIBIYA

2) 北九州 테크노파크 (KITAKYUSHU TECHNO PARK)

- 소재지: NAKAHARA SHINMACHI, TOBATA-KU, KITAKYUSHU-SHI
- 부지면적: 53,000㎡
- 조성주체: 北九州市 토지개발공사
- 공단성격: 산업의 두뇌부분을 동 지역에 집적시킴으로써 지역산업의 고도화를 꾀하는 '두뇌 입지법'이 제정되고 기타큐슈 시가 집적 촉진지역으로 지정됨. 소프트웨어 및 연구개발시설의 유치를 꾀하고 있음.
- 입주비용: 분양가격 78,000엔/㎡, 원칙적으로 계약 시 일괄 지불해야 하나, 분할 납부도 가능.
- 조성현황: 공업용지면적 53,000㎡

- 교통
 - 철도: 신간선 코쿠라역에서 12km, JR와 카마쓰역에서 도보 1분
 - 공항: 후쿠오카 국제 공항에서 약 70km (1시간)
 - 도로: 큐슈 공업대학에 근접해 있음.
 - 전력: 전기, 가스, 수도, 전화시설이 집중화 되어 있으며, 보통고압, 특별고압이 가설 되어 있음.
 - 용수: 기타큐슈시 운영 公共用 수도로 급수
- 통신: 통신시설 양호
- 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노동력확보 용이. 생산직근로자의 평균임금 14만 엔/월
- 입주자격 및 규제현황: 소프트웨어업, 정보처리서비스업, 디자인업, 기계설계업, 엔지니어링업, 연구개발시설에 한함.
- 우대조치
 - 보조금: 대상시설이 마루면적 3,000 m^2 (2,000 m^2 를 초과하고 신규 상용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일 경우 6,000엔)
 - 고용장려금: 공장 신 증설 시 종업원 1인당 30만엔
- 입주여건에 대한 무역관 의견: 인구 100만 명의 큐슈지역의 중심지역으로 큐슈공업 대학 과 기타큐슈 테크노센터가 인접해 있어 연구시설, 정보 서비스업의 진출기지로 적당
- 공단연락처: 북구주시 경제국 기업입지과
 - 주소: #803 1-1, SHIRONOUCHI, KOKURA-KITA-KU, KITAKYUSHU-SHI
 - 전화: 81-93-582-2065
 - 팩스: 81-93-581-9352
 - 담당자: MR. KONO

3) 大朝地區 工業團地 (OASA INDUSTRIAL PARK)

- 소재지: OASA, OASA-CHO, YAMAGATA-GUN, HIROSHIMA-KEN
- 부지면적: 181,333 m^2
- 조성주체: 히로시마현 기업국
- 공단성격: 추고쿠(中國)내륙의 공업벨트에 일익을 담당, 공업 재배치법에 의한 유도 지역, 과소지역 활성화 특별 조치법에 과소지역, 공업 입지법에 의한 공장 적지
- 입주비용: 분양가격 16,050엔/ m^2 원칙적으로 계약 시 일괄 지불해야 하나, 분할 납부도 가능.
- 조성현황, 입주가능시기: 공업용지면적 181,338 m^2 , 분양 모집 중. 계약 시 입주 가능.
- 교통
 - 철도: 신요우신간선 히로시마역까지 60km,
 - 공항: 히로시마 공항까지 90km
 - 도로: 중국횡단자동차도 오오아사(大朝) IC까지 1km
 - 전력: 보통고압전력(6,600V고압선)은 현의 부담으로 가설됨.
 - 용수: 1,500 m^3 /일 급수가 가능

- 통신: 전화 등 통신시설 양호
- 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오아사(大朝町)타운의 인구는 약 26,000명이며 고졸자수는 약 400명으로 이중 취업자는 약 100명 수준 임.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약 14만/월
- 입주자격 및 규제현황: 공해방지기준에 의거 환경보전을 위한 각서제출

- 우대조치
 - 보조금: 대상시설이 마루면적 3,000엔/㎡ (2,000㎡를 초과하고 신규 상용 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일 경우 6,000엔)
 - 고용장려금: 공장 신 증설 시 종업원 1인당 30만엔
 - 자금융자: 공장 신 증설 시 1개 기업 당 5억엔

- 입주여건에 대한 의견: 공업 재배치 촉진법에 의거 조성되는 신규공단으로 입주비용은 타 공단에 비해 저렴하나 히로시마에서 약60km 떨어져 입지 조건상 다소 불리함.

- 공단연락처: 히로시마현 상공 노동부 기업 입지과
 - 주소: #730 10-51, MOTOMACHI, NAKA-KU, HIROSHIMA-SHI
 - 전화: 81-82-223-5050
 - 팩스: 81-82-223-6314
 - 담당자: MR. HAMANOTO

4) 三次 工業團地 (MIYOSHI INDUSTRIAL PARK)

- 소재지: MATSUGASAKO, HIGASHI-SAKAYA-CHO, MIYOSHI-SHI,
- HIROSHIMA-KEN
- 부지면적: 756,000㎡
- 조성주체: 히로시마현
- 공단성격: 추고쿠(中國)내륙의 공업지역으로 1983년 4월 정비가 완료된 제조업 중심의 공단으로 인프라가 잘 정비되어 있음.
- 입주비용: 분양가격 14,770엔/㎡
- 조성현황, 입주가능시기: 공업용지 면적 756,000㎡ 중 극히 일부만 미분양 계약 시 입주 가능.

- 교통
 - 항만: 히로시마항까지 60km
 - 철도: 산요우신간선 미요시驛까지 4km
 - 공항: 히로시마 공항까지 60km
 - 도로: 추고쿠자동차도로 미요시(三次)IC까지 2km

- 전력: 보통고압전력(6,600V)이 가설되어 있음.
- 용수: 1,200㎡/일 급수 가능
- 통신: 전화 등 통신시설 양호
- 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산지市 주변인구는 약 10만 명으로 노동력 확보 용이/생산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약 14만엔/월
- 입주자격 및 규제현황: 환경보호규칙에 의거 각서제출

- 우대조치
 - 조성금: 히로시마현의 공장 및 시험연구시설에 해당할 경우 1억 엔의 조성금 지원
 - 자금용자: 공장 신 증설 시 1개 기업 당 3억엔
- 입주여건에 대한 의견: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공작기계, 식품, 목재 등의 제조업과 트럭 운송업이 입주해 있음. 이미 31개사가 입주해 있어 생산거점으로 유리함.
- 공단연락처: 히로시마현 상공노동부 기업입지과
 - 주소: #730 10-51, MOTOMACHI, NAKA-KU, HIROSHIMA-SHI
 - 전화: 81-82-223-5050
 - 팩스: 81-82-223-6314
 - 담당자: MR. HANAMOTO

5) 北攝三田 테크노파크 (HOKUSETSU SANDA TECHINO PARK)

- 소재지: 3-1, SUZUKAKEDA I, SANDA-SHI, HYOGO-KEN
- 부지면적: 989,000㎡
- 조성주체: 주택. 도시정비공단
- 공단성격: 코오베시 중심부에서 북방 27km 떨어진 한신(阪神)도시권에 인접하는 공업 단지로 표고 약 200m의 구릉지에 조성된 제조업중심의 공단. 1971년 공단으로 조성됨.
- 입주비용: 분양 가격 120,000엔/㎡ 원칙적으로 계약 시 일괄 지불해야 하나, 분할 납부도 가능.
- 조성현황: 공업용지 면적 989,000㎡
- 교통
 - 항만: 코오베항까지 20km
 - 철도: JR 후쿠지야마선 신산다역까지 1km
 - 공항: 간사이공항까지 60km
 - 도로: 舞鶴자동차 도로 三田西IC까지 1km
- 전력: 보통고압, 특별고압 등 기업입지에 따라 대응 가능
- 용수: 공업용수 5,000㎡/일 급수, 지하수는 공해 방지협정에 의거 사용 금지
- 통신: 전화 등 통신시설 양호
- 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노동력확보는 용이.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약 16만엔/월

6) 綾部공업단지

- 소재지: 교도부
- 단지면적: 137.5ha
- 입주기업: 9개 업체
- 주요입주기업: 일동정공, 아사히맥주, 토스템등

7) 이색병 산업단지

- 소재지: 大阪府

- 단지면적: 66ha
- 입주기업: 6개 업체
- 주요입주기업: 서효제강, 남해화공

8) 오사가 링구타운

- 소재지: 大阪府
- 신도시형 타운구성
- 입주기업: 51개사
- 전일본공수, 아사히에어포트서비스, 히루마등

9) 풍강중핵공업단지

- 소재지: 兵庫縣
- 단지면적: 47.2ha
- 입주기업수: 19개사
- 주요 입주기업: (주)산마루켄, 단마전자 등

10) 氷上 공업단지

- 소재지: 兵庫縣
- 단지면적: 18.5ha
- 입주기업: 7개
- 주요입주기업: 동양전기, 빙상제작소,村上공업

11) 小野 공업단지

- 소재지: 兵庫縣
- 단지면적: 94.6ha
- 입주 기업수: 7개
- 주요입주기업: 일본햄식품, 高岡화학, 日光제작소

12) 西氷 공업단지

- 소재지: 兵庫縣
- 단지면적: 275ha
- 입주기업수: 7개
- 주요입주기업: 住友시멘트, 三菱전기, 西礮통운

13) 六甲 아일랜드 공업단지

- 소재지: 神戸市
- 단지면적: 580ha
- 입주기업수: 30개
- 주요입주기업: 六甲물류, 大日통운, 神戸이스스자동차, 清水운수

14) 桃山 공업단지

- 소재지: 和歌山縣
- 단지면적: 17.2ha
- 입주업체: 3개사
- 주요입주기업: 半島화학, 桶上擊物(끝)

15) 나고야지역 산업단지

가. 개 요

에도 시대부터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공업지대가 형성되었고 2차 대전 후에는 중공업, 자동차 산업이 발전된 지역으로 제조품 출하액에서 일본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 굴지의 공업지대임. 나고야지역의 산업단지는 집적된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존산업의 고도화, 부가가치화가 진행되고 있음.

나. 아이치현 기업용지 안내

나고야시가 소재한 아이치현(愛知県)의 구조개혁특구로 지정된 곳은 중부공항도시 국제교류 특구(도코나메시 전역/나고야 공항지역), 국제 자동차특구(토요하시시, 토코나메시, 가마고 오리, 미토町, 다와라 전역), 아이치/나고야 제조연구개발 특구(나고야시, 세토시, 카스가 이시, 토요타시, 오하리아사히시, 나가쿠테町 전역)으로 기업용지를 분양 또는 리스하고 있음.

기업용지 및 토지리스 제도에 관한 문의처

기 관 명	주 소	연 락 처
아이치현 기업청 기업입지부 기업유치과 기업유치 그룹	(460-8501) 名古屋市 中区三の丸三丁目1番2号 県自治センター 12階	TEL : 052-954-6691 FAX : 052-961-7004 www.pref.aichi.jp/youchi kigyo-yuuchi@pref.aichi.lg.jp
아이치현 기업청 기업입지부 기업유치과 도쿄유치 그룹	(102-0093) 東京都千代田区 平河町6番3号 都道府県会館 9階	TEL : 03-5212-9092 (대표) FAX : 03-5212-9095
아이치현 기업입지 추진협의회	(460-8422) 名古屋市 中区栄二丁目10番19号 名古屋商工会議所 プロジェクト推進部内	TEL : 052-223-5702 FAX : 052-231-5703
아이치현 기업입지정보코너	(460-8501) 名古屋市 中区三の丸三丁目1番2号 県西庁舎 7階	TEL : 052-961-2111 (대표) 내선 3366 / 3367 FAX : 052-961-7246 www.pref.aichi.jp/shinsangyo/

- 참고로 Jetro 홈페이지에 지역별 투자환경 가이드가 자세히 소개 되어 있다.
- Jetro 홈페이지 Investing In Japan 内 <http://www.jetro.go.jp/en/invest/region/>

38. 공장설립

가. 개요

일본에서는 공장 설립이 가능한 천연 개의 공업단지가 있다.

- 참고 : 지역 별 투자환경 가이드 Jetro 홈페이지 Investing In Japan 内
- <http://www.jetro.go.jp/en/invest/region/>

그러나 공업단지별로 입주조건이 상이하어 최적 입지 선정을 위해서는 각 공업단지별로 사전에 충분한 기초정보를 입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각 지역별 공장용지에 관한 정보는 용지조성 주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수가 가능하다. 일본 전체적인 정보는 통산 산업성 立地指導室이나 일본 입지센터에서도 입수가 가능하다. 전국적으로 공장용지를 조성, 분양하고 있는 지역 진흥정비 공단에서는 기업입지 정보 센터를 개설하여 전국의 공장용지 및 공업단지와 관련한 정보제공과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3월에는 외국기업의 공장입지 선정편의를 위하여 JETRO와 지역 진흥정비 공단이 공장 입지추진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동 세미나에서는 최근의 입지동향 및 외국기업의 입지 경험담 등이 소개된다.

나. 부지 확보

공장 건축을 위한 공장 부지는 임대하는 방법과 분양 받는 방안이 있다. 임대하는 경우 임대조건은 물건마다 상이하어 입주대상 지역을 선정 후 지방자치단체등과 임대 조건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기계기구 제조업 및 Software 개발 등 기반적 기술산업분야의 기업의 경우 지역진흥 정비 공단을 통하여 공장, 사무실을 임차할 수 있으며 동 공단을 이용하는 경우 초기단계에 최소한의 자본만 투자하여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공장용지를 분양 받는 경우는 제세감면, 보조금지급, 융자지원 등의 혜택이 있는 지방공업 단지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도권 등 인구 밀집지역은 工場等制限法에 의거 500s/m 이상의 공장의 신설, 증설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법, 건축기준법에 의거 도시 내의 도시계획 용도지정지역은 공장부지 확보가 제한되어 있다.

지방진흥을 위한 공업지구에 입주하는 경우 공업 재배치 촉진법 및 각종 지역개발법에 의거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다. 세제 면에서 감가상각특례와 사업소세 등 지방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보조금으로는 산업 재배치 촉진비 보조금, 전원지역산업 재배치 촉진 보조금, 지역 고용 개발 보조금이 지원된다.

또한 외국기업의 대일투자 촉진을 위해 일본은행, 지역진출정비공단 등에서 융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단독입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도시계획법에 의거 필요한 신청을 하거나 국토이용 계획법에 의한 신고절차를 밟아야 한다. 용지면적이 2ha를 초과하는 경우는 農林水産大臣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며 2ha이하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한다.

다음과 같은 특정업종의 경우는 공장용지, 공업단지 이외에 사무용지 및 산업단지 내 용지확보도 가능하다. 용도별 입주가능 업종 및 입주지역은 다음과 같다.

- Technopolis 개발: 첨단산업, 학술 관련업종: 大分, 熊本, 宇部 등 26개 지역
- 頭腦입지 개발: Lease, Software, 정보처리서비스, 광고대행업 리스, 소프트웨어 관련 업종: 八戸, 富山, 徳島 등 26개 지역
- 지방거점 개발: 연구소, 첨단Service기업, 지역기반 육성에 기여하는 업종 歳, 石巻, 南國 등 85개 지역
- 지방산업 집적 활성화 개발: 제조업 지원을 위한 기반적 기술 산업: 廣島 등 22개 지역

지역별 분양가격을 포함한 가용用地현황은 일본 입지센타 Home page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다. 공장건설

공장설립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용지조정(농지법,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계획법) - 조성 완료신고(개발 허가권자) - 토지등기(등기소) - 건축확인신청(지방자치단체건축과: 건축기준법) - 특정공장 신고(공장 입지법) - 공해시설신고(지방자치단체장) - 건축

공장설립 절차는 규제사항을 순리대로 처리해 나가는 절차와 같다. 일본의 경우 공장설립과 관련한 규제에는 공장입지법, 건축기준법, 工業等제한법 그리고 환경관련법이 있다.

공장입지법은 특정공장과 녹지면적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다. 특정공장이란 敷地面積 9,000s/m 이상 또는 건축면적 3,000 s/m 이상의 공장을 의미한다. 특정공장을 新增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후 90일 이내에 의견이 없으면 건축이 가능하다. 녹지면적은 공장용지면적 대비 공장부지면적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5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나 일반적인 제조업의 경우 녹지면적이 30/100이상이어야 한다.

건축기준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하고 건축물의 용도와 용적율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다.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동법에 의거 공사 착수 전에 건축확인신청을 지방자치단체에 하여야 하며 신청 후 21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통지를 받을 수 있다.

공업등제한법은 수도권 등 인구밀집지역에 공장설립을 제한하기 위한 법률이다. 동 법률에 의거 수도권의 경우 공장면적 500s/m 또는 1,000s/m이상의 공장은 신 증설이 제한된다.

공해방지관련법은 공해를 규제하기 법률로 수질오염 방지, 대기오염 방지, 소음 방지, 진동 방지, 악취 방지, 폐기물 처리 등이 이에 해당하며 관련시설 설치 시에는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해방지 관련법률은 국가가 제정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법률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법률은 국가가 정한 법률보다 기준이 엄격하다.

라. 공장설립 관련 우대조치

일본은 대도시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방경제 발전 촉진을 위하여 지방에 입지한 기업에 대하여 여러 가지 우대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우대. 지원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조세감면, 보조금 지급, 융자지원 등이 있다.

- 조세상의 우대조치
 - 국세: 특정자산 구입 시 과세특례, 감가상각 자산의 특별상각, 地價稅 산정 시 과세가격 산입 특례, 신규 취득토지 등과 관련한 이자과세특례
 - 지방세: 사업세, 부동산취득세 및 고정자산세 감면, 특별토지보유세의 비과세 및 면제, 地自體의 세제상 우대조치
- 보조금
 - 산업재배치 촉진 환경정비 보조금, 電源지역산업 재배치 촉진 보조금, 지역고용개발 보조금, 지자체 별 보조금
- 융자
 - 일본 정책투자 은행 융자, 중소기업 종합사업단의 고도화 자금 융자, 지자체의 융자
- 지원
 - 인재 육성사업, 기술인력 소개사업, 연구개발 지원사업

39. 투자관련 정부기관

가. 일본투자 안내창구

1) 정부 및 정부위임 창구 기준

일본에 대한 외국인 투자관련 업무는 내각부(대일 직접투자 촉진 대책실)가 정부 조직을 총괄하고 있고 실행 총괄창구를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대일투자 비즈니스 서포트 센터)에 일원화 하고 있다. 이밖에도 소관업무별로 각 중앙부처(공정거래위원회, 총무성, 재무성, 경제 산업성 등) 및 정부금융기관(일본정책투자은행)에도 담당 창구가 설치되어 있다.

- 내각부 정책통괄관부 대일직접투자 촉진 대책실
 - 전화: 03-3581-8950(직통), 03-5253-2111(대표) 내선 45207
 - 팩스: 03-3581-9897
 - Email: invest-japan.be@mfs.cao.go.jp
-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대일 투자 비즈니스 서포트 센터
 - 전화: 03-3584-6042(직통)
 - 팩스: 03-3580-9568
 - Email: dbjmail@dbj.go.jp

2) 기타 지원 기관

- (주)대일투자 서포트 서비스 (FIND)
 - 주소: Sixth Floor, Akasaka Annex, 2-17-42 Akasaka, Minato-ku, Tokyo, Japan
 - 전화: 03-3224-1203
 - 팩스: 03-3224-9871 (<http://www.fid.com>)
- 법무성 입국관리국
 - 전화: 03-3580-41111
- 외국인 재류 종합 인포메이션센터
 - 전화: 03-3213-8523~7

40. 투자관련 서비스기관

가. 일본무역진흥회의 지원

1) 외국 기업에의 대일 진출 지원

- 대일 투자·비즈니스 서포트 센터 (IBSC)
 - 정보 제공·컨설팅
 - 설비가 갖추어진 편리한 개별 오피스
 - 성공 사례
 - 각지의 일본무역진흥회 대일 투자 비즈니스 서포트 센터
- 일본무역진흥회의 투자 지원 프로그램
 - 그룹 초빙 프로그램
 - 세미나, 심포지엄, 상담회

2) 외자 유치에 임하는 자치체에의 지원

- 지역의 외국 기업 유치에 대한 지원 서비스
 - 스텝1: 리서치 & 전략
 - 스텝2: 홍보 & 기업 발굴
 - 스텝3: 초빙
 - 스텝4: 기업의 진출 지원

3) 외국 기업 유치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나. 정부의 지원

- 각 관계 부처의 대일 직접투자 종합 안내 창구를 통하여 안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경제산업성 대일직접투자종합안내 창구(<http://www.meti.go.jp/intro/consult/index.html#c11>)

다. 지역의 지원

- 대일 직접투자 종합 안내 창구
- 지역의 원 스톱 비즈니스 서포트 센터

라. 전문가 상담

일본에서 법인 설립과 관련된 업무는 변호사, 사법서사, 행정서사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각종 서류(지점 및 자회사 설립, 소재지 이전, 임원의 변경, 업무목적 변경, 증자, 조직변경, 합병, 해산 등에 관한 서류 등)의 작성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또한 법인설립 및 운영에 관계된 회계와 세무업무는 공인 회계사와 세무사가 활동하고 있고, 사회보험노무사가 노무관리에 관련한 컨설팅, 개별 노사분쟁 알선 대리, 연금 상담, 기타 고용에 관계된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아울러 특허, 의장, 상표 등의 지적재산권 취득과 관계된 출원수속 대리인으로는 변호사와 더불어 변리사도 2004년부터 소송 대리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투자관련 서비스 기관은 JETRO가 운영하는 Invest Japan 홈페이지에서 각 분야별로 소개하고 있다. (<http://www.jetro.go.jp/en/invest/directory/>)

41. 노무관리

가. 고용 계약

1) 근로 조건 명시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고용계약을 맺는다. 고용자는 다음의 조건의 사항을 서명에 명시하여야 한다.

- 계약 기간 (기간의 규정이 없는 경우는 그 사유)
- 근무 장소 및 그 업무 내용
- 출퇴근 시각, 초과 근로의 유무, 휴식 시간, 휴일, 휴가 등
- 임금, 임금의 계산 및 지불 방법, 임금 지불의 시기 등
- 퇴직에 관한 사항(해고 사유 포함)

2) 고용 계약 기간

고용 계약의 기간은 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기간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이 상한이다. 단지 고용 계약의 기간의 첫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근로자는 고용자에게 언제든지 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3) 인턴 기간

근로자의 정식 채용을 결정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그 근로자의 능력과 적정을 판별하기

위한 인턴 기간을 두는 것은 인정한다. 인턴 기간은 일반적으로는 3개월 정도이나 그 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 그 근로자의 정식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와 같은 것이 되어 그것이 인정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4) 배치 및 전근

일본의 기업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배치 전환과 전근이 빈번히 행하여 진다. 일반적으로 고용자는 업무의 합리적인 필요성에 의해 근로자의 업무를 변경하거나 일시적으로 다른 회사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 권한을 가진다.

나. 취업 규칙

일본에서도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고용 계약이 있으나 고용 계약에 의해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서 설명하는 고용주와 노동자간에 합의 되고 관련 정부 부처에서 승인한 취업 규칙이 자동적으로 적용되어 권리 및 의무가 발생한다.

이는 노동의 평등성 및 기업의 취업에 대한 통일성, 균질성 유지를 위함이다. 취업 규칙은 노동 기준법에 의거하여 정해 지는데 취업 규칙에 포함되는 주요 사항으로 임금 규정, 표창 규정, 복리 후생 규정, 해고 규정 등이 있다.

취업규칙이란 노동시간·임금 등의 노동조건이나, 경영상의 필요로 근로자가 취업하여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규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직장의 규칙이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는 취업 규칙을 작성해 노동 기준 감독서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때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의 의견서 첨부이 필요하다.

1) 취업 규칙의 필수 기재 사항

취업 규칙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 시업 및 종업 시각, 휴식 시간, 휴일, 휴가(출산, 육아 휴가 포함) 및 노동자 조 이상으로 나누어 교체에 취업시키는 경우의 취업 전환에 관한 사항
- 임금(임시의 임금 등을 제외)의 결정, 계산 및 지불의 방법, 임금의 지불의 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 퇴직에 관한 사항(해고 사유 포함) 또, 퇴직 수당, 상여, 안전 위생 등

2) 주지 의무

고용자는 취업 규칙 외 노동 기준법으로 규정하는 노사 협정 등을 노동자에게 주지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다. 근로 기준 시간, 휴가 및 휴일

근로 기준 시간은 원칙적으로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주간 40시간, 1일 8시간(법정 근로 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단,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소매, 영화·연극, 보건 위생, 음식점·오락장에 대해서는, 1주 44시간, 1일 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근로 기준 시간이 6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45분 이상, 8시간을 넘는 경우는 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휴일은 주간에 1일 이상, 또는 4주간 4일 이상 주지 않으면 안 된다(법정 휴일). 휴일이란 꼭 일요일이나 경축일일 필요는 없고, 사업주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1) 시간외 근로 · 휴일 근로에 관한 협정(시간외 협정)

사업소로서 법정 근로 시간을 넘은 근로나 법정 휴일에 있어서의 근로가 필요한 경우는 “시간외 노동 · 휴일 노동에 관한 협정계”를 관할 노동 기준 감독서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관리 · 감독자 등에 대한 예외

관리 · 감독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기밀의 사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경영자와 동일한 일을 하는 사람은, 심야노동에 대한 규제를 제외하며 노동 시간 · 휴식 · 휴일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3) 변형 노동 시간제

업무의 종류에 따라서 노동 시간에 큰 차이가 있다. 그러한 경우는 일정 기간 내의 평균 노동 시간을 법정 노동 시간으로 해서, 법정 노동 시간을 넘어도 할증 임금의 지불을 받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 근로 시간 제도의 채용이 인정된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노사 협정 또는 취업 규칙 등에 명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유급 휴가

고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나서 6개월 동안 계속 출근하고 전 노동일의 8할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 한해서 10노동일의 유급 휴가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단, 근로자의 유급 휴가의 신청이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고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을 시킬 수 있다. 근속 연수와 연차 유급 휴가의 부여, 날짜의 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근속연수	6개월	1년 6개월	2년 6개월	3년 6개월	4년 6개월	5년 6개월	6년 6개월 이상
부여날짜	10일	11일	12일	14일	16일	18일	20일

연차 유급 휴가의 권리는,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즉, 그 해에 취득한 연차 유급 휴가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다음 해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월 분과 신규 취득한 유급 휴가를 합계해 최대 40일(근속 연수가 7년 6개월 이상의 사람)까지의 유급 휴가의 취득이 가능하다.

한편, 근로자의 결혼, 근친자의 사망, 배우자의 출산 등에 있어서는 상기와는 별도로 몇 일간의 유급 휴가를 주는 것이 일본의 기업에서 잘 볼 수 있는 관습이다.

5) 출산·육아·개호(간호)

□ 산전 산후의 휴가

고용주는 출산 예정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예정일의 6주간(2인 이상의 태아를 임신 경우는 14주간)의 휴가를 인정해야 한다. 또, 출산일의 다음 날부터 8주간은 원칙적으로 취업을 시켜서는 안 된다.

□ 육아 휴가

1세 미만의 아이를 양육하는 근로자로부터 휴가(원칙적으로 아이가 1세에 이르는 날까지의 기간. 특별한 경우에는 1세 6개월에 이를 때까지)의 청구를 인정해야 한다. 노사 협정에 의해 정하는 것으로 고용되고 나서 1년 미만의 사람, 배우자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사람 등은 육아 휴업 제도의 적용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 개호(간호) 휴업

요양 간호 상태의 가족이 있는 근로자로부터 그 간호를 위한 휴가(1명의 가족에 한해 통산 93일 간을 한정)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1회에 한정해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사 협정에 의해 정하는 것으로 고용되고 나서 1년 미만의 사람, 3개월 이내에 고용 관계가 종료하는 사람 등은 적용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 아이의 간호 휴업

초등학교 취학 전의 아이를 양육하는 노동자는 1년에 5일까지, 병·상처를 입은 아이의 간호를 위해서 휴가를 낼 수 있다.

라. 일본의 사회 보장 제도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공적인 건강(의료) 보험 및 연금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1) 노동·사회보험 제도의 개요

일본에는 근로자를 위해 기업이 가입하는 것이 의무인 보험은 4 종류가 있다.

- 노동자 재해보상 보험
 - 근로자의 업무와 통근 중에 있어서의 상해·질병에 대한 보험
- 고용 보험
 - 근로자 실업 보상 지급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조성금·장려금 등) 보험
- 건강 보험·개호(간호, 특히 육아) 보험
 - 의료·개호(간호, 특히 육아)의 지출에 대한 보험

- 후생 연금 보험
 - 노후, 사망, 장애에 대한 지급을 위한 보험
- 통상 노동자 재해보상 보험과 고용 보험을 합쳐 “노동 보험”, 건강 보험·개호 보험, 후생 연금 보험을 합쳐 “사회보험”이라 한다.
- 가입 수속은 기업측이 감독 관청에 대해 노동·사회보험의 신고를 실시하다. 보험료의 지불은 기업측이 종업원 부담 분의 보험료를 급여로부터 공제하고, 고용주의 부담 분과 함께 감독 관청에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노동자 재해보상 보험의 제도

적 용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강제 적용되며 중소기업의 사업주 등도 신청에 의해 특별 가입이 가능
지 급	근로자가 업무상에 또는 통근 중의 재해에 의해 생긴 부상·질병·상해·사망에 대해서 지급
보험료	원칙적으로 근로자 임금의 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함. 그 보험료율은 기업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최고의 11.8%(수력 발전 시설 등 사업)에서 최저 0.45%(금융업, 통신업 등)까지 (2006년 4월 개정) 보험료 부담 고용주
신 고	보험 관계 성립이 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노동 기준 감독서에 신고.

3) 고용 보험의 제도

적 용	원칙적으로 모든 일반 근로자. 단지 단시간 근로자에 한해서는 주간 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고용할 예정에 한함. 해외 본사 등으로부터의 부임자는 가입 면제
지 급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전직을 했을 경우에, 전직의 이유, 피보험자인 가입 기간, 연령 등에 의해 정해진 액과 기간의 실업 급여금이 지급. 또, 그 외 고용의 안정과 관계되는 각종의 지급도 실시함
보험료	노동자 임금 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 보험료율은, 일부의 업종을 제외하고는 1.95%. 고용주가 1.15%, 근로자가 0.8%부담(2005년 4월 개정)
신 고	보험 관계 성립이 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공공 직업 안정소에 신고

4) 건강 보험·개호 보험의 제도

적 용	적용 사업소	모든 법인 및 상시 5명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개인 사업소. 원칙적으로 강제 적용(외국 기업의 일본 지점·영업소는 법인으로 취급되며, 주재원 사무소는 개인 사업소로 취급이 됨)
	피보험자	원칙적으로 모든 종업원. 단지, 단시간 노동자에 한해서는 노동 시간이 일반 종업원의 3/4 이상인 사람. 해외 본사로부터의 부임자, 법인의 대표이사, 대표자 등도 피보험자가 된다. 예외로 미국에서 일본으로

		파견 되는 사람이 미국의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본에서의 가입이 면제된다.
	피부양자	피보험자에 의해서 생계가 유지되고 있는 직계 존속, 배우자, 자, 손, 제매도 이 보험의 지급 대상이 된다.
	개호(간호) 보험	40세 이상의 사람만 적용
지 급	치료비	보험 적용 의료 기관(건강 보험 적용 의료 기관. 일본 내의 대부분의 의료 기관이 여기에 해당됨) 치료에 필요로 한 비용 중 7할은 보험자로부터 직접 의료 기관에 지불되고, 3할은 피보험자가 부담. 치과 의료에도 적용됨
	해외 치료비	해외 체제 중 또는 여행 중에 의료 기관에 치료비를 지불했을 경우 귀국 후 신청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일본의 의료비로 환산한 금액의 7할이 보험자로부터 피보험자에게 지급됨. 외국인인 피보험자가 모국, 그 외의 나라에서 의료를 받았을 경우도 적용됨
	고액 치료비	피보험자가 동일한 달(역월)에 동일한 의료 기관에 지불한 일부 부담금의 액수 등의 금액이 일정액을 넘었을 때는 고액 치료비로서 지급됨
보험료	정부 관장 건강 보험의 일반 보험료율은 피보험자의 표준 보수 월액(상한 98만엔) 및 표준 상여액(상한 200만엔)의 8.2%, 개호 보험료율은 1.23%이며, 피보험자 및 고용주가 각각 1/2씩 부담함(2006년 3월 개정). 조합 관장 건강 보험은 보험료율의 설정에 있는 어느 정도의 재량이 인정되고 있음	
신고	보험 관계 성립 날의 다음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사회보험 사무소 또는 건강 보험 조합에 신고	

5) 적용 대상자 이외의 경우 (국민 건강 보험)

적 용	상기 건강 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는 사람은 주거지의 시구읍면에서 운영하는 국민 건강 보험에 가입
지 급	국민 건강 보험의 지급 기준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건강 보험과 동일
보험료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각 지역에 의해 결정된 보험료.

* 일본에서는, 상기와 같이 공적인 건강(의료) 보험 제도에서의 가입이 의무 지워지고 있으므로, 외국에서 민간의 의료보험에 가입해 일본에 부임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 지급 내용이 일본의 건강 보험과 중복 되지 않는 것을 선택하면 좋다.

6) 후생 연금보험의 제도

적 용	적용 사업소	모든 법인 및 상시 5명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개인 사업소. 원칙적으로 강제 적용(외국 기업의 일본 지점·영업소는 법인으로 취급되며, 주재원 사무소는 개인 사업소로 취급이 됨)
	피보험자	원칙적으로 모든 종업원(단, 70세를 넘는 자는 제외) 단지, 단시간 노동자에 한해서는 노동 시간이 일반 종업원의 3/4 이상인 사람. 해외 본사로부터의 부임자, 법인의 대표이사, 대표자 등도 피보험자가 된다.

급 부	노령 연금	원칙적으로 보험료 납부 기간과 보험료 면제 기간을 합산 한 기간이 25년 이상으로, 65세 이상일 경우, 지불한 보험료와 지불한 기간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이 지급된다.
	장해 연금	장해에 의한 질병이나 부상이 가입 기간에 생겼을 경우에는 그 장해의 정도, 지불한 보험료의 금액, 보험료를 지불한 기간 등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 또는 일시금이 지급된다.
	유족 연금	피보험자, 상기 노령 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장해 연금의 수급자 가운데 중증의 장애자 등이 사망했을 경우 그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된다.
보험료	요율과 부담	피보험자의 표준 보수 월액(상한 62만엔) 및 상여 액수(상한 150만엔)의 14.288%(2005년 9월 개정)를 피보험자와 사업주로 절반씩 부담
	연금 협정	현재, 일본은 독일, 영국, 한국, 미국과의 사이에 각각 사회 보장 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독일, 영국, 한국, 미국의 연금 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이 일본에 파견되는 경우, 사회보험 사무소 등에 신고하는 것으로서 일본의 연금 보험 제도에 가입이 면제된다.
	탈퇴 일시금	외국인이 연금을 수취하지 않고 귀국했을 때는 그 사람이 지불한 기간과 지불한 보험료의 액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반환된다.
신고	보험 관계가 성립한 다음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사회보험 사무소에 신고	

7) 적용 대상자 이외의 경우(국민 연금)

일본에 주소를 가지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으로, 상기 후생 연금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국민 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매달 보험료는 정액(13,860엔)으로 노령 연금, 장해 연금 및 유족 연금이 지급된다. 또, 후생 연금 보험과 같이, 탈퇴 일시금 제도도 있다.

마. 급여 기준

1) 급여 지불의 원칙

급여는 법정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지불 해야 한다. 단, 근로자 노동의 동의를 얻은 다음 급여를 근로자 지정 계좌에 납입하는 것과 사회 보험료, 세금 등을 급여로부터 공제해 지불하는 것은 인정한다.

2) 최저 임금의 보장

지역별 및 산업별로 최저 임금의 액수가 정해져 있어 양 쪽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액수가 높은 쪽에 적용된다. 고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참고로 도쿄도의 최저 임금은 시간급 714엔(2005년 10월 개정)이다.

3) 임금제도

일반적으로 일본 기업에서는 매월 급여를 지급한다. 그리고, 상여는 하계와 동계의 연 2회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월 임금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주택 수당, 가족 수당, 통근

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급여액 안에서 차지하는 상여의 액의 비율이 비교적 큰 것이 특징이다. 급여 안에 각종 수당과 상여의 비율이 높은 것은 시간외 노동 등에 대한 수당의 단가를 낮게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임금 제도에 대해서는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액이 올라가는 연공 임금이 오랫동안 중심이 되었지만, 지금은 직능급·직무급 및 성과주의 임금을 도입하는 기업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결과 연봉제를 도입하는 기업도 많아졌다.

임금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 기본급< 본인(속인적)급 + 직무직능(능력)급> + 제수당 + 기능수당 + 개근수당 + 통근 수당 + 가족수당(배우자 + 60 세 이상의 부모 + 22 세 미만의 자녀) + 주택수당. 기타 벽지수당, 단신부임수당 등 다수의 수당이 있음) + 상여금 + 퇴직금 최근의 일본의 임금체계의 경향으로 기본급의 병존형(속인급 + 능력급) 체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50%이상, 중견기업(종업원 100 - 1,000 명)의 경우 20% 전후, 중소기업의 경우 10% 전후의 비율로 이러한 체계에 의한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50 세 전후(기업에 따라서는 45 세)부터 기본급의 상승을 억제하고 있으며 50 세 이상이 되면 상승을 정지시키거나 삭감시키는 기업도 있다. 전체적으로 임금에서 차지하는 제수당의 비율증가하고 있으며 참고로 중견기업의 평균적인 제수당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참고]중견기업 평균제수당 내역
 - 직책수당: 30,000 엔, 기술수당: 10,000 엔, 장려수당: 7,000 엔,
 - 가족수당: 16,000 엔, 주택수당: 11,000 엔
- [참고] 임금인상체계
 - 정기승급(년 1 회) + 베이스인상(년 1 회) + 승급(격) 가산인상(년 1 회) 승급(격) 인상은 개개인의 근속년수와 능력에 따르며 일률적으로 전원 이 오르는 것은 아님
- [참고] 일반적인 급여 구성 내역
 - 총 급여: 100
 - 정기급여: 74
 - 소정 내 급여(기본급, 제수당): 67
 - 소정 외 급여: 7
 - 특별급여: 26
 - 일시 급여: 상여금
 - 기본급 인상액 차액의 소급지불 등

4) 임금 이외의 비용(FRINGE BENEFIT)

- 의무적 사항
 - 명기된 각종 보험
 - 후생 연금제도
- 관행적 사항
 - 휴직 수당
 - 경조금
 - 기업 연금 제도

- 저리 용자 제도
- 재해 위문금 제도
- 주택론의 이자 지급 제도
- 사원 주택의 제공
- 자녀 학자금 보조

한편 프린지 베네핏(임금 외에 유급휴가나 차량제공 등 추가로 근로자들에게 주는 혜택)의 총 임금 지불에 대한 비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 일본생산성 본부의 조사에 의하면 프린지 베네핏의 총 급여에 대한 비율은 90년 약 15%정도이다. 이러한 프린지 베네핏은 기업간, 산업간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일수록 프린지 베네핏 지불액이 많으며 산업별로는 전기 가스 열 공급 수도 광업 등의 분야에서 많으며 금융 보험업 또한 많은 편이다. 반면 도소매,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의 프린지 베네핏은 전산업 평균에 비해 훨씬 적다.

바. 초과 근무 수당

노동 기준법 제 37 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시간외 근무 경우 8 시간 이상 노동 시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시간외 근무의 임금 할증률은 25% 또는 25% 이상임(상한은 없음). 한편 시간외 근무가 오후 10 시 - 오전 5 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할증율 50% 이상이다. 또한 휴일근무 시 할증율은 25%이며 오후 10 시-오전 5 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50%를 적용받는다.

사. 해고 절차와 조건

기간의 규정이 없는 고용계약을 맺고 있는 근로자가 자기퇴직(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일방적으로 퇴직 의사 표시하는 것에 의해서 노동 계약이 종료되는 것)의 경우는, 2주일 전에 사전 통고를 해야 한다. 취업 규칙 등에 퇴직 예정일의 2주일 보다 전에 통고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경우는 확정된 판례는 없지만 1개월 이내이고, 1개월 이상의 사전 통고 의무는 효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정설이다. 한편, 해고(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퇴직 의사 표시를 하는 것에 의해서 노동 계약이 종료되는 것)의 경우에는 몇 가지의 요건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

1) 해고가 정당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해고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무효가 된다. 그리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미리 취업 규칙 등에서 가능한 해고 사유를 명확하게 정해 둘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해고의 유효성 판단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노동법의 전문가(변호사, 사회보험 노무사 등) 등에게 사전에 상담하는 것이 좋다.

정리 해고(기업 경영 악화에 의해 실시하는 해고)의 경우는 많은 판례가 있으며 이하의 4개의 요건에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 해고의 필요성
 - 기업이 인원 정리를 해야 할 만큼의 경영상의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 해고를 막으려는 노력
 - 배치전환, 희망 퇴직자의 모집 등, 해고를 막기 위해 경영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 인선의 타당성
 - 해고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 해고 수속의 타당성
 -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와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한다.

2) 해고가 제한되는 경우

- 노동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해 업무를 쉬는 기간 및 그 후 30일간
- 여성 노동자가 산전 6주간(2인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는 14주간), 산후 8주간 쉬는 기간 및 그 후 30일간

3) 해고 수속

고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할 경우는 적어도 30일전에 의사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고 의사를 표하지 않고 즉시에 해고하려고 하는 경우는 해고와 동시에 30일 분의 임금(예고 급여)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 아래의 경우와 같이 관할 노동 기준 감독 소장의 인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고 예고나 예고 급여 없이 해고를 할 수 있다.

- 천재지변, 그 외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 근로자의 책임으로 해고되어도 어쩔 수 없는 경우
- 사업장 내에 있어서의 절도, 횡령, 상해 등 형사상의 범법 행위가 있었을 경우
- 현저하게 풍기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직장 규율을 어지럽혀 다른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 고용해 때 경력을 사칭 했을 경우
- 2주간 이상 정당한 이유 없고 무단 결근해, 출근의 독촉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지각·조퇴·결근을 반복해, 몇 차례에 주의를 받아도 고치지 않는 경우

아. 노조 결성

- 아무런 제한 없이 결성 가능하다

자. 노조 활동 보장

- 단결권, 단체교섭권, 쟁의권, 단체행동권 등이 헌법이나 노동 관련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으며 사용자측은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는 고용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
- 황견 계약(黃犬契約)
- 단체교섭의 거부
- 지배개입 등

42. 조세제도

가. 일본 조세제도의 개요

일본의 조세제도는 국가에서 징수하는 국세와 지방공공단체(都道府縣과 市.町.村)에서 징수하는 지방세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 헌법상, 지방공공단체의 행정권을 보장하고, 그 집행의 일환으로서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세나 지방세의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다.

-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 국세: 소득세(원천소득세, 개인 신고 소득세), 법인세
 - 지방세: 법인주민세(都道縣民稅, 市町村民稅, 事業稅)
-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
 - 지방세: 고정자산세
- 소비에 부과하는 세금
 - 국세: 소비세
 - 지방세: 지방소비세
- 거래에 부과하는 세금
 - 국세: 인지세, 등록면허세
 - 지방세: 부동산취득세

일본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법인은 경제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다국적 기업의 경우 진출형태에 따라 세제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일정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일본에 설립된 법인에 대해 소득의 원천이 외국이고 그 이익에 대해 소득의 원천지국에서 과세될 경우 소득원천지국과 일본에서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외국에서 과세된 세금을 일본에서 과세되는 세금에서 공제하는 외국세액 공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외국법인의 일본지점에 대해서는 일본국내에서 발생한 일정 소득만을 일본에서 과세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국제적으로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련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일본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이 일본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일정 소득을 얻었을 경우 원천징수에 의한 수속, 또는 신고에 의한 납부수속에 따라 세액이 산정되어 납부하게 된다.

나. 일본 국내 원천 소득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외국법인의 일본에서의 활동 형태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범위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원천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 원천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공사채 이자, 일본 내 사업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예금 이자
2. 일본 국내 업무에 관계된 대부금 이자
3. 내국법인의 주식, 증권투자신탁 배당
4. 내국부동산, 기타 유사재산의 사용대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한 선박 또는 항공기 임대료
5. 일본에서의 용역에 기인한 급여, 임금, 보너스 등 보수
6. 거주자로서의 용역에 기인한 퇴직수당 또는 연금
7. 일본에서의 자유직업 용역의 대가
8. 연예인, 자유직업자 또는 기술자 등 인적 용역 사업의 대가
9. 국내업무에 관련된 특허권, 노하우, 저작권 등의 사용료 또는 양도의 대가
10. 국내업무에 관련된 기계장치 사용료
11. 국내 광고선전과 관련된 상금
12. 국내에서 체결된 계약에 기초해 지급되는 연금
13. 국내에서 발행되는 할인채권의 상환차익
14. 일정 이자소득과 유사한 소득
15. 국내 부동산 양도에 의한 일정 소득
16. 익명조합 계약에 기초한 이익의 분배
17. 상기 이외의 국내 자산 운용, 보유, 양도에 의한 일정 소득
18. 사업소득
19. 민법에서 규정하는 조합 계약에 기초한 이익의 분배

다. 법인소득 과세 개요(법인세, 법인주민세, 사업세)

법인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해 일본에서 과세되는 세금으로는 법인세(국세,), 법인주민세(지방세), 사업세(지방세)(이하 ‘법인세 등’ 으로 지칭)가 있다. 법인주민세, 사업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범위, 과세소득의 산정은 특정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법인세의 적용을 받게 된다. 법인주민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 이외에 자본금 및 종업원수를 과세 표준으로 하는 균등할 과세이며 법인사업세는 자본금 1억 엔을 초과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형 표준 과세이다.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법인세 등은 회사의 사업년도 별로 계산된 소득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데 이 밖에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퇴직연금 등 적립금에 대한 법인세 등이 있다.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주민세 및 사업세의 세율(법인소득에 대한 세 부담 및 균등할)은 아래와 같으며 지방세에 대해서는 사업규모,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세율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법인 소득에 대한 세부담

과세소득금액 구분	400만엔 이하	400만엔 초과 800만엔 이하	800만엔 초과
법인세	22.00%	22.00%	30.00%
법인주민세			
- 도부현민(道府縣民)	1.10%	1.10%	1.50%
- 시정촌민(市町村民)	2.70%	2.70%	3.69%
사업세	5.00%	7.30%	9.60%
종합세율	30.80%	33.10%	44.79%
실효세율	29.33%	30.85%	40.87%

자료원: JETRO

주: 법인주민세, 법인사업세는 도쿄도의 예시(자본금 1억엔 이하, 법인세액이 연 1천만엔 이하이면서 소득금액은 연 2천5백만엔 이하. 2개 이하의 지역 사무소, 사업장 소재지)

법인주민세 균등할 과세

자본금		종업원수	균등
¥5,000,000,000 초과	-	50인 초과	¥3,800,000
¥1,000,000,000 초과	¥5,000,000,000 이하	50인 초과	¥2,290,000
¥5,000,000,000 초과	-	50인 이하	¥1,210,000
¥1,000,000,000 초과	¥5,000,000,000 이하	50인 이하	¥950,000
¥100,000,000 초과	¥1,000,000,000 이하	50인 초과	¥530,000
¥100,000,000 초과	¥1,000,000,000 이하	50인 이하	¥290,000
¥10,000,000 초과	¥100,000,000 이하	50인 초과	¥200,000
¥10,000,000 초과	¥100,000,000 이하	50인 이하	¥180,000
-	¥10,000,000 이하	50인 초과	¥140,000
-	¥10,000,000 이하	50인 이하	¥70,000

자료원: JETRO

라. 법인 설립, 지점 개설과 세무신고

일본법에 기초해 새롭게 일본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립 또는 설치 후 일정 기한 내에 세무당국에 설치와 관련한 세무신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외국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지 않고 일본 국내에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일정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지점을 설치하지 않았어도 아래에 정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장소나 용역을 통해 활동하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세무신고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 국내에 건설, 설치, 조립, 기타 작업 또는 작업의 지휘감독 업무를 1년 넘게 제공할 경우의 건설, 작업 현장
- 이하에서 열거하는 일정 대리인
 - 외국 법인을 위해 사업에 관계된 계약을 체결하는 권한이 있고 이를 상습적으로 행사하는 자

- 외국 법인을 위해 고객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수량의 자산을 보관하고 그 자산을 고객의 요구에 따라 인도하는 자
- 외국 법인을 위해 상습적으로 사업과 관계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주문의 취득, 협의 기타 행위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자

마. 주재원 사무소

주재원 사무소를 통해 일본에서 활동하는 외국법인으로서 해당 주재원 사무소가 광고선전, 정보제공, 시장조사, 기초연구, 기타 법인 사업의 수행에 있어 보조적인 활동을 위해 설치된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외국법인의 일본 내 사무소, 사업소가 자산을 구입할 목적으로만 해당 장소를 사용할 경우, 또는 자산을 보관하는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할 경우에도 그러한 활동으로부터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바. 법인과세 소득의 범위

일본에서 설립된 법인은 소득의 원천을 불문하고 일본에서 과세 대상이 된다. 한편,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3가지로 구분한 후 그 내용에 따라 국내원천 소득 가운데 각각 정해진 소득에 대해 일본에서 법인세, 법인주민세, 사업세가 과세된다. 단, 3번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사. 법인과세 소득의 산정

각 사업 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 금액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기업이익에서 세무조정을 거쳐 산정된다. 아래에서 열거하는 일정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수익을 얻기 위해 발생한 원가, 경비는 공제된다. 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과세되는 일본 국내원천소득의 산정상 공제 대상이 되는 원가, 경비에 대해서는 발생장소에 제한이 없다. 단, 국외에서 발생한 원가, 비용을 국내 소득 산정상 공제하기 위해 배부하는 경우에는 그 명세를 작성해야 한다.

□ 원가, 비용 공제에 제한이 있는 일정 항목의 예

- 법인세 등 및 벌과금
-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
- 교제비의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 각종 총당금 이월액
- 감가상각 자산 및 이연자산의 상각한도 초과액
- 자산의 평가감
- 임원 상여, 임원에 대한 과대 보수, 과대 퇴직급여

아. 법인 사업세의 외형표준 과세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1억 엔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소득, 부가가치, 자본금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외형표준 과세가 적용된다. 소득당, 부가가치당 및 자본당 등 각각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외형표준 과세

소득당	연 400만엔 이하	3.8%
	연 400만엔 초과 800만엔 이하	5.5%
	연 800만엔 초과	7.2%
부가가치당		0.48%
자본당		0.20%

자료원 : JETRO

주: 3개 이상 지역(도도부현)에 사무소, 사업장이 소재하는 경우 소득 할 표준과세는 일률적으로 7.2%를 적용

참고 : JETRO발간자료, KOTRA 해외투자백서,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 무역관 자체보유자료

43. 외환관리

가. 외환 관리

일본은 외환 관리가 자유화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이 없으며 외환법이 외환 관리의 골자를 이루고 있어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1) 외환법의 목적

- 일본의 외환법은 “외환, 외국 무역 그 외의 대외 거래가 자유롭게 행해지는 것을 기본으로, 대외 거래에 대해 필요 최소한의 관리 또는 조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대외 거래의 정상적인 발전 및 나라와 국제사회의 평화 및 안전의 유지를 기하며, 국제수지의 균형 및 통화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나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외환법의 변천

- 외환법은 1949년에 “외환 및 외국 무역 관리법”으로 제정되었지만, 그 당시의 일본 경제를 둘러싼 환경에 의해 “대외 거래 원칙금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그 후 1980년의 개정에 의해, 대외 거래를 원칙적 자유롭게 하는 법 체계로 개정했으며, 1998년의 개정에서, 사전의 허가·신고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과 동시에, 외환 공인 은행 제도, 환전상 제도를 폐지 하는 등, 자유롭게 신속한 내외 거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구미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대외 거래 환경의 준비를 실시했다. 이 개정에서, 국제 조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시, 또는 국제평화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기여하기 위할 시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도 경제 제재 등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 2001년 9월 미국에 있어서의 동시 다발 테러 사건의 발생 이후, 국제사회에서 테러 자금 대책이 중대한 과제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2002년 5월에 금융기관 등에 의한 고객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의 개정을 실시 했다.

- 또한, 2004년 2월에는 최근에 일본을 둘러싼 국제 정세와 일본의 평화 및 안전의 유지를 위해 특히 필요가 있을 시에는 내각회의를 거쳐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게 개정을 했다.
- 이와 같이 외환법은 일본 국내의 규제완화의 흐름, 국제 금융의 글로벌화, 국제 정세의 변화 등을 배경으로 재차에 개정을 거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3) 외환법의 내용

외환법은 외환, 외국 무역 그 외의 대외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며, 일본의 대외 거래의 기본법이다.

① 내외 자본 거래

- 기업이나 개인은 자유롭게 해외의 기업이나 개인과 자본 거래, 결제 등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

② 외환 업무

- 1998년 4월 이후, 외환은행 제도, 지정 증권 회사 제도, 환전상 제도가 폐지되어 외환 업무에 대한 규제가 철폐되었다. 따라서, 은행 이외의 사람이라도 자유롭게 외환의 매매를 업무로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외환거래, 예금의 수용 등의 업무를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의 은행법 등이 적용된다.

③ 사후 보고 제도

- 1998년 외환법 개정에 의해, 내외 자본 거래 등과 관련되는 사전의 허가·신고 제도가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으며, 그 대신에 사후 보고 제도가 법 운용상의 중요한 축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지불 등, 자본 거래, 외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후 보고의 제출을 요구하며 국제 수지 통계의 작성이나 시장동향의 파악 등에 이용하고 있다.

④ 국제적인 요청에 대응(경제 제재 조치 등)

- 외환법은 대외 거래가 자유롭게 행해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국제 규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국제 평화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평화 및 안전의 유지를 위해 특히 필요가 있어 대응 조치를 해야 할 각의 결정이 있을 때”, 주무 대신(재무 대신 및 경제 산업 대신)은 필요한 경제 제재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현재, 이러한 경제 제재 조치로서 이라크 前정권의 기관 및 이라크 前정권의 고관 또는 그 관계자등, 탈레반 관계자 등이나 테러리스트, 밀로세비치 前유고슬라비아 대통령, 리베리아 前정권의 고관 또는 그 관계자, 콩고 민주공화국에 대한 무기 수출입 금지 조치 등에 위반한 사람 등에게 자산 동결 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⑤ 일정액이 넘는 현금 등의 휴대 수출입에 대한 신고

- 일정액이 넘는 현금 등을 휴대해 출국·입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세관에의 신고가 필요하다.
- 휴대하는 다음의 것의 합계액이 100 만 엔이 넘는 경우
 - 현금(외국 통화 포함)
 - 수표(여행자 수표 포함)
 - 약속어음
 - 유가증권
- 휴대하는 금(순도90% 이상)의 중량이 1킬로그램을 넘는 경우

⑥ 외화 환전 업무에 관한 보고 제도

- 1개월의 거래 합계액이 100 만엔 상당액을 넘는 환전 업자는 사후 보고가 필요하다. 보고할 사항은 외국 통화 또는 여행자 수표의 매각·매입 거래 건수·금액의 합계.

일본 외환관리 정책의 변화

년	내 용
1931	금수출 再금지(금본위제 정지)
1932	자본 도피방지법제정
1933	외환 관리법 제정(「외환은행 제도」)의 도입)
1936	대장성숙(한국의 재경부에 준함)에 의해 무역 환율 관리 개시
1941	외환 관리법 개정(전시체제에 이행)
1945	GHQ의 전면 관리
1947	민간 무역의 일부 재개
1949	단일 환율의 설정 1 달러=360 엔 「외환 및 외국 무역 관리법」(외환법) 및 「외자에 관한 법률」(외자법)의 제정
1952	IMF(국제통화기금), 세계 은행에 가맹 외환 관리 위원회의 폐지, 외환 등 심의회 설치
1954	외환 은행법 제정에 수반해, 외환은행을 외환공인은행으로 개정
1964	외환 예산제도의 폐지, IMF 8 조국에 이행, OECD 에 가맹
1971	환율의 변경 1 달러= 308 엔
1972	외화 집중 제도의 폐지
1973	변동 환율제 시행, 대내 직접투자에 대해, 예외 업종을 제외하고 원칙적인 자유화 결정
1980	외환법을 원칙적으로 자유 법체계로 개정, 외자법폐지
1984	선물 외환 거래에 관한 실수요 원칙 철폐
1986	오프쇼어 계산의 창설에 수반한 외환법의 일부 개정
1987	코콤(Coordinating Committee for Export Controls) 규제 위반행위와 관련되는 벌칙·제재의 강화에 수반하는 외환법의 일부 개정
1992	대내 직접투자 등에 대해, 사전 신고제로부터, 원칙적으로 사후 보고제의 이행에 대한 외환법의 일부 개정

1998	내외자본 거래 등의 자유화, 외환 업무의 완전 자유화에의 이행에 수반하는 외환법의 일부 개정(제목에 「관리」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외환 및 외국 무역 법으로 고침)
2002	미국 동시다발 테러사건을 경위로 자금 대책 강화를 위해, 본인 확인과 관련되는 노력 규정의 의무화 등(2003년 1월 6일 시행), 관계 부처 등에 의한 정보 제공의 근거가 되는 규정의 정비 등(2002년 5월 7일 시행) 외환법의 일부 개정
2004	평화 및 안전의 유지를 위해 특별히 필요할 시, 각의 결정에 의해, 지불, 자본 거래, 역무 거래, 화물의 수출입 거래 등에 대한 규제 발동을 가능하게 하는 외환법의 일부 개정(2004년 2월 26일 시행)

정보원 : 일본 재경부 자료

44. 이주정착 가이드

가. 집 구하기

- 일본에서는 주소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외국인 등록, 국민 건강보험, 은행구좌 개설, 은행대출 등이 불가능하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집을 구해야 한다.
-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주거희망지역의 부동산업자(복덕방)를 접촉하여 물건을 물색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시간 및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도일하기 직전에 인터넷으로 해당지역의 임대물건을 물색해 보거나, 최소한 물건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업자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부동산 업자에게 희망 임대료, 넓이, 교통수단 등을 알려주면 구하고자 하는 아파트나 맨션을 소개해 준다. 집을 빌릴 때에는 집세 이외에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시키킹, 레킹, 부동산업자에게 지불하는 중개료 등이 필요하며 이것을 다 계산하면 집세의 4 ~ 6 개월 분이 된다. 또한 계약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필요하다
- 시키킹: 시키킹은 계약할 때 집주인에게 맡기는 돈. 집세의 1~3 개월 분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사를 나갈 경우, 집세 미납분과 수리 및 청소를 위해서 사용한다. 통상 맡긴 금액의 50% 정도 돌려 받는다.
- 레킹: 레킹이란 계약할 때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돈입니다. 집세의 1~2 개월 분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으며 나갈 때에도 돌려주지 않는다.
- 중개 수수료: 중개수수료는 방을 소개한 부동산업자에게 지불하는 수수료이다. 보통 집세의 1 개월 분을 지불한다.
- 그 밖에 임지에 사무실이 이미 있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아파만(아파트맨션)정보' 등의 주간지를 보고 부동산업자에게 연락을 하여 집의 도면 등을 팩스로 받아 본 다음, 현지를 방문하는 편이 한 번에 많은 물건을 볼 수 있어 좋다.
- 부동산 업소에 비치된 물건 내역을 보면, 임대조건, 가장 가까운 역으로부터의 도보 소요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도보소요시간은 실제 걸어보면 2~5 분 정도 더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 통상 oo 역 도보 5 분과 oo 역 도보 10 분은 동일한 물건의 경우라도 월 임차료가 5,000-15,000 엔 정도 차이가 있다.

1) 주택 임차 시 주의 사항

- 도로나 철로 인근의 경우, 의외로 소음이 큰 경우가 있으므로(특히 야간) 유의해야 하며, 다이에, 이토요카도, 자스코, 세이유 등 대형슈퍼가 인근에 있는 경우가 물가가 저렴하며, 부근에 유흥가가 있을 경우 소란하고, 사고도 많다.
- 건축 년 수가 오래된 경우, 임대료는 싸지만 입주 후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둘 필요가 있다.
- 자동차를 소유할 경우 차고증명이 있어야 하나, 아파트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동산업자에게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 주차장도 별도 임차료를 지불해야 하며, 도쿄는 월 20,000-50,000 엔 전후, 기타 지역은 월 15,000-35,000 엔 정도이다. 자동차등록 시 차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차고 증명서를 차고지(주차장) 임대인으로부터 발급받을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주차장에 대한 복비(통상 1개월 치)도 지불해야 한다.
- 임대조건 중 보증금은 어느 정도 네고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점, 에어컨이 방마다 부착되어 있지 않으면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 월 5,000 엔 정도 임차료를 올려 주고 1 대를 추가로 달아 달라고 할 수도 있다는 점(거주기간을 감안, 직접 구입하는 것과 어느 쪽이 이익인지 고려해 보아야 함) 등을 감안하여 협상을 해야 한다.
- 외국인(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인)에게 집을 빌려주지 않겠다는 주인이 종종 있으므로, 미리 부동산업자에게 그런 집은 보여주지 않도록 지시해 두고, 회사계약 (법인 계약이라고도 하며, 임차인이 개인이 아니라 지점 또는 현지법인이 되는 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미리 통보해 주면 집구하기가 수월하다. 일본인 보증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무실 현지직원의 양해를 얻어 보증인을 세우는 등의 대비도 필요하다.
- 통상 부동산업자만 만나고 집 주인과 대면할 기회가 없으므로, 집을 계약하고 나서 문제가 있는 경우 반드시 부동산업자에게 연락을 해 두어야 하며, 퇴거 시 원상 복구 비용을 물어야 하므로, 못구멍, 벽의 흠집, 창외 알루미늄 샷시의 하자 등이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이 좋다.

나. 행정절차

1) 외국인등록

- 집을 구하고 나면, 주소지의 시청이나 구청에 가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 외국인등록은 90 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것은 외국인 등록법에 의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일본국적과 외국국적의 2 중국적을 가진 자는 외국인 등록을 할 필요는 없으며, 외교관, 영사관직원, 공용여권 소유자, 미군 및 그 가족은 외국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2) 등록절차

- 입국 시
 - 일본에 90 일 이상 거주할 예정인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은 일본에 입국한 날부터 90 일 이내에 살고 있는 시구청촌 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입국 후 90 일 이내에 출국하는 여행자는 외국인 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
 - 필요서류: 여권, 사진 2장(4.5cm×3.5cm). 단, 16세 미만인 사람은 사진 불필요
- 자녀가 출생한 경우
 - 태어난 지 60 일 이내에 거주지 시청이나 구청의 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재류 자격 취득은 30 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주의)
 - 필요서류: 출생신고수리증명서 또는 아이가 병기된 여권 (여권 미 취득인 경우에도 등록 가능)
 - 출생신고 수리 증명서: 의사나 조산부가 쓴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시청이나 구청의 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서를 내면 출생신고 수리 증명서를 교부 받을 수 있음
 - 여권에 아이를 병기하려면: 출생신고 수리 증명서를 일본 외무성에 제출하여 후일 승인서를 받아서, 그 승인서를 가지고 주일 대사관(또는 영사관)에서 여권에 병기한다. 이 절차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3) 외국인등록증교부 (카드)

- 외국인 등록을 하면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이 「외국인 등록증」은 일본에서의 신분을 증명하는 것으로 16세 이상인 사람은 항상 소지할 의무가 있다. 등록 후 약 2주일 ~1개월 후에 발급 받으며 16세 미만인 사람은 신청한 날에 바로 교부 받을 수 있다.
- * 외국인 등록증을 분실 하였을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등록지의 시청 또는 구청에 가서 재발급 신청을 받아야 한다. 사진 2장(4.5cm×3.5cm) 필요.
- * 외국인 등록 신청을 했다는 증명서를 받아, 시청(구청)내에 있는 국민건강보험 담당 창구로 가서 건강보험신청을 하게 되는데, 월말에 신청을 하는 경우, 지역에 따라서는 일할 계산하지 않고 1개월 치 보험료를 전액 징수하는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4) 일본면허증 발급

- 한국운전면허증은 일본의 운전면허증으로의 전환신청이 가능하다. 수속은 거주지 근처의 운전면허센터 및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한다.
- * 운전면허의 전환에 대해서는 JAF홈페이지를 http://www.jaf.or.jp/inter/fr/f_index5.htm 보시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한글(gif파일)대응)
- 필요서류
 - 운전면허신청서(시험장 비치)
 - 사진 1장(가로 2.4cm×세로 3cm) 신청장소에서 유료로 촬영가능
 - 한국의 운전면허증
 - 여권(출입국 기록이 있는 것)

- 한국운전면허증의 일본어 번역문
- * 번역문은 공증이 필요하므로 발급국의 영사관 및 일본자동차연맹(JAF)으로 한정되어 있다.
- 수수료는 면허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다. 전화신청

- 전임자의 것을 인수하거나, 가까운 NTT 전화국 등에 신청하면 된다. 최근에는 인터넷 동시 가입 신청 서비스가 있으므로 저렴한 가격에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휴대폰의 신청은 각 휴대폰 회사에 따라 절차가 틀리나, 외국인 등록증이 있을 경우 어디든 신청이 가능하다. 휴대폰 기계의 가격은 0 엔~30,000 엔 사이이며 요금방식은 다양하여 선호에 맞게 신청을 하면 된다.

라. 구좌개설

- 우선 집세 자동이체를 위한 구좌개설이 필요하다. 구좌를 개설할 때, 집세 외에 전화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의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해 두면 편리하다. 구좌는 지정망이 확충되어 있는 미쯔비시 도쿄 UFJ, 미즈호, 미쯔이스미토모 은행 등 대형 은행에 개설하는 것이 좋다. 구좌개설 시에는 외국인 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일본), 인감(사인 가능) 이 필요하다.

마. 비품 구입

- 일본의 경우, 집을 구할 때 아무런 집기나 비품이 없으므로 구입해야 할 물건이 상대적으로 많다. 그러므로 물가를 감안하여 이삿짐으로 부칠 물건과 현지에서 구입할 물건을 사전에 면밀히 체크해 두어야 한다. 물론 현지인 또는 먼저 부임해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낫다.
- 가전제품: 가전제품 양판점 또는 디스카운트 스토어 이용이 일반적임. 동일한 상품의 경우에도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갖고 천천히 구입할 것을 권한다. 어디서 구입해도 상품의 경우 A/S 에 문제는 없다. 물건에 따라서는 수출용으로 제작되어 220V 겸용(일본은 100V)인 것도 있으므로 귀국 후 사용하는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가구: 할인판매점에서 구입함. 이 때 책방에서 무료 또는 저가로 판매하는 통신판매 카탈로그 등을 보고 가격 비교를 면밀히 해 두는 것이 경제적임. 가전제품보다도 더욱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구입하는 것이 좋음
- 기타집기: 할인점이나 집 근처 대형 슈퍼마켓에서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임.

바. 현지차량 운행

- 차량의 구입가격은 별반 문제가 없으나, 교통규칙이 우리나라와 다소 차이가 있으며, 차량 주차비 월 20~50,000 엔이 소요된다.
- 교통규칙 준수와 양보가 생활화 되어 있다. 최근 주차위반 단속강화로 인해, 주차위반이 거의 사라졌으며, 참고로 주차위반 벌금은 최고 1.5 만엔, 속도위반은 최고 4 만 엔이다.